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진호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1960년대 아동문학의 분화와 위상 연구
- 아동소설을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장영미

1960년대 아동문학의 분화와 위상 연구

- 아동소설을 중심으로 -

강진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장영미

논문개요

이 논문은 1960년대 아동문학의 분화와 위상에 대한 연구이다. 1960년대는 6·25 전쟁의 상흔이 점차 아물고, 4·19 혁명과 5·16 쿠데타 등에 의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시대이다. 1960년대 문학은 이런 시대적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전개된다. 1960년대 문학은 1950년대의 감정 과잉과 즉물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한층 안정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날의 문학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질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보여준다. 아동문학 역시 1950년대와는 확연히 다른 한층 성숙하고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1960년대 문학은 이전 시기 문학과 결별하면서 새로운 한국 문학의 가능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지하게 탐색하였다. 당시의 변화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후의 혼란과 결별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사회의 모습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그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면서 다양하게 현실에 대응한 것이다.

1960년대 아동문학이 번성한 데는 다음 몇 가지의 사회와 문학 환경의 변화에 원인이 있다. 먼저, 출판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전쟁의 상처가 점차 아물어가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특히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진학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가 요구되었다.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 출판계는 신속하게 대응했고, 그것이 '전집'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전집(全集)이란 한 사람 또는 같은 시대나 같은 종류의 저작(著作)을 한데 모아 한 질로 출판한 책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이다. 이런 전집의 유행으로 전집을 채우기 위한 아동물에 대한 폭넓은 수요가 발생했고, 그것이 1960년대 아동문학을 번성케 한 중요한 요인이다. 말하자면, 1960년대 전집 붐은 상업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국아동문학전집/선집의 출판 등의 형태로 아동문학을 번성케 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는, 아동문학 관련 전문 잡지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아동잡지가 1960년대에 출현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아동문학』이다. 부정기적으로 간행된 『아동문학』지는 아동문학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최초의 잡지이자 동시에 다양한 작품을 수록한 잡지로, 아동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동문학 평론을 본격적으로 개재함으로써 평론을 아동문학에 정착시켰고, 또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함으로써 아동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혀 놓았다. 또한 다양한 작가와 작품들을 수록함으로써 창작과 비평의 상호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서로 상승·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안이하고 감상적인 아동문학을 한 단계 높이 끌어 올렸다. 마지막으로 신춘문예라는 신인 등단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이다. 신춘문예는 1950년대 중반 이후 부활되어 1960년대에는 신인 등단의 중추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1960년대 아동문단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작가군 역시 신춘문예 출신들로, 이들은 다양한 형태와 주제의 작품들을 산출하였다. 신춘문예란 신인들의 재기와 참신성을 강조하는 관계로, 신춘문예 출신들은 다양한 실험의 식과 강한 주제 의식, 어린이 세계 확대 등 기성 작가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바탕으로 1960년대 아동문학은 본격적인 발달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부터 작품을 발표한 세대의 경우이고, 둘은 해방 후에 문단에 얼굴을 내민 세대이며, 셋은 1960년대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한 세대이다. 이들은 다양한 경향의 작품을 통해서 1960년대 아동문학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에 속하는 작가로는 이원수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김요섭, 세 번째는 이영호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문학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양식으로 사회와 어린이, 어린이의 심리와 꿈을 그려냈다. 이원수는 1950년대 쓰인 여타의 전후소설과는 달리 6·25 전쟁을 한층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전쟁이 남긴 상처를 문제 삼았고, 전후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현실을 그려냈다. 해방기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요섭은 어린이의 현실에 한층 깊이 몰두하였다. 아동문학에서 그 중심은 어린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어린이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에 주목한 것이다. 그래서 김요섭은 사실

적인 묘사보다는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환상의 형태로 그려내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신춘문에 출신인 이영호는 기성 작가들과 달리 어린이 자체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내면의식과 심리에 주목하였다. 기존 작가들이 아동소설을 창작하면서 어른의 시선과 감각으로 어린이의 현실을 그려냈다면, 이영호는 어린이들의 세계에 밀착하여 그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해내었다.

이렇듯 1960년대 아동문학은 1950년대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전쟁을 소재로,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분노했던 1950년대 문학과는 달리 1960년대 문학은 아동들의 실제 현실에 밀착해서 그들의 생활과 꿈, 동경과 지향을 실감나게 그려내었다. 이를테면, 분단과 한국전쟁이 빚어낸 상처와 후유증을 극복하면서 아동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본격화하였다. 그로 인해 1960년대 아동문학은 냉전 이데올로기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늘날과 다름없는 한층 본격적이고 성숙한 아동문학의 시대를 열게 된다.

문학은 시대와 사회 현실과 긴밀하게 연동되면서 발생하는 문화의 한 형태이다. 문학은 그 시대와 사회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문화 매체이기에, 문학을 대상으로 해서 당대 사회의 심층에 한층 다가갈 수 있다. 아동문학은 어린이의 생활과 꿈을 통해서 사회의 위약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한편으로 장차 도래해야 할 미래의 모습을 원초적인 형태로 보여준다.

본 논문의 1960년대 아동문학 조명은 당대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를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금껏 간헐적 수준에 그친 1960년대 아동문학의 의미를 보다 본격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이후 한국 아동문학사의 연속성을 매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리라 생각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6
3. 연구 범위 및 방법	13
II. 1960년대 사회와 아동문단	19
1. 4·19와 아동문단의 변화	19
2. 출판시장의 팽창과 아동문단의 확대	27
3. 신인 작가의 양산과 등단제도의 활성화	35
1) 『아동문학』지의 창작과 이론 탐구	37
2) 신춘문예와 다양한 작가 배출	48
III. 1960년대 아동소설 연구	60
1. 전쟁 상처의 극복과 평화로운 일상 - 이원수	66
1) 전쟁으로 인한 가정 해체	68
2) 전후 비극과 수난자들	72
3) 가치 중립과 이데올로기 극복	78
2. 유토피아와 평등 사회 구현 - 김요섭	84
1) 현실 초극과 미래지향의 환상	86
2) 물질만능주의와 위악한 세계 풍자	89
3) 어린이 중심의 어린이 공화국 건설	93
3. 일상의 발견과 어린이 세계 탐색 - 이영호	98
1) 주변부에서 중심부로의 전이	99

2) 내면 발견과 일상적 주체	102
3) 주제의 중층성과 미학 탐색	108
IV. 1960년대 아동문학의 문학사적 의미	116
V. 결론	122

참 고 문 헌

Abstract

*** 부록**

1. 1960년대 아동문학(인) 관련 신문 기사 및 단평
2. 1960년대 신춘문에 심사위원 및 당선작 일람

I. 서론

1. 연구 목적

이 논문은 1960년대 아동문학의 분화 양상과 위상에 대한 연구이다. 1960년대는 6·25 전쟁의 상흔이 점차 아물고, 4·19 혁명과 5·16 쿠데타 등에 의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1960년대 문학은 이런 시대적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전개된다. 1960년대 문학은 1950년대의 감정 과잉과 즉물적인 고백의 수준에서 벗어나 한층 안정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날의 문학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질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드러낸다. 아동문학 역시 1950년대와는 확연히 다른 한층 성숙하고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후의 혼란과 결별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사회의 모습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그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면서 다양하게 현실에 대응한 것이다.¹⁾

1960년대 문학은 이전 시기 문학과 결별하면서 새로운 한국 문학의 가능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었고, 또 다양한 탐구를 보여주었다. 1950년대 문학은 6·25 전쟁의 체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패배적이고 병적인 전쟁의 상처에 대한 기록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1950년대 문학과 달리 전쟁의 상흔으로부터 어느 정도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게 된 1960년대 문학은 분단과 전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 문학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를테면, 분단과 전쟁에 대한 직접 체험에 매몰되어 절망과 허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1950년대 문학과 결별하고, 분단과 전쟁에서 한 걸음 떨어져 그 체험에 대한 객관화를 시도함

1) 1960년대 문학에 대해서는 『1960년대 문학연구』(민족문학사연구소편, 깊은샘, 1998), 『1960년대 문학연구』(문학사와비평연구회, 예하, 1993), 『1960년대의 사회운동』(박태순 외, 까치, 1991),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일지사, 1978), 임영봉의 「1960년대 한국문학비평 연구」(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9), 홍송식의 「1960년대 한국문학 논쟁 연구」(명지대학교 박사논문, 2000) 등을 참조하였다.

으로써 상처와 후유증에 대한 극복 의지를 내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4·19 혁명은 분단과 전쟁의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²⁾ 예컨대, 4·19 정신과 경험이 시민 의식의 성숙에 중요한 기폭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민 사회에의 욕구를 불러 일으켰으며, 무엇이 시민 사회의 건설을 가로막는가를 살피는 과정에서 전쟁과 분단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1960년대 문학은 이전 시기 문학과 결별 의지를 내세우면서 한국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시작하는 시기의 문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능성 중 하나로 등장한 문제의식이 바로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사 정권이 시행한 개발 독재에 따른 자본주의적 근대화이다. 산업화, 도시화와 같은 현상들이 가속화되는 자본주의적 근대화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대의 작가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이에 대응하려는 고민은 가히 ‘혁명’이라 일컬을 정도의 새로운 인식과 감각을 추동시켰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1960년대에 촉발되어 현 시점까지 여전한 문제의식이라는 점에서 1960년대 문학은 이후 문학과 연속성을 획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1960년대 문학은 이전 시대 문학과 결별하고 새로운 탐색을 시작하여 이후 시대 문학과 연결되는 시기로 자리매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아동문학도 예외가 아니다. 해방 전 아동문화 운동 차원에서 출발한 한국 아동문학계는 해방 이후 정치·사회적 영향으로 혼돈의 과정을 거치다가 1960년대 들어서 비로소 오늘날과 다름없는 아동문학으로 질적인 성숙을 보여준다.³⁾ 다시 말해 1960년대 문학이 1950년대 문학과 결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노력했듯이, 아동문학계도 1960년대 들어서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며 본격적인 아동문학 시대를 맞은 것이다. 1960년대 초반 아동문학계의 새로움을 요구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⁴⁾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1960

2) 하정일,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25쪽.

3)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391쪽.

4) 특히 1960년대 초반 이원수와 윤석중의 글에서 아동문학계의 새로움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원수는 아동문학은 “1960년대 들어서 다양한 지면 확대로 작품 세계를 확장하여 대중성을 획득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4·19의 영향은 아동문학에도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고

년대를 ‘본격’⁵⁾ 아동문학 운동 시기라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는 아동문학의 본질에 접근하여 그 성과를 얻어낸 중요한 시기이다. 이전 시기와 같은 아동문학 운동이 아닌 아동문학 운동으로서의 접근을 통해 다양한 실험적 시도와 주제 의식 형상화 등으로 아동문학의 본질을 인식하는 계기를 구축한 시기인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 문학이 이후 시기와 연속성을 나타내듯이, 이 때 이루어진 아동문학에 대한 각성이 이후 아동문학의 흐름을 좌우하는 토대를 형성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1960년대는 아동문학의 본격적인 개화와 발전을 이루어낸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아동문학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960년대뿐 아니라 아동문학 전체 영역으로 확대해 보아도 성인문학에 비해 아동문학에 대한 논의는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한참을 뒤떨어져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아동문학 일반에 대한 일종의 편견을 꼽아볼 수 있다. 문학계 내에서도 아동문학을 문학으로 인정하는 기반은 매우 약하다. 아동문학은 그 고유 영역을 인정받지 못하고 연구와 비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편견의 이면에는 아동문학이 성인문학과 대비해 보았을 때 특수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 교육 담론의 일환으로 탄생하였기에 교시적(敎示的) 기능이 강화되는 반면 여타의 다른 기능들은 약화된다는 점 등이 작용하고 있

하였다.(이원수, 「1960年度 兒童文學 自由民主的인 文學에의 努力」, 『동아일보』, 1960. 12. 22.) 윤석중 또한 “우리나라 아동문학이 자기비판을 거친 총정리를 서둘러야 할 때는 왔다. 우거진 잡초를 뽑아버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거름을 주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는 각성을 통해 아동문학의 새로움을 혹은 변화를 부르짖고 있다.(윤석중, 「兒童文學의 止揚性」, 『동아일보』, 1960. 8. 18.) 보다 자세한 내용은 II장 1960년대 사회와 아동문단에서 살필 것이다.

5) 여기서 원종찬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의 쟁점」(『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0.)을 거론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원종찬은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는 뚜렷한 아동문학사 책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며 방대한 저술이라고 그 의의를 밝히고,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의 문제점으로 현대아동문학사에 대한 시대 구분을 들었다. 『한국현대아동문학사』에서 8·15 해방 이전은 아동문화운동시대, 그 이후를 아동문학운동시대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에 저자의 순수문학관이 작용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문학관의 문제성을 지적하였다. 즉, 원종찬은 문화는 문학을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이 두 용어를 동렬대칭 개념으로 간주하고 1960년대를 본격 아동문학시기라고 한다면, 그 이전의 아동문학은 문학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재철의 논의에 반론을 제기한다. 물론 필자도 원종찬의 논의에 동감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 사용하는 본격이라는 의미는 이재철의 논지가 아니라, 1960년대의 아동문학이 아린이를 주제로 상징하고 어린이를 중심에 둔, 즉 아동문학의 본질에 보다 충실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구현하였다는 점에 중점을 두면서 본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을 밝힌다.

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고유성을 인정할 만큼의 성인문학과와의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하며, 문학성을 논하기에도 교육이라는 목적 강조가 걸림돌로 존재한다는 식이다.

아동문학은 분명 성인문학과 많은 부분들을 공유한다.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전달하며, 정신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아동문학은 그 대상을 어린이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문학과 다르다. 더 나아가 성장 시기에 필요한 양식 제공으로 어린이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인문학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문학이 어린이에게 교육시켜야 할 가치 전달을 목적으로 삼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린이 만들기를 우선시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문학이 이데올로기와 밀착되어 있다는 것은 무조건 폄하할 일이 아니다.⁶⁾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아동문학을 장르문학⁷⁾으로 보고 아동문학이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까닭을 장르문학으로서의 속성 때문이라고 한다. 아동문학의 독자는 어린이이고, 독자 수용 측면에서 불특정한 다수의 독자와 대면해야 하는 장르문학으로서의 동화가 소설보다 이데올로기가 더욱 분명한 형태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화를 이데올로기와 분리해서 생각할수록 동화는 비현실적인 문학이 되며 도피와 위안을 제공하는 오락물이거나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순응주의적인 장치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듯이 아동문학은 성인문학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그것은 아동문학이 지닌 역사적 사회적 배경, 교육과의 강한 관련성, 내포청자 등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며, 아동문학이 성인문학과 다르다고 나타낼 수 있을 뿐이지, 예술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⁸⁾

아동문학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나름의 고유성과 문학성을 고려한다면, 아동문학

6) 김상욱, 『어린이문학의 재발견』, 창비, 2006, 156~157쪽. 본고에서는 아동문학과 어린이문학을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아동문단에서 아동문학과 어린이문학의 용어가 정립되지 않았고, 보편적으로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아동과 어린이 역시 같은 의미로 보고 혼용하기로 한다. 인용 시에는 필자가 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7) 여기서 장르문학이란 특정한 구조가 내용과 형식에 걸쳐 반복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작품의 특성보다 일반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문학작품을 뜻하는 것이다.

8) 마리아 니콜라예바,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교문사, 2009, 8쪽.

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특별한 기준이 필요하다. 즉, 아동문학의 본질과 기능, 영향 등을 파악해 낼 수 있는 기본 연구의 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문학에 개진된 담론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그 구체적 양상과 기능을 평가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이는 본격적인 아동문학 창작기라고 일컬을 수 있는 1960년대 아동문학에서 가능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960년대 아동문학은 아동문화 운동이 아닌 아동문학 운동으로서 아동문학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각성이 이루어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전 시기와는 다른, 그리고 이후 시기로 이어지는 문학으로서의 아동문학이 개화하여 발전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아동문학의 고유성과 문학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성과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1960년대 아동문학은 면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아동문학의 분화 양상과 그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1960년대 아동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동소설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성, 현대 아동소설의 모태가 된 현실에 대한 객관적 거리 확보 등 이전 시기와 다르면서 이후 시기로 이어지는 본격 아동문학으로서의 모습을 보다 확연히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1960년대 아동소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60년대 아동소설에 대해 살피는 일은 곧 1960년대 아동문학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문학 작품에는 현실과 그 현실이 안고 있는 세계관이 투영된다. 한 개인의 상상력과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문화적 배경 및 사회적 환경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문학이 시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사실 풍토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보다 어떤 정신적 풍토를 이야기⁹⁾하고 있느냐이다. 그리고 어린이를 둘러싼 여러 개념과 가치를 재생산하고 유포시키는 아동문학은 다양한 사회적 힘들이 이미지 창출을 위해 투쟁하는 담론의 장(場)¹⁰⁾이다. 동화 담론은 역사적 문명화 과정을 구성하는 동시에 각각의 상징작용이 공적 영

9) 김광수, 「한국 전쟁소설 주인공의 특성과 그 구조적 특성」, 『한국문학연구』 5집,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1982, 126쪽.

10) 손향숙, 「영국 아동문학과 어린이 개념의 구성」,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4, 2쪽.

역에서 사회화에 개입한다. 바꿔 말해, 동화 한 편은 상징적인 공적 발언이자 작가 자신과 독자인 아이들, 문명화 과정 전체를 증재하는 행위¹¹⁾이다. 잭 자이프스에 의하면, 동화 창작의 상징 작용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동화와 사회, 동화와 우리의 정치적 무의식을 연결하는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동화 작가들이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이와 어른 이미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을까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작가들이 작가 의식 혹은 사회적 경향에 따라 기존 사회가 규정한 동화 담론을 변경하려 했다면, 이와 같은 반응과 개입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고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당대의 사회적 환경이 아동문학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살핀 다음, 1960년대 작가의 상상력이 작품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즉 1960년대 작가들이 아동소설을 통해 아동과 아동문학, 더 나아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였는지, 왜 그렇게 하였는지에 대한 상징작용을 포착하고자 한다. 위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그 동안 평론 수준에서 접근한 1960년대 아동소설을 본격 문학적 차원에서 새롭게 고찰하고 그 위상을 정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상적 수준의 평가에서 벗어나서 1960년대 아동문학의 특성과 문학사적 의미 역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성인문학에 비해 아동문학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는 1960년대 연구에서도 다를 바 없다. 성인문학의 경우 1960년대는 다각도로 연구¹²⁾되었지만 아동문학

11) 잭 자이프스, 『동화의 정체』, 문학동네, 2008, 28쪽. 잭 자이프스는 동화의 정체에서 한 편의 동화 작품이 형성, 태동하는 데는 분명 시대에 따른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작품의 탄생 배경으로 시대, 역사적 상황을 살폈다. 『동화의 정체』에서 자이프스가 살핀 동화는 민담이다. 엄밀히 말해서 민담과 동화는 다른 용어이다. 하지만 넓은 범주로 본다면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를 주 독자로 하고 어린이가 읽는 문학이라는 점에서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동화, 아동소설, 소년소설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아직 아동문학계에서 용어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여 둔다. 인용을 할 경우 필자가 사용한 용어 또한 그대로 따를 것이다. 아동문학 혹은 어린이문학 역시 같은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의 경우는 거의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그간 60년대를 다룬 연구 또한 주로 간헐적 수준으로, 당대 활동한 작가를 대상으로 한 작가론과 작품론¹³⁾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연구는 60년대 아동문학을 바라보는 기본 틀과 아동문학사에 대한 이해의 근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하지만 1960년대 아동문학을 조망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평론 수준의 작가론, 작품론을 다룬 것 외에, 1960년대 아동문학/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는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이상현의 『아동문학강의』를 들 수 있다.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는 근대 아동문학부터 1960년대까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한국아동학사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 이재철은 1960년대를 본격문학의 전개¹⁴⁾로 규정하고 있다. 4·19 의의가 아동문학에 수용되면서 1960년대 아동문학이 비문학성을 탈피하려는 양상을 띠었다고 한다. 등단제도 정비, 동인 체제 중심의 문단 단체 결성, 각종 문학상 제정 등이 본격문학 전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상현은 『아동문학 강의』에서 1960년대를 아동문학의 실험시대로 보고 있다. 왕성한 문단의 활동과 동시의 새 지평, 동화의 새로운 모색 등을 그 예로 들면서, 1960년대 아동문학은 아동문학의 본질적인 모색과 탐구가 활성화된, 즉 아동문학의 실험시대라는 것이다. 이 두 연구서에 따르면 1960년대는 이전 문학과 다르게 새로움을 모색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이재철은 이를 본격 아동문학이라는 용어로, 이상현은 실험시대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철처럼 1960년대를 본격문학으로 명명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 물론 본격문학 ‘전개’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재철이 1960년대를 본격문학이라고 한다면 원종찬의 지적처럼 이전의 아동문학은 문학이 아니라는 논리로 귀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1960년대가 분명 이전 시대와 다른 특징을 갖는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12) 앞의 『1960년대 문학연구』, 임영봉의 「1960년대 한국문학비평연구」, 홍송식의 「1960년대 한국문학 논쟁 연구」 참조.

13) 이재철, 『한국아동문학작가론』, 개문사, 1983.
이재철, 『한국 아동문학작가작품론』, 집문당, 1991.

14) 이재철, 앞의 책, 522쪽.

고, 오늘날의 그것과 비교해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1950년대와 변별되는 요소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수준을 보여주었다면, 굳이 ‘본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성숙과 발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원종찬의 지적처럼, 이전 시대에도 있었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더 심화·발전되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그런 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서 살핀 바처럼, 아동문학사 연구는 많지 않으며 1960년대를 거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단편적이고 인상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또한 아동문학사를 연구한 그 외 논문 역시 한국 아동문학의 근대 이행기¹⁵⁾부터 1950년대까지를 대상으로 한 문학사 연구¹⁶⁾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연구 대상 시기의 측면에서 1960년대 아동문학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한국 아동문학사의 연구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도 1960년대 아동문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1960년대 아동문학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아동문학사의 연구 영역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작가들에 대한 개별 연구사이다.

이원수는 1926년 『어린이』 지에 동요 「고향의 봄」을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해방 이전에는 동시, 이후에는 주로 동화에 주력하고 한편으로는 비평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인지 이원수에 대한 연구는 동시¹⁷⁾, 동화¹⁸⁾, 비평¹⁹⁾ 등 다양하

15)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5.

김화선,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2002.

16) 선안나, 「1950년대 동화 아동소설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6.

17) 이오덕, 「동요를 살리는 길」, 『어린이문학』 30호, 한국 어린이문학협회, 1999.

김종현, 「해방기 이원수 동시 연구」, 『우리말글』 25집, 우리말글학회, 2002.

박태일, 「이원수 부왜문학 연구」, 『배달말』 32호, 배달말글학회, 2003.

김명인, 「이원수의 해방기 동시에 관하여」, 『한국학연구』 1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한정호, 「광복기 경남 부산지역 아동문학연구-남대우, 이원수, 김원룡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론집』 40집, 한국문화회, 2005.

18) 이재철, 「이원수의 문학세계」, 『아동문학평론』 18호, 아동문학평론사, 1981.

중춘수, 「이원수 동화·소년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1993.

다. 본고에서 다룬 『메아리 소년』을 연구한 논문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혜정²⁰⁾은 『메아리 소년』을 포함한 모두 7편의 아동소설을 중심으로 역사적 현실이 아동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피고, 이를 통해 이원수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분석해냈다.

오판진²¹⁾ 역시 『메아리 소년』에서 나타난 통일 지향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6·25 전쟁과 분단 현실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핀 다음, 통일과 관련된 문학교육을 수행하는 데 이원수 아동문학에 어떤 교수 학습 방안을 적용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창작동화를 통해 문학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문학교육 방법론의 변화를 통해 문학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균상²²⁾은 작가가 어떠한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았고, 현실을 어떻게 작품에 수용하였는지를 주제론적 접근과 서사 구조 패턴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는 모두 이원수 작품을 대상으로, 이들 작품이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수용하면서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는 공통된 평가를 보이고 있다. 이원수 작품을 고려할 때 이런 지적은 타당하고 또 이원수를 문학사에서 편입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이원수를 강소천과 대비시키는 논의²³⁾가 있다. 두 작가의 소년소설적 텍스트들에서의 인물, 배경, 사건 등에 대한 교육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작가를 비

김상욱, 「소박한 그러나 소중한-이원수의 아동문학론」, 『어린이문학』 30호, 어린이문학협회, 1999.
정진희, 「이원수 소년소설 잔디숲속의 이쁜이 연구」, 『한국언어문화』 2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김상욱, 「정치적 상상력과 예술적 상상력-이원수의 숲속나라연구」, 『청람어문학』 28집, 청람어문학회, 2004.
성현주, 「한국현대 동화의 나르시시즘 양상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논문, 2007.
박태일, 「나라 잃은 시기 후기 이원수의 아동문학」, 『어문논총』 47호, 한국문학어문학회, 2007.
박중순, 「이원수 문학의 리얼리즘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논문, 2009.
19)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연구사 시론-석 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17집, 2000.
이주영, 「이원수가 어린이 문학으로 꿈꾸는 세상」, 『어린이문학』 70호, 어린이문학협회, 2007.
20) 김혜정, 「이원수의 소년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09.
21) 오판진, 「이원수의 메아리 소년에 나타난 통일지향성」, 『문학교육학』 10호, 한국문학교육학회, 역락, 2002.
22) 이균상, 「이원수 소년소설의 현실 수용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7.
23) 권영순, 「한국아동문학의 양면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5.

교 분석하면서, 아동문학 발아기에 창작 활동을 시작하여 민족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후기로 오면서 전혀 다른 문학관을 내세웠다는 차이점을 논의하고 있는데, 작가의 창작 변모의 연유를 추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문은, 두 작가를 선정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고 작품을 단순 비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 한계가 드러난다.

다음은 김요섭에 대한 개별 연구이다. 동화작가이자 시인인 김요섭은 1941년 『매일신보』 신춘문예에 동화 「고개 너머 선생」이 입선하여 등단하였다. 이어 1946년에는 『소학생』지에 동화 「늙은 나무의 노래」가 당선되고, 1948년에는 같은 잡지에 「연」을 발표하는 등 줄곧 동화와 소년소설을 창작하였다. 김요섭에 대한 연구는 이재철, 한상수,²⁴⁾ 김현숙, 박상재, 권용철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재철²⁵⁾은 김요섭의 문학적 특징으로 현실 비판적인 작가의식이 두드러진다는 점과 환상을 꾸준히 추구하는 작가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코끼리』와 「인형의 도시」에서는 “현실 긍정적인 희망에 대한 각성”을 굳건히 하는 웅대한 스케일이 돋보인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경향이나 주제에 대한 공통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김현숙²⁶⁾은 김요섭이 환상성과 현실의식을 추구해온 작가이지만 일부 작품에서 환상이라는 기법과 메시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권용철²⁷⁾은 김요섭의 동화의 특징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고 말하면서 동화는 엄연한 산문 문학이지만 운문의 특성과 환상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김요섭의 동화에는 동화의 이러한 본질적인 속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탁월하다고 평가한다.

24) 한상수, 「김요섭 동화론고」, 『한국아동문학작가작품론』, 집문당, 1991.

25) 이재철, 「빛과 환상의 시인, 동화작가를 보내며」, 『아동문학평론』, 아동문학평론사, 1997, 겨울.

26) 김현숙, 「환상 문학 일 세대의 환상 탐구 여정과 그 의미」, 『아동문학평론』, 아동문학평론사, 1997, 겨울.

27) 권용철, 「김요섭 동화론」, 『아동문학평론』, 아동문학평론사, 1982, 여름.

한편, 김요섭에 관한 학위 논문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국 창작동화의 환상성을 연구하면서 그 일환으로 김요섭을 조망한²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환상성의 측면에서 김요섭의 작품에 접근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연구한²⁹⁾ 것이다. 이혜수³⁰⁾는 김요섭의 동화를 환상성과 이원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피면서 그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현실인식 문제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작품분석보다는 개괄적인 총평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아동문학가로서의 입지가 명확해서인지 김요섭은 50년대 주요 시인으로 자리매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 세계를 논의한 연구를 찾기가 힘들다. 한영옥³¹⁾은 이처럼 김요섭이 아동문학으로 명성을 떨치는 바람에 시 세계를 조명하는 논의가 거의 없다는 사정을 언급하면서 김요섭 시에서 반복되는 양태를 중심으로 시 창작의 특성과 상상력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현대시사뿐 아니라 아동문학사에서도 김요섭의 작품세계를 보다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한영옥의 논문을 제외한다면 김요섭은 거의가 환상성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김요섭의 대표적인 환상동화인 『날아다니는 코끼리』를 중심으로 작품 속에서 환상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왜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살필 것이다.

다음은 신춘문에 출신으로 1960년대 아동문학계에서 새로움을 불러일으키며 주목을 끈 신인 이영호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영호는 1966년 『경향신문』에 동화 「토끼」가 당선, 같은 해에 동화 「돌팔매」가 문공부 주최 ‘신인예술상’을 받으면서 본격적

-
- 28) 김영희, 「한국창작동화의 팬터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77.
 김은숙, 「창작동화에 있어서 환상의 미적기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4.
 박상재, 「한국창작동화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1997.
 김명희, 「한국동화의 환상성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논문, 2000.
 김현숙, 「현대 아동문학의 팬터지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0.
 황경아, 「한국창작동화에 나타난 환상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2.
- 29) 전지선, 「김요섭 동화론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2.
 임정순, 「김요섭 동화의 세계 인식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5.
 박은정, 「김요섭 동화의 환상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6.
- 30) 이혜수, 「김요섭 동화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7.
- 31) 한영옥, 「김요섭 시의 상상력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6집, 한국문예비평학회, 2008.

인 활동을 시작한 작가이다. 등단 후 이영호는 그 동안 써 두었던 동화를 묶어 작품집 『배넷소 누렁이』를 펴내면서 신인답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영호의 오랜 창작 활동 기간과 다량의 작품에 비해 그에 대한 연구³²⁾는 많지 않다.

이영호에 대해 처음 주목한 연구자는 이재철이며, 그는 이영호를 우리나라 아동문학사상 본격 아동소설의 개척자³³⁾라고 칭송하였다. 어린이의 심리, 생활 등 어린이 세계에 대한 깊이 있고 예리한 관찰이 다른 작가와 변별성을 갖기에 그러할 것이다. 최지훈은 작가가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으로 작가 정신과 진술 능력을 꼽으면서, 이 두 조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작가로 이영호³⁴⁾를 들었다. 이동렬은 이영호는 동화 쪽보다는 소년소설 쪽에 강하고, 단편보다는 장편에 능한 작가라고 평가한다. 이영호의 장편 소년소설에서 탄탄한 구조, 선이 굵고 친근한 소설적 문체, 풍부한 어휘, 폭넓은 소재, 작가 의식이 투철한 주제 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년소설을 소설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소년소설이 정당한 소설 문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성공한 첫 번째 작가로 이영호를 꼽는다.

이렇듯이 이영호에 대한 연구의 공통점은 아동소설의 특성을 독특한 시각으로 인식한 작가라는 것이다. 이영호는 아동문학으로 등단하기 전 소설을 쓴 특이한 이력 때문인지 아동소설에서 뛰어난 작품성을 선보인 작가이다. 그리고 아직 여러 장르가 혼재되어 있고, 그 구분이 어려울 때 아동소설이라는 명칭 아래 활동하면서 아동소설의 장르를 정립하려고 애쓴 작가이다. 1960년대 본격 아동문학 시기 아동소설에 대한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바, 이원수, 김요섭, 이영호에 대한 연구들은 1960년대 문학의 지평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다. 언급한 대로 1960년대 아동문학이 이전과는 달리 한층 성숙하고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면, 이들이 이룬 성취가 중요하게 기여한

32) 이시대의 아동문학, 『시와 동화』 21호, 2002, 가을.

33) 이재철, 앞의 책.

34) 최지훈, 「겨레가 당한 질곡의 증언」, 『아동문학평론』 69호, 아동문학평론사, 1993, 겨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와 구별되는 이들의 1960년대적 성취에 대해서 정당한 문학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런 사실을 전제로 이들 세 작가가 이룩한 1960년대의 성과를 고찰하고, 그것이 갖는 아동문학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다른 시대들에 비해 1960년대는 뚜렷한 변별성을 가지지 못한 시기로 이해되곤 한다. 1950년대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참담함을 드러낸 시기, 1970년대는 독재 권력에 의해 행해진 유신이라는 탄압과 경제 건설이라는 산업화가 얽혀 있는 이중성을 지닌 시대로 각인되어 있는 반면, 1960년대는 50년대와 70년대의 과도기적 시대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시각이 아동문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1960년대 아동문학의 특성과 문단사적 의미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고는 1960년대를 대상 시기로 하여 당대에 간행된 『아동문학』지와 중앙지의 신춘문예, 단행본 등을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1960년대에 간행된 『아동문학』지는 아동문학 이론의 초석을 다진 아동문학 이론 연구지이자 동시에 작품 발표의 장으로써, 『아동문학』지의 이런 성과가 없었다면 1960년대 아동문학은 전 시기에 비해 한 단계 성숙한 상태로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아동소설관에 대한 인식과 각성으로 아동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징후³⁵⁾들도 그 성과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지의 신춘문

35) 한국의 아동소설은 40년대 후반에 이미 양적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으나 뚜렷한 세를 형성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는데, 한국 전쟁을 계기로 아동문학은 완전히 산문문학 시대로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아동소설의 90% 이상이 전문 아동문학인이 아닌 중군작가단에 소속된 일반 소설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총검을 대신하여 붓으로 자유와 조국을 위해서 싸우고자 한 중군활동의 취지였고 아동소설 창작 역시 사상전 승리를 위한 무기였으므로 문학성이나 어린이 독자의 특성 등은 고려되지 않았

에는 당대 등단 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아동문학계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신인 양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시대의 문학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는 전체적인 시대정신에 대한 파악과 개별적인 작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문학은 동시대의 미학인 동시에 시대성을 지향하는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될 때 작품의 진실이 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문학연구가 그러하지만, 1960년대 문학 연구는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6·25 전쟁의 상흔, 4·19 혁명, 5·16 쿠데타라는 시대적 배경이 1960년대 문학을 아우르는 문제의식을 만들어낼 정도로 크게 작용한 것이 이 시기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본고는 1960년대 아동문학의 다양한 분화와 길항의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분화에 주목하는 것은 이 시기의 다양한 양상들을 상징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다. 1960년대는 전후의 혼란이 진정되면서 사회적인 안정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를 갖게 된 시기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문학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작가들을 배출하는 신춘문예 등의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1960년대에는 많은 작가들이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요 경향을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1960년대에 활동한 작가들을 등단 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하자면, 해방 이전에 등장한 세대, 해방 후에 등장한 세대, 그리고 1960년대에 등단한 세대로 나눌 수 있다. 해방과 함께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좌익 계열의 작가들이 월북하면서 남한에는 이른바 순수문학을 견지하는 작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다. 이들은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기존의 문학적 특성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

다.(선안나, 앞의 논문, 4쪽.) 그러나 1960년대 접어들면서 50년대 대중문학의 팽창에서 중추 역할을 했던 아동소설을 중심으로 종래의 비문학성을 탈피하려는 의식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는 60년대 아동소설계의 변모상으로, 본격 문학 운동의 적극적인 양상으로 풀이 될 수 있다.

는 기민함을 보여준다. 이원수는 그런 구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식민지 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과 전후의 현실을 소화하면서 사실주의적인 창작방법으로 아동 현실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이원수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세대가 1960년대 들어 어떠한 문제의식과 방법으로 작품 활동을 했는가를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요섭은 해방 후에 등장한 세대를 대표한다. 김요섭은 전쟁과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의 참상을 몸소 체험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기에, 아동 문학에서는 그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자 하였다. 장차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로서 아동은 순수한 꿈과 희망 속에서 성장해야지 성인들의 추악한 갈등과 싸움 속에서 성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갖는 꿈과 환상을 주된 소재로 활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김요섭은 해방기에 등단한 작가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며, 1960년대 아동문단의 독특한 경향의 하나를 대표하게 된다. 한편 이영호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기 시작한 1960년대에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전쟁이라든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그는 아동들의 실제 생활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갖는 기쁨과 슬픔, 고통과 갈등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일상 현실에서 부딪히는 섬세한 심리적 갈등과 내면의 흐름 등이 그가 주목한 아동의 주요한 현실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원수나 김요섭과 구별되는 1960년대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작가의 한 사람이다.

본고는 이전 사실을 바탕으로 1960년대 아동문학의 분화의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1960년대 사회와 아동문단의 동향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당대의 리얼리티와 시대의식을 어떠한 형태로 형상화했는지를 고찰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1960년대 아동문학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밝히기로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1960년대 사회와 아동문단의 동향을 살필 것이다. II장 1절과 2절은 문화·사회적인 배경 연구로, III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작품 분석에

앞서 시대 배경을 살피는 이유는 문화적 현상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시대건 하나의 현상이 생겨나고 그 현상이 확산되는 데는 동시대의 사회구조적 측면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1절에서는 1960년대 서막을 연 4·19가 1960년대 아동문학에 미친 의미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4·19가 문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는 없을 지라도, 앞서 살핀 것처럼 이전 시기와 다른 한국 문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일정 수준의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960년대 작가들의 인식 전환과 새로운 각성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4·19를 중심으로 시대적 배경을 탐사하고, 그에 따른 아동문단의 동향을 고찰하기로 한다.

2절에서는 1960년대 아동문학과 관련된 사회 환경과 문화 환경의 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출판문화의 변화를 살필 것이다.³⁶⁾ 1960년대는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안정,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모 세대의 높은 교육열과 급격하게 증가한 교육인구가 전집 붐이라는 출판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낸 시기이다. 출판이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사회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의 전파가 출판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출판 매체의 존재 방식은 단지 문화산업이라는 미명하에 고립된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체 속에서 다른 사회 구조와의 역동적인 상호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진다.³⁷⁾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제반 여건들, 즉 정치·경제·사회 문화 현상을 살피면서 그것이 당대 출판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3절에서는 1960년대 아동문학계 내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규명한다. 우선, 최초의

36)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18쪽. 저자는 아동문학의 발전은 근대성의 지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특히 가족과 학교 제도의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한다. 가령 분단 시대의 아동문학은 초등교과서와 연계되어 국민교육의 일환이자 체제동원의 도구로 전략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는 분단 시대 뿐 아니라 이후 아동문학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작용한다. 따라서 1960년대 사회의 제도 변화를 살피는 일이 필요하리라 본다.

37) 박미경, 「사회변화가 한국 출판현상에 미친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7, 1~5쪽.

아동문학 비평 전문지인 『아동문학』지의 창간 배경과 특성, 의의를 살필 것이다. 이 시기에 다른 잡지들도 많이 간행되었지만 『아동문학』지는 기존의 잡지나 동시대의 여타 잡지와 달리 문학 이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편집 체제를 두어 작품을 선별했다는 점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간행되었지만 『아동문학』지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실제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1960년대 발행된 중앙지의 ‘신춘문예’를 살피기로 한다.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신춘문예는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부활하여 1960년대에는 등단 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1960년대 아동문단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작가 군단에서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실험의식과 주제 의식, 아동 세계 확대 등 기성 작가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 작가들이 당대는 물론이고 이후 1970년대 아동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살피는 것은 1960년대 문학사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신춘문예 심사위원들의 당선평과 당선 작품을 살펴 당대의 문학상을 읽고자 한다.

Ⅲ장은 작품 분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작가의 임무 중 하나가 자기 시대가 다른 시대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자기 시대의 모습을 신화의 높이에까지 표현하는 것이라면, 현대 작가는 현대 사회의 조건 하에서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낡은 신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현대적 조건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현대 사회의 조건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신화의 모습으로 명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현대 작가가 현실과 맺는 바른 관계³⁸⁾라고

38)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지성사, 1980, 112~113쪽. 최인훈은 현실에서의 작가의 임무를 역설하면서 작가는 현대적 조건에 맞게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신화를 크게 자연 신화와 사회 신화로 나누는데, 자연 신화는 자연이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성질은 어떻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며, 사회 신화는 자기 민족이 어떻게 시작했고 자기 민족 생활에서는 무엇이 바람직한 일이고 무엇이 해서는 안 될 일인가를 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고대 신화의 경우는 한 가지 조건에 대한 반응인 반면, 현대 세계에서 조건은 분야와 시간, 행동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고 말한다. 따라서 현대 문학의 근본 원리는 ‘만일 무엇 무엇이며, 그때는 무엇 무엇이다’라는 식의 조건법이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조건에서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대적 사명과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현실이 다를 때, 구성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견지에서 III장에서는 1960년대 작가가 현실을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 살필 것이다. 기성 작가와 신인 작가의 작품을 함께 살필 것인데, 그 이유는 당대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뿐 아니라 문학사 내에서 이 시기 문학이 갖는 의미 규명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정 기준은 1960년대 그 문학성을 인정받았으며, 이후에도 아동문학계에서 일익을 담당한 작가와 작품이다. 여기서 작품은 아동소설로 한정한다. 1950년대를 비롯한 종전의 아동소설이 목적문학으로서 기능했던 것에 비해, 1960년대 아동소설은 비문학적 저속성을 탈피하려는 의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1960년대 본격 아동문학 운동의 적극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IV장은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토대로 1960년대 아동문학의 문학사적 의미와 한계를 정리할 것이다.

문학은 시대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화의 한 형태이다. 그 시대와 사회 현상을 본질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문화 매체이기에, 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당대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현실을 어린이의 천진한 시선으로 포착하는 아동소설은 사회와 어린이, 어린이와 사회의 특성을 근원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대를 읽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아동문학을 조명하여 그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를 찾는 일은 한국 아동문학사를 통찰하는 일인 동시에 1960년대라는 시대를 읽어내어 우리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1960년대 사회와 아동문단

1. 4·19와 아동문단의 변화

4·19는 어떤 의미일까? 4·19의 의미는 성공한 혁명이나 실패한 혁명이나를 따지는 이론적 논쟁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는 4·19가 가능하게 만든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인식 전환과 새로움에 대한 각성에 숨어 있다. 문학적 측면에서 4·19는 전후의 자기연민과 피해의식의 문학에서 벗어나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그로 인한 충격과 인식의 전환은 이후 많은 작품들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³⁹⁾ 그 중 하나가 1950년대 내내 작가들을 억압했던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의 경계선이 제거되었다는 점이다. 4·19가 문학인들에게 가져다 준 선물 중 하나는 이데올로기 콤플렉스로부터의 탈출이라고 부를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인 것이다.⁴⁰⁾

1950년대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표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저한 반공주의였다. 이승만 정권이 반공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사회운동의 탄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무게를 견디지 못한 1950년대 작가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에 안주하거나 함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바로 4·19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4·19 정신과 경험은 문인들이 기본 인식과 시각을 다듬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인지 4·19는 역사적 사실로서

39) 황정현, 「4·19 체험과 현실 비판 정신의 계승」, 『한국논단』4월호, 1998, 373쪽.

40) 홍정선, 「4·19와 한국 문학의 방향」, 『해방 50년과 현대문학의 전개』(해방 50주년 특별 기획 심포지엄 자료집), 민족문학사학회, 1995, 52쪽.

단순한 소재로 차용되는 단계를 넘어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할 하나의 이념 혹은 정신으로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1960년 이후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단에서 4·19는 사실보다는 의미로, 단순한 소재보다는 정신과 이념의 담지자나 매개체로 훨씬 더 많이 다루어져 왔다⁴¹⁾고 할 수 있다. 아동문학계에서도 4·19는 자각과 반성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아동문학을 본격 문학으로 정리하고 형성케⁴²⁾ 하는 전기를 제공하였다.

문학의 현실에 참여 여부를 두고 어느 쪽이 참다운 리얼리즘 정신이며 올바른 기능인가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어용주의나 교훈주의 문학, 대중 상업주의 경향의 문학 등에 대해 반성하는 등 문학으로서의 아동문학에 접근하는 논의들이 문단 내부⁴³⁾에서 일어났다.

今年는 例年보다 더 심한 出版難의 海요, 月刊誌의 凶年이었으나 日刊新聞이 큰 舞臺를 마련해 주어서 많은 作品이 發表되었다. (...) 이러한 現象은 兒童文學이 幼兒나 低學年兒童을 主人公으로 하여 그들의 좁은 生活範圍에서 그들을 愛撫해 온 듯한 作品世界에서 벗어나와, 兒童의 社會的인 生活에 파고들어 大衆性을 獲得하여 새로운 局面을 打開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자칫하면 兒童文學의 通俗化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나, 廣範한 兒童大衆에게 浸透하여 그들을 文學으로서 싸주기 위해서는 效果의이요, 올바른 길이라 할 것이다. 過去·現在를 莫論하고 兒童文學의 藝術性이 稀薄하여 通俗으로 墜落한 것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境遇, 成人文學과는 사정이 달라 受信教材的인 教育性을 가지려한데서 비롯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從前부터 正權에의 阿附나 現實逃避, 不正의 罔匪, 낡은 道德에의 盲從 등으로 나타났으며 兒童文學을 文學 아닌 俗된 것으로 떨어뜨리는 커다란 病廢로 되어 있는 것이다. 革命과 兒童文學 四月革命은 이러한 非民主的인 文學에의 反省과 淨化의 機會를 주었다고 보며 따라서 兒童文學의 正當한 發達을 促進시키는 데 강한 影響을 주었다.⁴⁴⁾(밑줄 인용자)

위 글도 4·19로 인한 아동문학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위 글에 의하면, 아동문

41) 조남현, 「한국문학에 나타난 4·19혁명」, 『한국논단』 4월호, 1998, 126쪽.

42)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집문당, 1988, 86~87쪽.

43) 박춘식, 『아동문학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83, 159쪽.

44) 이원수, 「1960年度 兒童文學 自由民主的인 文學에의 努力」, 『동아일보』, 60. 12. 22.

학은 1960년대 들어서 지면이 확대되고 아동의 사회적인 생활에 파고들어 대중성을 획득하는 방면으로 작품 세계가 변화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중요한 점은 종전의 아동문학은 정권에의 아부나 현실 도피 등의 병폐로 인해 통속화되는 식의 비민주적인 문학이었으며, 이에 대한 반성과 정화의 기회를 준 것이 바로 4·19이고, 그에 따라 아동문학의 정당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 새로운 국면을 평가하고 있는 대목이다. 4·19 이후 대중들의 내면에 자유와 개인에 대한 개념적 자각이 일어나게 되며, 전쟁 이후 급격하게 밀려들어 온 서구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대중들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시작⁴⁵⁾했다는 점도 아동문학의 반성과 정화가 4·19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점을 증명해준다.

이런 반성과 정화를 토대로 아동문학과 아동문단을 새롭게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兒童文學이 成人文學에 比해서 不振하고 輕視되어온 事實을 率直히 認定한다면 그 原因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糾明해 보아야 할 것이다. (...) 筆者는 이것을 兒童文學 自體에 돌리지 않고, 첫째 作家의 兒童文學觀 및 創作 態度에서 그 重要한 原因을 보며, 둘째로 實際兒童文學에 參加하고 있는 作家의 文學的 實力不足에 그 原因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이다. (...) 兒童文學觀 및 創作 態度 問題는 兒童文學에 對한 理解不足, 그릇된 正意 乃至 判斷에서 오는 것이다. 實際 兒童을 <未熟한 成人>으로 보고 <兒童으로서 完全한 人間>으로 보지 않으려는 낡은 兒童觀에서 文學으로 表現하는 데까지 인식하거나, 文學에 있어서의 童心이란 것을 偏狹하게 評價하여 兒童의 自體를 實社會에서 分離하려하거나, 惑은 兒童의 素朴한 思考와 範圍 좁은 生活圈에 拘碍되어 깊이 파고들어야 할 世界가 없는 것처럼 錯覺하거나, 民主的하고 自由로운 兒童의 成長을 爲하는 일보다는 論議하지 않고 어른의 말을 잘 듣는 服從·忠孝·禮儀的인 百姓을 만들려거나 하는 作家가 많다는 것이다. (...) 다음으로 둘째 原因, 作家의 實力不足을 어떻게 補強할 것인가의 問題는 무엇보다 作家들의 文學修鍊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첫째 原因인 兒童文學家의 文學觀과 創作態度를 바로 잡아서 純粹한 文學으로 認識을 고쳐간다면 兒童 文學界에 混亂을 일으키

45) 백로라, 『1960년대 희곡과 이데올로기』, 연극과 인간, 2004, 12쪽.

고 있는 作家 아닌 作家도 判別되어 人的으로 淨化될 것이요 力量 있는 作家의 參加도 보게 될 것이다.⁴⁶⁾

위 글에서 이원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아동문학관의 정립을 요청하는 일 역시 그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원수는 아동문학이 성인문학에 비해 부진하고 경시되어 온 원인은 아동문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아동문학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릇된 정의와 판단에서 오는 것이라 말한다. 아동을 사회에서 구분하여 미성숙한 인간으로 보고, 아동의 성장을 위하는 일보다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어린이로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 낡은 아동관을 질타하고 있다. 그리고 이원수는 아동문학관의 올바른 정립과 아동문학가의 정화를 통해 아동문학의 부진과 멸시를 면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와 같은 새로운 아동문학관 정립 요청은 윤석중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兒童文學의 文學的 水準을 올리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成人文學과 兒童文學의 담을 무너버리는 일이다. 이 말은 어른들의 通俗小說이나 신세타령을 어린이에게도 읽히자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어린이를 위한 作品이면서 어른들에게 感銘을 줄 수 있는 作品을 낳자는 것이다.⁴⁷⁾(밑줄 인용자)

윤석중은 아동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것은 어린이를 위한 작품이면서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산출하는 일이라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동문학관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방향으로 주제의식 강화, 동심의 새로운 추구, 동심과의 접목을 통한 시적 아동소설에의 모색, 농촌 소재에의 탐색 등이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⁴⁸⁾ 그에 따라 이 시기 아동소설은 그 동안의 부진과 경시를 떨치고, 동화 문학에의 인식 증대를 이끌었으며, 산문문학의 창작방향 전환을 꾀했다. 이러한 60년대 아동소설의 변모상은 비문학적 아동소설을 문학으로 이끌어 올리는

46) 이원수, 「兒童文學의 當面課題」, 『경향신문』, 1961. 1. 30.

47) 윤석중, 「兒童文學의 止揚性」, 『동아일보』, 1960. 8. 18.

48)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집문당, 1983, 43쪽.

과정이었으며, 그것은 아동소설가의 문학적 반성과 자각을 바탕으로 한 본격 문학 운동의 결과물이라 풀이 할 수 있다. 새로운 아동소설관 정립에 대한 인식과 요청에서 드러나듯이 문학으로서의 아동소설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출구 모색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4·19는 이처럼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아동문학을 탐색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아동문학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다음 몇 가지를 거론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실에 대한 인식의 심화와 확대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을 그려내게 되었다는 점이다. 4·19는 비록 미완의 혁명이었음지라도 완전한 자유는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유가 용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듦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리얼리즘적 공간을 만들었다.⁴⁹⁾ 그리고 이전 시대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획득하고, 그에 대한 결별 의지를 내세우면서 체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즉 체험의 객관화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리얼리즘적 공간의 확보와 체험의 객관화는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삶을 탐구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즉, 과거의 삶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살피는 일로부터 출발해 현재의 삶의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를 파헤치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50년대 문학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현실 탐구를 보이는 데 반해, 1960년대 문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을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성인문학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아동문학에서도 이전 시기와는 다른 성찰 방식이 나타난다. 4·19를 배경으로 한 이원수의 『메아리 소년』은 이런 리얼리즘적 작품 경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성인문학계와는 달리 아동문학계에서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인식의 심화와 확대의 밑거름 역할을 한 것 중 하나는 전쟁 직후 아동문학에 대거 참여한 일반 소설가들이 사실주의 기법의 아동소설을 창작했었다는 점이다. 창작 동화가 양적 측면에서 크게 부진하던 상황에서 이들의 활발한 집필로 한국 창작동화의 외연과 내포를 크

49) 김윤식, 「어떤 4·19 세대의 내면풍경」, 『운명과 형식』, 솔, 1998, 23쪽.

게 팽창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팽창은 미학적 가치와는 별개로 동시대에 대한 문학사적 증언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⁵⁰⁾ 그리고 이들의 참여로 1950년대의 적나라한 생활상이 아동소설의 장에 폭넓게 수용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문학의 현실적 기능 문제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는 등 60년대 아동문학의 현실에 대한 인식의 심화와 확대에 일정 정도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동문학의 신인 등용문이 달라지면서 1950년대 문학과는 다른 질적 차별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쟁 이후 중단되었던 신춘문예가 50년대 중반부터 완전히 정착되고, 문예지의 신인 추천제가 확립되면서 신인 등용문이 제도화된다.⁵¹⁾ 여기서 신춘문예와 문예지의 추천제에 따른 신인 등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아동문학에 대한 열망으로 유능한 신인을 등장시키기 위해 관문 제도를 정비하는 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력을 인정받은 신인들이 이전 세대의 친목 위주 문학에서 벗어나, 실제 작품 활동 중심의 체제로 각종 동인 단체를 만들어 문단을 형성했다는 것도 풍토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아동문학을 정립하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과거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였으며, 신인들의 이와 같은 열정은 기성세대로까지 전파된다. 그리하여 이전 문학이 지니고 있던 감정의 과잉 상태와 같은 병폐를 극복할 수 있었고, 세계와 일상적 삶에 대한 자기 인식을

50) 선안나, 앞의 논문, 62쪽. 선안나는 일반 소설가들이 전쟁 직후 대거 아동소설을 창작하게 된 까닭은, 물질적 기반이 파괴된 현실에서의 경제적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하면서 당시 대개의 작품들이 치열한 문학적 긴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 현실 세태를 피상적으로 묘사하는 차원에 머물렀으며, 흥미를 유발시키는 소재와 줄거리에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일반 소설에서 상당한 수준의 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작가들조차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소설을 양산한 데는 애들이 읽는 글이라 가벼이 여기는 여건 면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계몽주의 「오리알」, 손창섭의 「장님 강아지」, 「돌아온 썰리」, 「싸움동무」 등은 객관적 현실과 그 현실에 대응하는 인물의 성격을 치밀하고 힘 있게 그려낸 작품들이며, 이에 따라 아동소설의 지평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한다.

51) 1960년대 신춘문예는 신인들을 매년 배출하지만, 문예지의 신인 추천제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가령 1960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아동문학』 지의 경우, 창간호부터 추천제로 신인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공고를 하였으나 거의 신인을 뽑지 못했다. 투고하는 독자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고 작품의 질적 문제로 선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전의 아동문단이 안면인식으로 작품을 수록하였던 것을 상기한다면, 1960년대 신인 추천제의 추천 방식 혹은 추천제 공고는 아동문학을 더 이상 안일하게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 전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영호, 조대현, 손춘익 등은 1960년대 신인들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작가들이다.⁵²⁾ 그 이유는 이들이 ‘아동과 세계에 대한 인식’, ‘자기 세계 구축’ 등 이전 문학과는 다른 아동문학 이론과 작품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각성을 근거로 자기 세대만의 특수성을 규정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역량 있는 신인 작가들의 등장은 관문 제도 정비와 아동 문학의 본격적인 문학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아동문학으로 향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아동문학의 저속성 탈피⁵³⁾이다. 1950년대 아동문학계에서는 만화를 비롯해 모험 탐정소설, 순정소설, 명랑 소설 등 오락 위주의 통속 대중 소설이 쏟아져 나와 독자들을 매료시켰다.⁵⁴⁾ 이러한 50년대 통속적 대중문학의 팽창을 조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아동소설이다. 선안나의 지적처럼, 전쟁과 전후의 혼란 속에서 읽을거리가 부족했던 시대의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때문에 부정적 가치 평가 이전에 카오스적 역동성의 표출 양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흥미와 오락 위주의 이런 아동소설들이 아동문학의 질적 저하와 문학적 폄하를 야기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50년대 아동소설의 장편 붐이 통속적 대중문학의 팽창과 관련된 일시적일지도 모를 현상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60년대 아동소설의 새로운 아동문학을 찾아내려는 움직임은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는 이전의 비문학적 저속성을 탈피하려는 의식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앞의 이원수 글에서 확인한, 1960년대 들어서 이루어진 다양한 지면 확대와

52) 이 세 작가는 1966년 같은 해에 등단하였다는 점-이영호(『경향신문』), 조대현(『서울신문』), 손춘익(『조선일보』)-과 이전 세대와 달리 아동문학은 아동 중심이라는 문학관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영호는 뛰어난 구성력과 세부적인 묘사로 아이들의 생활을 설득력 있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조대현은 아이들을 중심에 두되 교훈적인 생활 동화를 창작했다는 점에서, 손춘익은 시대를 풍자하는 것이 세계를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갖는다.

53) 여기서 저속성은 통속성, 상업성, 목적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속성은 문학성 결여로 직결될 수 있는데, 아동문화 운동으로서의 계몽담론 일색의 이전 문학이나 당대의 정치 맥락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창작된 목적 문학인 1950년대 문학이 바로 그런 행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안나의 지적처럼 전쟁 직후 일반 소설가들의 아동소설이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4) 선안나, 앞의 논문, 63쪽.

아동의 사회적인 생활을 파고드는 작품 세계 확장은 그 움직임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작의 변모와 더불어 아동문학 이론과 평론 분야에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⁵⁵⁾ 먼저 1960년대 평론 부재에 관련해 언급한 윤석중의 글을 보자.

兒童文學 專門家 중에는 文人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다. 그들에 대한 作家的인 力量評價는 讀者에 한발 앞서 評論家의 힘을 빌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八·五이전에는 宋某, 尹某, 申某 모조리 越北들이 兒童文學에 관한 評筆을 든 以後 이렇다 할 評文을 본 일이 없다. 이력저력 五十年 歷史를 지닌 우리나라 兒童文學이 自己批判을 거친 總整理를 서둘러야 할 때는 왔다. 우거진 雜草를 뽑아버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거름을 주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⁵⁶⁾

윤석중은 이전 작가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작품 활동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문단의 재정비를 역설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작가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론가가 필요한데, 아동문학계에 해방 이전에는 몇몇 평론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월북한 이후 특별한 평론가가 없다고 말하면서 아동문학 평론가가 시급하다는 것을 피력한다. 아동문학을 변화시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상적이고 단편적인 언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비평을 할 수 있는 평론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동문학 이론을 다루는 등 아동문학에 문학으로서 접근한 『아동문학』지의 존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962년 창간된 『아동문학』은 아동문학 이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인 잡지로, 아동문학 이론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아동문학을 ‘문학’으로서 인식하고 각성을 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최초의 문예지라는 점에서 1960년대뿐 아니라 이후의 아동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매김

55) 이상현, 「아동문학강의」, 일지사, 1987, 305쪽.

56) 윤석중, 「兒童文學의 止揚性」, 『동아일보』, 1960. 8. 18.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살핀 바, 4.19 이후 1960년대 아동문학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아동문학 정립을 위한 발걸음을 옮겨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의 심화와 확대, 등용 관문의 제도 정비, 저속성 탈피, 이론과 평론에의 천착 등 문학으로서의 아동문학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이 점에서 1960년대 아동문학은 이전 시기의 문학과 결별하고 이후 시기의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바를 확립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1960년대 아동문학의 동향의 원인으로 4·19 혁명만을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19 혁명의 정신과 경험이 아동문학계에 수용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뚜렷한 실체를 드러낼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다. 당시 아동문학계가 4·19로 인해 촉발된 역사의식, 문학의 주체성, 순수 대 참여 등의 문제 해결에 온전히 대응하진 못했다는 점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문학에 대한 인식과 각성이 4·19의 자장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으며, 그러므로 1960년대 아동문학에 4·19 혁명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1960년대 아동문학에서 4·19의 영향과 아동문학계 자체가 지닌 내적 가능성이 결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종전의 문학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문학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에 따른 동향들은 아동 문학 자체 내의 고조된 기운이 4·19 혁명의 정신과 경험으로 분출되어 나온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출판시장의 팽창과 아동문단의 확대

1960년대 아동문학과 관련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회적 변화는 출판문화 측면에서 전집 붐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서들 역시 마찬가지로

1960년대에 아동 전집과 선집의 발간 건수만 헤아려도 수십 건에 이른다.⁵⁷⁾ 1960년대 아동문학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출판문화의 변화를 살피는 이유는 사회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의 전파가 출판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할 때, 아동도서는 독자층인 어린이들에게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것이 아동문학의 특수성이기도 한 교시적 기능 강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즉, 시대와 사회가 원하는 것을 아동에게 전하는 데 아동도서가 일정한 몫을 하게 되며, 이것이 1960년대 아동문학의 일부분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 까닭이다.

1960년대 출판문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출판 매체의 존재 방식이 단지 문화산업이라는 미명하에 고립된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체 속에서 다른 사회 구조와

57) 1960년대 발간된 아동전집(선집)은 다음과 같다. 『세계명작선집』 10권(한국교육문화원, 1960), 『세계소년소녀문학전집』 10권(신태양사, 1961), 『어린이세계문학독본』 6권(계몽사, 1962), 『소년소녀세계문학전집』 50권(계몽사, 1962), 『어린이세계명작』 6권(홍자출판사, 1962), 『한국아동문학전집』 12권(민중서관, 1962), 『소년소녀세계문학전집』 20권(문선각, 1962), 『소년소녀세계전기전집』 12권(삼화출판사, 1962), 『소년소녀세계과학모험전집』 (아데네사, 1962), 『한국아동문학독본』 10권(을유문화사, 1963), 『한국현대명작동화선집』 8권(계진문화사, 1963), 『세계아동문학독본』 12권(을유문화사, 1963), 『원색어린이그림책』 5권(재동문화사, 1963), 『한국기인전집』 10권(정문사, 1963), 『세계명작동화전집』 5권(현문사, 1964), 『안데르센동화선집』 9권(구미서관, 1964), 『세계명작동화전집』 20권(상지사, 1964), 『한국아동문학선집』 3권(교학사, 1964), 『강소천아동문학전집』 6권(탐영사, 1964), 『한국소년소설선집』 2권(교학사, 1964), 『한국위인·지사전기전집』 20권(정문사, 1964), 『소년소녀세계명작전집』 20권(삼성출판사, 1964), 『세계아동문학독본』 12권(을유문화사, 1965), 『학원명작선집』 30권(학원사, 1965), 『그림동화선집』 6권(구미서관, 1965), 『세계동화선집』 15권(삼화출판사, 1965), 『소파아동문학전집』 5권(삼도사, 1965), 『소년소녀한국고대문학전집』 10권(상구문화사, 1965), 『아동문학전집』 36권(대한출판사, 1966), 『세계어린이동화전집』 10권(성동문화사, 1966), 『소년소녀세계명작선집』 10권(박영사, 1966), 『세계어린이문학전집』 40권(대한출판사, 1966), 『소년소녀세계명작전집』 10권(교문사, 1966), 『세계아동문학상전집』 5권(보음출판사, 1966), 『소파아동문학전집』 5권(동양출판사, 1966), 『한국아동문학전집』 12권(민중서관, 1966), 『한국그림동요집』 5권(계몽사, 1966), 『소년소녀한국전기전집』 15권(계몽사, 1966), 『한국소년소녀전집』 20권(정음사, 1967), 『소년소녀과학전집』 12권(계몽사, 1967), 『소년소녀세계문학전집』 30권(문선각, 1968), 『명작그림책』 10권(삼성출판사, 1968), 『소년소녀세계위인자전집』 10권(계몽사, 1968), 『소년소녀세계문학전집』 12권(어문각, 1969), 『안데르센 동화전집』 5권(일신사, 1969), 『세계명작동화전집』 5권(육민사, 1969), 『킬러판어린이세계명작』 10권(계몽사, 1969), 『소년소녀공공실화전집』 6권(삼일각, 1969), 『발견발명이야기전집』 10권(영민사, 1969), 『자연과학이야기전집』 12권(중앙교육문화사, 1969), 『소년소녀세계과학명작전집』 12권(문예출판사, 1969), 『소년소녀우주과학모험전집』 10권(교학사, 1969), 『세계과학모험전집』 12권(광음사, 1969). 이상 아동전집(선집) 출판 목록은 『한국출판연감』 (49~57년판, 63년판, 64년판, 66년판, 68년판), 어효선의 「거의가 문예물 집대성 - 아동도서 출판사 20년사」 (『출판문화』, 1966, 5월호), 「해방 이후 아동전집 출판에 관한 역사적 고찰」의 부록(정복화, 동국대 석사논문, 2000), 「한국아동전집출판의 통시적 연구」(오경호, 『92 출판학 연구』)에 수록된 것을 참조하였다.

의 역동적인 상호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대전제가 선행⁵⁸⁾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현상은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형되며 이어져 가는 연속성의 형태를 나타낸다. 문화적 현상이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의 현상이 생겨나고 그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동시대의 사회구조적 측면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적 측면은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정의되는 바 그 사회적 테두리란 사회 경제 제도를 통해서 형성되는 범주를 의미한다.⁵⁹⁾ 간단히 말해서, 전집 붐이라는 출판문화의 급격한 변화는 동시대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사회구조적 측면의 제반 여건들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제반 여건들을 살피면서 당대 출판문화의 변화를 엿보기로 한다.

1960년대 출판문화와 연관된 제반 여건 중 급격한 변화를 보인 분야로 경제와 교육을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엔이 주도하고 있던 제 1의 개발연대 기치 아래 국가 발전과 교육 계획이 강조⁶⁰⁾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함께 교육 계획의 수립도 이루어졌다.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선거라는 절차는 거쳤지만, 정통성 측면에서 약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정권 획득의 명분을 살리고, 집권 기반도 다지기 위해 5·16 당시 내걸었던 ‘자주경제 건설’을 추진하는 근대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경제개발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경제발전을 위한 총력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⁶¹⁾ 이와 같은 ‘조국 근대화’를 슬로건으로 한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는 상상조차 못했던 대변화를 일으켜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생활 방식의 일대 혁신을 가져다주었다. 1960년대의 경제 환경은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다

58) 박미경, 앞의 논문, 1997, 1~5쪽.

59) 이동순, 『한국인의 세대별 문학의식』, 집문당, 2001, 19쪽.

60) 문교부, 『문교 40년사』, 1988,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31쪽.

61) 총력을 다한 결과 12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계획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7%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이 달성되었고,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구조에서 2차 산업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졌다.

소나마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다.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 행해진 일이었지만 전쟁의 폐허를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사회의 틀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안정은 교육 분야의 변화에 기여하였다.

정부의 각별한 관심도 당대 교육 분야의 변화를 야기한 요소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교육 계획 수립, 이에 덧붙여 의무 교육 정착 추진 등 교육 측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교육제도 변동과 발전의 국면에 접어들었고, 양적 성장의 정점을 이룰 정도로 교육 시설⁶²⁾과 교육인구가 증가⁶³⁾한다.

정부의 관심을 사회 교육 분야로도 이어진다. 4·19와 5·16을 거친 박정희 정권은 국민 교육 정신 강화를 계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1961년 6월 12일에 재건국민운동⁶⁴⁾에 관한 법률 공포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건국민운동은 그 기본 성격이 범국민적인 사회 교육 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문맹 교육, 문고 보급 운동 등을 실행하였다. 사회 교육 부문의 일환으로 실행된 문고 보급 운동은 마을문고 보내기 운동⁶⁵⁾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곧 국민 독서 운동으로

62) 문교부, 앞의 책, 108쪽. 본격적인 산업사회를 위한 국가 발전 계획이 강력히 추진되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함께 교육 계획의 수립도 이루어졌다.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후에는 의무교육 시설 및 실업교육 시설의 확충 등이 경제개발 특별 회계 속에 포함되었고 교육 재정도 크게 확충 강화되었다. 의무 교육을 위한 정부의 시설투자과 재정투자는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제 1차 의무교육시설 확충 계획, 1967년부터 197년까지 제 2차 의무 교육시설 확충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 의무 교육 시설 확충계획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1차 계획 및 2차 계획 기간과 일치한다. 이는 국가가 교육을 국가 발전의 핵심사업과 계획으로 간주하고 의무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음을 나타낸다.

63) 문교부, 위의 책, 218쪽. 교육인구의 구성과 변화 기반은 전체 인구의 성장과 변동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인구는 일제 강점기 하에서는 증가율이 미미하였으나 해방 이후부터 194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4.9%였으며 6·25전쟁 이후 1955~1960년 사이 출산율이 급증하여 인구 증가율은 2.9%까지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64) 재건국민운동은 생활 혁명, 정신 혁명, 인간 개조, 도의 재건을 위한 운동 등으로 표현되면서 저명 인사와 대중 매체의 협조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기본 성격과 사업 내용이 범국민적 사회 교육 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지도자 훈련, 순회 교육 계획, 문맹 교육, 학생 계층 및 봉사 활동지도, 문고 보급 운동, 선전 계몽 운동, 생활 개선 지도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정신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운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와 개혁을 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교육 정책도 다른 부문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모할 수밖에 없었다.

65) 1963년 3월 7일자로 마을문고 보내기 운동이 정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정부 기관과 그 산하 단체 그리고 각종 매스컴의 협조가 뒷받침되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사실 문고 보내기 운동은 서적이 잘 보급되지

발전하였다.

교육 분야의 변화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현상은 베이비붐(baby boom)의 출현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체로 1953~60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정부 주도 하의 경제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베이비버스터(baby buster)들처럼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는 못하였다. 그와 더불어 생활양식도 여전히 대가족 속에서 부모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자랐다. 이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권위를 부정적으로 볼 뿐 아니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많은 양의 교육을 받았으며, 그들의 전통적 권위 의식을 퇴색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단적으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는 성장기에서 1950년대에 전쟁과 분단 상황을 다룬 반공문학과 그에 연계하는 순수문학 및 모더니즘 경향을 띤 문학작품을 접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문학 표현 형태는 4.19 혁명 이후 문학이 사회성을 지녀야 한다는 인식의 고조 속에서 리얼리즘적 성향을 지닌 경우가 많았다.⁶⁶⁾ 이런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은 교육인구의 증가⁶⁷⁾를 불러 왔고, 그것이 점차 교육 양상과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른바 ‘콩나물 교실’과 ‘2부제 수업’이라는 양상이 나타났고, 중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육 제도의 변화⁶⁸⁾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인구 증가는 교육계에서 양적 성장 위주의 변화를

않은 농촌이나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나 간이 독서실을 마련하여 이들 지역 국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운동으로 광복 후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5·16혁명 이후이다. 사단법인 마을 진흥회가 발족되면서 명칭이 마을문고로 통일되었으며, 또 정부의 후원을 받아 보급 지역을 전국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었다. 마을문고 진흥회는 문고와 도서의 보급 사업 외에도 독서 클럽의 조직과 독서 지도 및 마을문고 운영에 대하여 지도해 주었다. 문교부, 앞의 책, 324쪽.

66) 이동순, 앞의 책, 106쪽.

67) 6·25 이후 1955년부터 1960년까지 5년간 약 35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연평균 2.9%의 높은 자연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1960년대 초반기에 초등교육인구를 연 6%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급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55~60년까지 출생한 인구가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연도는 1961~67년이 된다.

68) 김태현,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연금포럼』, 2010, 봄, 9쪽.

이끌어냈으며, 그 이면에는 부모 세대의 지나친 교육열⁶⁹⁾이 작용하고 있었다. 일본의 군국주의와 6·25 이후의 혼란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부모 세대가 터득한 삶의 진리는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논리였다. 이에 덧붙여 학력 사회로서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상층으로의 이동과 부의 획득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 사회 변동의 와중에서 계층 상승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학벌을 꼽게 된 것이다.⁷⁰⁾ 이에 따라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토지나 돈보다 교육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고 여기게 되면서⁷¹⁾ 교육열이 높아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나타난 경제적 여유, 사회적 안정, 정부의 관심과 베이비붐 세대의 출현, 부모 세대의 교육열과 같은 교육계의 변화 등은 전집 붐이라는 출판문화의 변화로 이어진다.

1958년 ‘학원사’에서 대백과 사전을 출간한 뒤, 외판 방식에 의한 월부제를 과감히 도입하여 판매에 성공을 거두자⁷²⁾ 다른 출판사에서도 전집을 출간하기 시작하였다. 1959년 ‘을유문화사’를 필두로 ‘정음사’, ‘동아출판사’에서 연이어 100권 분량의 방대한 세계문학전집을 출간하면서 붐이 형성되었고, 1960년대 내내 지속된다. 1950년대 말기에 전집 매체가 회생되기 시작한 아동도서도 196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전집 붐에 가담한다.⁷³⁾ 특히 1961년 ‘아동우량도서선정위원회’의 발족과 1963년 도서관법 제정⁷⁴⁾은 아동도서 출판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물론이고,

69) 문교부, 앞의 책, 220쪽.

70)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역사비평사, 1998, 187쪽.

71)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2001, 256쪽.

72) 강진호,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2, 11월호, 157쪽.

73) 오경호, 「한국아동전집출판의 통시적 연구」, 『92 출판학 연구』, 한국출판학회 편, 범우사, 161~170쪽. 오경호는 1960년대 성행했던 전집 붐은 1970년대 초에 와서 절정을 이루었다고 한다. 1968년 7월 15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를 수립함으로써 입학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자 아동 도서 및 독서에 관한 인식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출판연감에 의하면, 아동도서의 발행 종수가 1969년 268종에서 1975년 1069종으로 거의 5배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1960년대 초 일어난 전집 붐이 지속된 경제 성장으로 1970년대에 와서 절정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74)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28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 시설 확충과 그 기능의 정상적 회복이 가능해졌다. (...) 도서관은 문화 시설 가운데에서 사회 교육과 가장 관계가 깊은 시설로, 특

아동 전집류의 기초도 마련해 주었다.

아동 전집이 처음으로 발행된 것은 해방 후, 조선아동문학인협의회가 펴낸 『소파 아동독본』(5권, 1946)이다. 그러나 『소파아동독본』을 포함하여 1947년까지 발간된 아동도서는 거의가 해방 전에 집필 또는 발표된 것이었다. 아동도서가 창작되어 발간되기 시작한 것은 1948년부터였다. 그리고 이후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성행하면서 전집 발간으로 나아간 것이다.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 아동용 전집류는 대개가 문예물이었다. 먼저, 1960년대를 전후하여 다수의 소년소녀세계 명작 전집류가 출판된다. 어효선이 가장 완성된 세계 명작의 집대성이라 평한 『세계 명작동화』 포함한 이 시기의 세계 명작 전집류는 대개가 일본어판 중역으로 20세기 전반 일본의 어린이 추천 도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는데, 『보물섬』, 『로빈슨크루소』, 『소공자』, 『소공녀』 등이 그 목록을 이루고 있다. 목록에서 알 수 있는 바, 이 전집류의 작품들은 백인 우월주의 시각에서 제국주의의 팽창 정책에 적합한 침략성을 정당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의 열강들의 세계적인 팽창 시기에 그에 필요한 꿈을 자국의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출판된 작품들을 일제가 그들의 팽창정책 실행을 위해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에 모아서 세계 명작이라 소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위인전 및 역사물은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실 위인전과 역사물은 시대적으로 요청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상을 담아 간행되게 마련이다. 196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충효를 지배적인 규범으로 내세우고, 인간관계도 수직적 관계를 보다 우선시하는 등 당대에 필요한 인물과 가치관이 강조되었다. 과학 전집 출판은 주로 1960년대 후반에 이루어지는데, 1970년대에 들어서 더욱 활발해진다. 1970년대를 전후로 생활 중심에서 학문 중심으로 변화된 미국 교육 개혁이 과학 지식의 구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아동 전집 간행에 영향을 미쳤으리

히 공익 도서관의 도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공익의 교양과 조사, 연구 및 레크레이션 등의 제 공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사회 주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적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문교부, 앞의 책, 326~327쪽.

라 볼 수 있다.

이렇듯 1960년대 여타 사회구조의 변화는 출판시장에 영향을 미쳐 전집 붐이라는 출판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렇다면, 이런 출판문화의 변화가 1960년대 아동문학과 관련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부정적인 면부터 살펴보자면, 출판문화의 상업성으로 인한 악영향이다. 세계 명작, 위인전, 역사물, 과학 등 전집류는 그것이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필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제적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출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대와 사회가 원하는 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다 잘 팔릴 수 있는 책들을 출간하는 것이 당대 출판계의 경향이었던 것이다. 이런 식의 당대 출판문화의 상업성은 아동문학과 관련된 문제를 낳기에 이른다. 이를테면, 어린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책들이 범람하게 되었다. 한국 아동문화 위원회가 출판을 적절히 규제하고 그 내용을 순화하도록 하는 사전 심의 기구⁷⁵⁾를 만들었다는 것은 출판문화의 상업성으로 인한 폐단이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출판문화의 전집 붐은 아동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하였다. 1961년 '우량 아동도서선정위원회'의 발족과 1963년 도서관법 제정 공포는 초등학교 학급도서 설치 운동과 학교 도서관 증대로 이어졌다. 또한 1968년 정부가 과외 열풍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로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독서 환경이 조성되자 아동 도서에 대한 독서 욕망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당시 읽을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전집물이 등장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켰던 것이다.

세계 명작류에서 시작하였으나 이후 점차 문학성을 가미한 아동문학전집/선집이 등장하였다는 점에도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방정환, 마해송, 윤석중, 이주홍, 이원수, 강소천, 임인수, 박화목 등의 『한국 아동문학 독본』10권(을유문화사,

75) 금성출판 30년사 편찬위원회 편, 『금성출판사 30년사』, 금성출판사, 1995, 80~82쪽.

1963)과 『강소천 아동문학전집』6권(담영사, 1964), 『소파 아동문학전집』(1965, 삼도사) 등의 한국 아동문학 작품집이 출간되어 아동들의 새로운 읽을거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1960년대 아동문학의 생성기반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한 권의 책은, 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총망라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 그 시대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낸다. 아동도서 역시 사회 환경의 소산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도서는 독자층인 어린이들에게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보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1960년대 출판문화에서 일어난 전집 붐을 그것을 가능하게 한 제반 여건들을 밝히고, 그 구체적 양상을 알아보고, 1960년대 아동문학과 관련된 의미를 짚어내는 순서로 살펴보았다. 1960년대 출판문화에서 일어난 전집 붐은 아동문학과 관련해 상업성에 의한 폐단이라는 부정적 의미와 함께 한국 아동문학 전집(선집)의 출판에서 나타나듯이 새로운 읽을거리에 대한 아동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긍정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신인 작가의 양산과 등단제도의 활성화

앞서 1절에서 밝힌 바처럼, 1960년대 아동문학계는 새로운 아동문학으로의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이번 절에서는 그 일환으로 기울인 노력 중 이론과 평론에의 천착과 등용 관문 제도 정비의 구체적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960년대 아동문학의 이론과 평론에의 천착을 『아동문학』지를 중심으로 해명해 보고자 한다. 1960년대 대부분의 잡지들이 지속적으로 발행되지 못하면서 창간, 복간, 폐간을 오가는 상황에서 간행된 아동잡지를 열거해보자면, 이전부터 발간되던 『새벗』, 1960년 1월에 창간한 『카톨릭 소년』, 1964년 5월에 창간한 『새소년』, 재간행을 시작한 『소년세계』를 우선 들 수 있다. 이 잡지들은 만화가 전체의 30%

에 이르는 등 흥미와 오락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에 나온 『어깨동무』, 『소년 중앙』 역시 그와 같은 상업주의에 영합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을 위한 아동문학전문지인 『아동문학』이 창간되었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비평 부재의 아동문학계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학으로서의 아동문학 노선을 표방하는 등 단순한 흥미와 오락 위주의 읽을거리에서 벗어나 문예 전문지로서 1960년대 아동문학의 새로운 모습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아동문학』지는 1969년 폐간 이후에도 1970년 6월 김요섭이 창간한 『아동문학사상』에 매호 특집을 마련하는 편집의 틀을 제공하는 등 아동문학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아동문학』지의 창간 이유를 1960년대 제기된 새로운 아동문학 정립 요청으로만 볼 수는 없다. 1962년 새로운 교육자 양성기관으로서 교육대학이 전국적으로 설립되면서 초등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에 아동문학이 설정되자, 자연스럽게 아동문학이 학문적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⁷⁶⁾ 아동문학지에 초등 교사를 위한 내용들, 가령 글짓기 잘 가르치는 방법이나 어린이들의 글쓰기를 평가하는 난과 같은 내용들이 수록된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창간에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1960년대 내내 문학으로서의 아동문학 정립에 힘쓴 『아동문학』지의 의의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문학』지는 1960년대 아동문학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전쟁 이후 중단되었던 신춘문예의 부활과 정착은 새로운 아동문학에 대한 열망으로 유능한 신인을 등장시키기 위해 관문 제도를 정비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신춘문예로 등단한 실력을 인정받은 신인들이 이전 세대의 친목 위주 문학에서 벗어나, 실제 작품 활동 중심의 체제로 각종 동인 단체를 만들어 문단 풍토를 개선했다는 점도 이 시대 아동문학계에서 일어난 제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정비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신춘문예 출신 신인들은 과거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였으

76) 최지훈, 『시와동화』, 2008, 겨울, 508쪽.

며, 이와 같은 열정은 기성세대로까지 전파된다. 그리하여 이전 문학이 지니고 있던 감정의 과잉 상태와 같은 병폐를 극복하고, 이후 문학으로 이어지는 세계와 일상적 삶에 대한 자기 인식을 확보해 나가는 등 1960년대 아동문학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신인들의 패기와 열정을 펼치는 장인 신춘문에 작품을 통해 당대 문학이 갈구한 것은 무엇이며, 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동문학』지의 창작과 이론 탐구

1962년 10월 창간된 『아동문학』지는 1965년 5월, 19집으로 종간될 때까지 아동문학의 기초 이론과 아동문학사 정리 등 60년대 아동문학 연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시 말해 문학으로서 아동문학에 접근하여 그 본질적 측면인 아동문학관 정립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1집 ‘편집을 마치고’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이 땅에 아동문학의 싹이 움트기 40년을 헤아리나 아직도 이렇다 할 연구와 평론이 없었음은 문학을 위해서도 교육을 위해서 안타까운 사실, 이래서 “아동 문학”은 탄생할 필연성에서 제 1집을 낸다. (...) 첫 출발 기념으로 심포지엄 “아동문학이란 무엇인가?”를 특집했다. 우리는 먼저 올바른 아동문학관부터 세워야겠다.⁷⁷⁾

편집진은 아동문학에 대한 이렇다 할 연구와 평론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아동문학』지 창간 배경을 밝히고, 때문에 첫 호에 ‘아동문학이 무엇인가’를 특집으로 다룬다고 말하고 있다. 그 특집에는 김동리의 제안을 시작으로 강소천, 최태호, 조지훈, 박목월 등의 글이 수록되었다. 이런 내용은 그동안 아동문학에 대한 문학적 접근을

77) 「편집을 마치고」, 『아동문학』 1집, 1962, 79쪽.

아쉬워하던 독자들에게 신선함을 던져 주었다. 『아동문학』 1집에 대한 독자의 후기가 그것을 증명한다.

〈편집을 마치고〉에 그 취지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읍니다만 기대가 여간 큰 게 아닙니다. 사실이지 제가 알기엔 지금껏 신문의 문화면에서나 대부분 수명이 길지 않은 어린이 잡지에 아동문학작품이 발표되었지만 그건 거의 작품에 그치는 정도였는데 이제 아동문학의 연구와 실재를 목표로 탄생한 〈아동문학〉은 진정 아동문학의 요람이라 하고 싶습니다.⁷⁸⁾

1집만 보고 잡지의 특성을 논하기는 성급한 감이 있지만, 『아동문학』지가 다른 잡지와 달리 아동문학 연구와 실재를 목표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소천이 창간호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아동문학의 평가 방법’을 꼽고 ‘아동의 대변자가 되며 아동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아동 편에 선 문학평론가의 출현만이 좋은 아동문학 작가를 낳을 줄 안다.’라고 말한 점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즉, 이론과 평론 면에서 아동문학관 정립을 우선시한 것이 『아동문학』지인 것이다.

그에 따라 『아동문학』지는 아동문학 이론 탐구와 작품 비평에 주력한다. 덧붙여 창간호에 〈아동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동화와 소설〉(2집), 〈동요와 동시의 구분〉(3집), 〈아동문학의 나아갈 길〉(4집), 〈아동문학의 문제점〉(5집), 〈아동문학의 방향〉(6집) 등을 수록하여 아동문학의 본질적인 장르 문제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렇듯 『아동문학』지는 아동문학 이론과 평론을 우선시하고, 장르 문제와 쟁점을 다루는 등 아동문학을 본격 문학의 궤도에 올리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문학관을 새롭게 정립하여 문학으로서의 아동문학에 접근하는 본격 아동문학 시대를 열어간 것이다. 이처럼 『아동문학』지는 이전까지 문화운동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아동문학이 문학적 차원으로 올라서는 데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

78) 「아동문학의 요람이 되기를」, 『아동문학』 2집, 1962, 47쪽.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⁷⁹⁾가 크다.

실제 작품 분석을 통해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1) 세계 공존의 두 양상

① 어른의 시선과 훈육

김성도의 「전화」(4집, 1963. 3.)는 전화라는 매개물을 통해 어린 옥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재미를 주면서 그 안에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불쌍한 원아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 버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죽지 않게 해달라 것, 만화가 나쁜데 왜 그것을 없애지 않느냐는 등의 내용이다. 그리고 당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소련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등을 담고 있다. 물론 이 작품은 마지막 부분에서 개연성이 떨어지지만, 어린 아이들을 단순히 어리게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선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듯 1960년대는 어린이들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는 시대를 반영하는 작품에서 알 수 있다.

먼저, 「큰꽃 작은 꽃」(오영민, 1집, 1962. 10.)은 4·19 의미를 그리는 작품이다. 4·19 당시 국민학교 4학년이던 영임이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릎을 다친 대학생을 구해 준다. 그 대학생은 영임이의 아름다운 마음을 그려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게 된다. 4·19 정신 즉,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1960년대 『아동문학』지에서 가장 많이 소재가 된 것은 6·25 전쟁이 남긴 전후의 상처이다. 1963년에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희성(『동아일보』)과 최효섭(『한국일보』)은 같은 해에 전후를 소재로 한 작품을 발표한다. 이희성의 「아버지의 고향」(5집, 1963. 6.)에서 덕수 아버지는 6·25 때 유엔군으로 한국 전선에 왔던

79) 이재철, 앞의 책, 584쪽.

영국 사람으로 덕수가 두 살 때 돌아가셨다. 덕수는 눈동자가 파랗고 머리털은 밤빛에 가까운 노랑색이어서 아이들에게 양키라고 놀림 받는다는 내용으로 6·25 이후 혼혈아들이 겪는 애환을 그리고 있다. 전후 시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소외된 인물들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작품이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고마움을 담고 있으며, 엄마와 아버지가 만난 과정을 아름답게 그렸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설움을 받고 있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인지, 결말에 엄마가 아버지의 나라 영국을 환상적으로 묘사하고, 덕수는 아버지 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점은 흠을 남기지만, 6·25 이후 또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최효섭의 「노래를 낳는 구름 울타리」(5집, 1963. 6.)는 전쟁놀이를 즐기던 용호가 꿈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느끼고, 스스로 나무총을 부수고 더 이상 전쟁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타인의 도움도 아닌 스스로 그 참혹함을 알게 되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단, 본문에 환상적인 내용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흠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알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점에서 인상적이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문 중간 중간에 노래를 삽입하여 재미와 새로움을 모새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집」(박흥근, 10집, 1964. 12.)은 1·4후퇴로 변화를 맞게 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동수는 미술시간에 자신이 사는 초라한 집을 그려야하는 데, 반대로 멋진 집을 그려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 집에는 들어가지만 동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속상해 하는 동수를 보고 아버지는 1·4후퇴만 아니었어도 고향에 있는 좋은 집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한다. 표면상으로는 가정 형편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6·25가 빛은 참담함을 담고 있다.

「붉은 병정개미」(최인학, 10집, 1964. 12.)는 북한의 실체를 알리는 의인동화이다. 붉은 병정개미들의 대장은 인간은 과학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한다. 안전하게

살기 위해 노예들을 많이 잡아 오고 땅 밑으로 굴을 파게하고 먹을 것을 저장해 두
자고 부하들을 꼬인다. 그 말을 믿은 일개미들은 대장의 말을 듣고 따른다. 그러나
나중에 대장의 말이 간교한 술수였다는 것을 알고 부하 개미들이 대장 개미를 죽인
다.

주미의 「소풍」(11집, 1965. 4.)은 6·25 전쟁으로 인해 부모 없는 응숙이 친구로
부터 왕따 당하는데, 전후 남긴 흔적으로 고아들을 어떻게 대해주어야 하는지를 보
여 주고 있다.

1960년대 초반 『아동문학』지의 6·25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전쟁이 남긴 상
처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한 호에 동일한 소재의 작품을 수록하
였다는 것이다. 가령 다른 소재의 동화를 수록하지만(한 호당 평균 4편정도의 작
품을 수록) 5집과 10집의 동일한 소재가 발표되었다는 것은 계획된 편집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잡지의 편집 방향이면서 당대의 시대 요청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화」
를 비롯해 앞의 작품들은 대개가 어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어린이를 주
인공으로 하지만 약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 정의 등의 주제는 어린이들이 성장하면
서 필요로 하는 어른의 훈육 일환인 것이다.

② 동등한 구성원과 다른 시선

「아버지의 재혼」(주미, 8집, 1964. 4.)은 재혼을 소재로 하고 있다. 관식이 아버
지는 재혼을 하기 위해 할머니에게 새어머니가 될 사람을 보여주는데, 관식이가 몰
래 엿 본다. 관식이는 새 어머니 겉모습이 수수하지 않아서 실망하고 아버지 재혼을
싫어한다. 그러나 다시 집에 인사 하러 온 새어머니의 또다른 모습을 보고 생각을
달리 하게 된다. 이 작품은 재혼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관식의 반감이 아버지
의 재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어머니 모습이 수수해 보이지 않다는 점에 비롯된
것을 보면, 재혼을 관대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
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거나 꺾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주미의 「아버지의 재혼」이 재혼 전의 과정을 소재로 한 것이라면, 「영이와 강아지」(장수철, 12집, 1965. 7.)는 재혼한 가정의 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다. 영이는 사사건건 자신을 싫어하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 엄마의 계속된 구박에 정을 못 붙이던 영이가, 길에서 만난 강아지를 자신 모습처럼 생각하고 데려오지만 엄마의 반대로 키울 수 없다. 그런 영이는 강아지를 데리고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영이를 찾아 나선다. 새어머니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의 애처로운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앞의 「아버지의 재혼」이 재혼을 쉽게 그린 것과는 또다른 양상을 띤다.

그리고 가난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겪는 모습을 그린 작품도 눈에 띈다. 「사랑 열매 동실동실」(손동인, 11집, 1965. 4.)은 주인공 석민이는 공부를 잘하지만 집이 가난하여 수석을 하고서도 중학교에 갈 수 없다. 졸업식에도 돈을 벌로 나간 부모님 때문에 쓸쓸하게 식당에 간다. 그러나 졸업식에 아버지도 오고, 창수 공부를 봐준 덕택에 창수 아버지가 입학금을 내줘서 중학교 갈 수 있게 된다. 결국 가난해도 실망하지 말고 꿋꿋이 살면 하늘이 돕는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산이 하는 말을 듣고」(박홍민, 11집, 1965. 4.)는 아버지가 편찮아서 중학교에 갈 수 없는 경아를 주인공으로 한다. 경아는 친구들이 중학교 시험을 치르러 간 날 산에 올라가 목 놓아 운다. 정신없이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린다. 중학교 못 간다고 좋은 사람이 못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공부 할 수 있다는 말에 힘을 얻는다. 가난한 형편이지만 중학교에 가고 싶은 어린 아이의 좌절과 극복을 그렸다. 이 작품은 처음에는 주인공의 생각을 사실적이면서 섬세하게 잘 표현했으나, 결말에 가서 너무 갑작스럽게 어른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빨리 봉합하려는 흐름을 남긴다.

「경수와 메리」(박홍근, 8집, 1964. 4.)에서 고아인 경수는 강아지인 메리를 의지하고 살지만 메리가 차에 치어 죽는다. 메리가 죽고 경수는 외로움을 느낀다. 자동차가 가진 빠른 속도와 세상의 속도를 그린 것으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가진 자

의 모습이라면 경수를 돕는 주변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로 비유할 수 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1960년대 『아동문학』지에 수록된 작품들은 어린아이가 단지 물리적으로 어린 것이지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전화」에서 어린 옥희가 그릇된 세상에 대해 질타하는 데서 그러하며, 전후가 남긴 상처를 안고 세상을 사는 아이들의 삶 조명 역시 어린이를 타자화하지 않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사회의 일원이지만 어른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어항」(김영일, 6집, 1963. 9.)은 어른들의 생각과 어린이의 생각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난한 살림살이 때문에 겨울이 싫은 엄마와 달리 추운 날씨에 작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걱정하는 삼돌이의 대비된 모습은 어른의 삶과 어린이의 삶의 차이를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듯 1960년대는 어른의 시선과 어린이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

(2) 자아 성찰과 주체

「수남이와 수남이」(강소천, 1집, 1962. 10.)에서 수남이는 친구들로부터 겁장이라고 놀림 받는다. 의기소침해진 수남이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의 그림자 이면서 심장인 수남이와 대화를 하다가 점차 자신감을 얻는다. 이에 수남이는 밤에 서낭당 느티나무 굴 안에 돌맹이를 갖다 놓고 온 이후 용기를 갖게 되고,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에게 복수를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또다른 고통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이 작품은 자신 스스로 치유를 하면서 반성과 성찰한다.

196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준연의 「마네킨이 그리워하는 것」(3집, 1963. 1.)은 예쁜 소녀가 되고 싶은 마네킹과 예쁘고 화려한 마네킹이 되고 싶은 소녀의 이야기다. 이 작품은 자신의 좋은 모습보다 상대가 가진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것과 어른들의 시선이 아닌

아이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있다.

동화의 첫 추천을 받은 작품⁸⁰⁾으로, 「하얀 코스모스 꽃잎」(김영자, 3집, 1963, 1.)은 꽃밭에 핀 코스모스가 나비가 되고 싶어한다. 꿈 속에서 나비가 된 하얀 꽃은 들국화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울의 어느 집 응접실에서 꽃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이 나비가 되고자 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잠에서 깨는 내용이다. 이 작품 역시 앞의 「수남이와 수남이」, 「마네킨이 그리워하는 것」과 닮았다. 자아를 찾고,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동문학』지는 2집 심포지엄에서 동화와 소설을 주제로 한다. 당시 강소천은 동화와 소설(여기서 아동소설을 일컬음)의 기준을 소설은 아동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의 추한 면, 부정적인 면도 폭로하고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화는 보다 따뜻하고 보다 아름다운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 주는 것⁸¹⁾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동화나 소설에도 장편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아동관과 아동상의 필요성을 들었다.

어떤 아동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장애를 물리치나 하는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며 영혼의 성장까지를 그리는 좋은 작품들을 써내야겠다.⁸²⁾

80) 이후 김영자는 「달과 가로등」(8집, 1964, 4.)으로 두 번째 추천을 받는다. 이 작품은 각자의 몫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주제이다. 가로등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밤늦게까지 숨바꼭질을 하면서 노는 아이들에게 환한 불빛을 비춰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너무 틀에 박힌 이야기로 새로움, 실험적인 모색도 없다. 『아동문학』지는 역량 있는 신인 발굴 의지를 보이며 창간호부터 차례 앞에 〈작품 공모〉를 소개한다. 동화소설, 동요·동시, 동극, 평론 등으로 하며, 3회에 걸쳐 추천되어야 기성 작가로 대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12집부터는 기존의 3회 추천제가 다소 완화되어 동요·동시는 3회, 동화소설, 동극, 평론은 2회 추천제로 변한다. 심사위원은 처음에 편집위원들로만 구성되었던 것이, 11집부터 윤석중, 이원수가 포함되어 6인 체제로 한다. 하지만 실제 추천제로 등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동시는 추천을 받아 등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동화는 추천도 거의 없었다. 이는 작품 응모자가 많지 않았는지, 아니면 좋은 작품이 많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81) 『아동문학』 2집, 1962, 17쪽.

82) 『아동문학』 2집, 1962, 18쪽.

앞에서 언급한 「수남이와 수남이」를 비롯해 「마네킨이 그리워하는 것」, 「하얀 코스모스 꽃잎」 등은 주인공 인물들이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즉 영혼의 성장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미영의 「금붕어」(9집, 1964. 7.)역시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어항 속의 금붕어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진수가 개구쟁이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다. 진수는 숙제를 안 해서 남아서 하게 된다. 진수는 교실 어항 속에서 금붕어 두 마리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다. 아이들이 금붕어의 지느러미를 흔들고, 눈을 다치게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들던 진수는 창피해 한다. 금붕어를 괴롭히던 아이가 진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답답해하던 때, 선생님이 들어와서 꿈에서 깨어난다. 개구쟁이를 직설적으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면서 큰 효과를 자아낸다.

「골목에 사는 아이들」(백인빈, 3집, 1963. 1.)은 또래 아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심리를 다루었다. 새 동네에 이사 가서 친구를 사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잘 알기 전에 걸모습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보다 자신이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주제다. 어른이 등장하지 않고 아이들만의 세계, 심리를 그린 것이 인상적이다.

「집」(김이석, 4집, 1963. 3.)은 홍수로 집을 잃은 덕선이, 일룡이, 선일이는 한 동네에 산다. 집을 짓고 사는 일룡이, 선일이네와 달리 덕선이네는 집을 짓지 못하고 판자집에 산다. 그런 덕선이네가 집을 짓게 되자 모두가 도와주기로 한다. 가난하게 사는 이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불만과 구김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당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유년동화인 「하얀 배가 된 아파트」(이영희, 6집, 1963. 9.)는 아파트 꼭대기에 달려 있는 풍선이 아이들의 심리에 따라 색깔을 달리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할 때는 파란색, 싫어하는 공부를 할 때는 빨간색으로 변한다. 작중 인물이 실제 등장하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주 짧은 내용으로 아이들의 내면 심리를 잘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유년동화라는 명칭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 작품

외에도 이영희는 한편의 동시같은 이야기, 즉 시적동화 「무지개 나라가 보였읍니다」라는 작품을 신고 있다.

특별한 주제는 없지만, 어린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무조건 강요하기보다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작품으로 「옛말 해 주는 집」(박홍근, 6집, 1963. 9.)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머리 깎기를 싫어하는 아이가 좋아하는 옛이야기를 들으면서 쉽게 머리를 깎는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에서 눈여겨 볼 것은 어린이를 다루는 방식 문제를 들 수 있다.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것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 작품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문학의 주체가 누구인가하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3) 새로움 모색과 난해성

당시는 새로운 소재에 갈급함을 느끼던 시기이다. 공상 소설인 「박쥐굴의 화성인」(서석규, 2집, 1962. 10.)은 사촌간인 성일, 성철은 방학동안 로켓을 만들려고 한다. 어른들의 잔소리 때문에 몰래 숨어서 만든다. 장수바위 밑에서 로켓을 만드는데, 일찍 와서 만들던 성일은 자신들이 만들던 것보다 더 낮게 된 것을 보고 누군가 왔다 간 것을 알고 우연히 쪽지를 발견한다. 화성인이라고 칭하는 인물이 로키트 설계도를 수정, 조언해 주어 이들은 방학 동안 로키트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화성인의 초대로 굴 건너편 길에 있는 굴을 향해 간다. 그곳에서 화성인 다이머스를 통해 화성인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지구 이외의 행성에 대한 관심으로 볼 수 있으며, 좀더 다른 작품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어려운 부분을 구도자인 어른, 즉 화성인을 설정하여 해결을 하게 한다. 이는 다른 동화와 달리 과학이라는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연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당시 현실적이 소재를 취하고 실험적인 측면에서는 눈여겨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난해한 작품으로 「앵무새」(김요섭, 2집, 1962. 10.)는 당시 표현

의 금지를 문제 삼고 있다. 소설을 쓰던 파이프 선생은 소설이 말썽이 되어 집필금지를 당하고 항구로 내려가 앵무새를 키운다. 파이프 선생은 글을 종이에 쓰지 않고 앵무새에게 외우게 한다. 그런데 파이프 선생이 집을 비운 날 낯선 사람들이 와서 앵무새를 훔쳐 간다. 앵무새를 잃은 파이프 선생은 앵무새를 찾은 즉시 항구를 벗어날 생각을 한다. 이 작품은 감추고 있는 세상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 있다. 하지만 작품상의 난해한 내용은 과연 어린 독자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작품이다. 때문에 좋은 주제 임에도 그 난해성으로 인해 조명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신지식의 「은행나무의 이야기」(4집, 1963. 3.)는 인간의 원초적인 안식처 고향과 인간이 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을 그린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를 무척 아꼈고, 더운 여름날이면 은행나무 그늘 아래 모여 이야기도 하고 노인들은 바둑을 두는 등 은행나무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주인공 역시 은행나무 곁을 찾아가곤 하는데, 은행나무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다.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이야기를 비롯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등의 이야기를 듣는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강도, 감옥, 수소폭탄, 노동하는 사람은 무식한 것, 거지는 굶주림, 병자는 죽음 등등 다양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할아버지는 헛된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망각이 가장 무섭다고 한다. 잊어버리는 망각이라는 단어가 가장 무섭다는 것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자는 교훈을 내재한 것이다. 구성 방식도 순차적이지 않고 은행나무가 회상하는 형식을 취한다.

아동문학은 다른 문학과 달리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적 명징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아동문학의 계몽성을 들 수 있다. 문학으로서의 아동문학을 염두에 둔다면 계몽성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린 독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계몽성을 전적으로 도외시하기도 힘들다. 때문에 문제는 계몽성의 장치가 아니라 어떤 계몽성이냐이다. 1960년대 아동문학 잡지에 나타난 작품은 어린이를 위한 문학이라는 인식으로 출발하고 새로움을 강구하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른의 시선으로 훈육하려는 작품과 어린이의 시선으로 세상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혼재하고 있다.

2) 신춘문예와 다양한 작가 배출

우리 문학사에서 신춘문예와 같은 신문사 주최의 현상 공모가 실시된 것은 1923년이다. 동아일보사가 지령 1천호를 기념해서 여러 분야에 걸친 현상공모를 실시했던 것이 신춘문예의 시발점인 것이다. 물론 그 당시의 현상공모는 현재의 신춘문예와 다소 거리가 있었다. 당시의 현상공모가 신인 발굴보다는 사회 계몽에 더 치중했기 때문이다. 계몽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모집 분야도 문학으로 한정되면서 오늘날의 신춘문예처럼 신인 발굴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은 1930년대 이후부터였다. 단편소설·동요·동화·희곡으로 분야가 확장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식민치하의 신춘문예는 1940년도를 마지막으로 중단된다. 일제가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되어 더 이상 신문을 발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방이 되고 뒤이어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시적인 공백 기간이 지속되다가 1954년부터 각 신문사들이 신춘문예를 부활시켜 다시 신인 발굴에 나선다.⁸³⁾

이처럼 1950년대 중반 등단제도가 전폭적으로 부활 시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신문계에 시장 원칙에 입각한 무제한적 경쟁체제가 조성되자, 신문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문학을 매개로 하여 신문과 독자의 긴밀한 관계를 꾀하는데 주력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그 양상은 대체로 독자문예란을 통해 대중의 문학 취향을 수용하고, 문학을 중심으로 한 문화란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며, 장편 연재물 위주에서 벗어나 동화(소년소설), 단편 릴레이, 만화 등 게재 장르를 다변화하여 독자들의 교양적 욕구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문학을 활용하는 형태가 주종을 이룬다. 두 번째 이유는 독서계의 확장에 따른 문학 수요의 증가이다. 당대 독서인구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과거 독서계를 제한했던 요소들, 이를테면 문자 미해독 층의 광범한 분포와 출판계의 토대 허약, 그리고 독서대중들의 열악한 경제력(구매력)이 극복되어 새로운 독자층을 창출하고 확대시키는 결과

83) 강진호, 『문화예술』, 2003, 2월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58~61쪽.

를 낳았으리라 판단된다.⁸⁴⁾ 이에 따라 문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신문계가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신춘문예의 부활과 정착은 6·25 이후 작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던 우리 문단에 역량 있는 신인작가를 공급하는 등 기여한 바가 크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특히 1960년대 새로운 아동문학에의 요청을 제도적으로, 문학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춘문예이다. 즉, 새로운 등용 관문 제도 정비로서, 새로운 경향의 작품 양산으로서 문학으로서의 아동문학을 정립하려 하여 본격 아동문학 시대를 여는 데 일조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중심으로 당대의 문학관을 엿본 후, 신춘문예 당선(가작 포함) 동화를 대상으로 작품이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 6대 중앙지로 한정한다.

아동문학 부문에서 심사위원은 거의 고정되어 있었으며, 그래서인지 당선 작품 경향도 유사하다. 심사위원 중 21번 심사에 참여하여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마해송이다. 1967년 작고하기 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으며, 1967년 『경향신문』 이 동화, 동요 대신 시행한 주부의 생활 수기 심사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마해송은 1960년대 신춘문예 심사위원 중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다. 만약 작고하지 않았더라면 그 횟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해송 다음은 16회 참여한 윤석중이다. 윤석중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심사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해송과 함께한 65년과 66년 두 번을 제외하면 모두 단독 심사였다. 그리고 마해송의 작고 후 그가 참여하던 『동아일보』의 동요, 동시 심사를 이어받는다. 13회 참여한 이원수는 『동아일보』에서 주로 동화 부문 심사를 하였다. 그 외에 김요섭(5회), 강소천(3회), 장수철(2회), 어효선(2회), 최정희(2회), 황영애(2회), 박목월(2회), 박홍근(2회), 조지훈(1회), 전영택(1회), 김영일(1회) 등이 1960년대 신춘문예 아동문학 분야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다.

84)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한국문학연구』 36권,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2009, 367~376쪽.

표1. 1960년대 신춘문에 심사위원 일람(동화/동요·동시부문)⁸⁵⁾

연도 \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1960년	동화, 동요 : 윤석중	동화, 동시 : 마해송	신춘문에 공모 없음	동화 : 이원수	동화 : 이원수	
				동요 : 강소천	동요 : 윤석중	
1961년	동화, 동요 : 윤석중	동화, 동요 : 마해송	동화 : 마해송	동화 : 강소천	동화 공모 없음	
			동요 : 윤석중	동시 : 마해송	동요 : 전영택, 강소천	
1962년	동화, 동요 : 윤석중	심사 위원 찾지 못함	동화 : 마해송	동화 : 이원수	찾지 못함	
			동요 : 윤석중	동시 : 마해송		
1963년	동화, 동요 : 윤석중	동화 : 마해송	동화, 동요 공모 없음	동화 : 김영일	동화, 동요 공모 없음	
		동요 : 강소천		동시 : 마해송		
1964년	동화, 동요 : 윤석중	동화 : 이원수	동화 : 마해송	동화, 동요 공모 없음	동화 : 마해송	
		동요 : 마해송	동시 : 박목월, 조지훈			
1965년	동화 : 마해송, 윤석중	동화 : 이원수	동화 : 마해송	동화 : 마해송, 이원수	동화 : 마해송	1965년 9월 22일 창간
		동요 : 마해송				
1966년	동화 : 마해송, 윤석중	동화 : 이원수	동화 : 마해송	동요·동시 : 박목월 (동화 공모 없음)	동화 : 마해송, 이원수	동화 : 마해송
		동시 : 마해송				
1967년	동화 : 윤석중	동화 : 이원수	동화, 동요 공모 없음	동화 : 최정희, 김요섭	동화 : 어효선	동화 : 이원수
		동시 : 윤석중				
1968년	동화 : 윤석중	동화 : 이원수	동화 : 박홍근, 김요섭	동화 : 최정희, 김요섭	동화 : 어효선, 황영애	동화 : 장수철
		동시 : 윤석중				
1969년	동화 : 윤석중	동화 : 이원수	희곡만 공모	동화 : 김요섭, 이원수	심사 위원 찾지 못함	동화 : 장수철
		동요 : 윤석중				

85) 심사위원 명단은 연장자가 심사총평을 썼으므로 동화, 동요·동시 부문 모두 수록한다.

1960년대 신춘문에 당선 기준 분석은 심사 참여 횟수가 많은 마해송, 윤석중, 이원수, 김요섭의 심사평을 중심으로 살펴기로 한다.

마해송은 “모두가 거의 많이 들던 작품 아니면, 기성 작가들의 작품의 모형과 같은 것이었고 어디 한 군데도 새로운 것이 없다”⁸⁶⁾고 할 정도로 새로움을 강조한다. 가작으로 입선한 「얹는 양」을 어른들의 교훈과 상투적인 태도 등에 문제가 있으며 “주제도 새로운 것이 아니”⁸⁷⁾라고 말하고, 「먼 나라의 눈」은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영뚱한 소재를 섬세한 필치로 엮은 색다른 작품”⁸⁸⁾이라고 평가하는 등 “신춘문예는 좀 서투른 작품이라도 새로운 작품”⁸⁹⁾이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만약 주제 면에서 새롭지 않다면 구성면에서라도 특별함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구성면에서의 특별함 때문에 당선시킨 작품으로 「아기 송아지」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해 “끝이 빛났다”⁹⁰⁾고 평하고 있는데, 그 평가의 이유로 결말 부분의 반전을 들고 있다. 아기 송아지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다른 가족들이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처럼 아기 송아지를 예뻐해 왔다고 묘사되는데, 이런 반전이 이전 작품들에서 갈등이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것과는 다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작품이 틀에 박힌 것, 유형이 있는 소재”⁹¹⁾를 다루고 있으므로 탈락시키고, 「꽃씨」가 “문장이 미흡한 점이 있으나 큰 흠 없이 곱게 다루어있다”⁹²⁾며 당선시킨 것에서는 비록 문장이 미흡할지라도 그 외 측면에서 틀에 박히지 않은 점을 높이 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키가 작은 언니와 키가 자라는 동생의 심리를 다룬 작품인 「비오는 날」은 “앞 뒤의 짜임새가 잘 되었다”⁹³⁾는 점, 아동심리를 잘 다루고 있다는 점을 들어 좋은 작

86) 『동아일보』, 1960. 1. 24.

87) 『경향신문』, 1962. 1. 1.

88) 『동아일보』, 1963. 1. 1.

89) 『동아일보』, 1963. 1. 1.

90) 『동아일보』, 1964. 1. 6.

91) 『서울신문』, 1964. 1. 1.

92) 『서울신문』, 1964. 1. 1.

93) 『동아일보』, 1965. 1. 9.

품이라고 평가한다. 아동의 심리 반영을 당선 이유로 든 작품으로는 「토끼」를 들 수 있다. 다른 작품이 아동심리를 외면한 반면, 이 작품은 그렇지 않은 점에서 “좋은 작품”⁹⁴⁾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해송은 캐릭터를 잘 그려낸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 「화야랑, 서규랑, 왕코 할아버지」에 대해 “주인공의 우정과 그의 언행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왕코 할아버지도 뚜렷이 드러나 있다. 이만큼 작중인물을 살린 아동 소설은 보기 드문 것으로 동화를 쓰려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관념적인 작품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점으로 만해도 반가운 일”⁹⁵⁾이라고 말하면서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캐릭터들의 말과 행동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장점이며, 주제 또한 관념적이지 않으므로 좋은 작품이라는 것이다.

결국 마해송은 새로운 것을 강조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주제든, 구성이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 작품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의 심리에 대해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이나 작중 인물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 역시 새로움에 대한 강조이다. 이전 시기의 문학과 다른 새로움, 이를테면 실제성과 구체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윤석중 역시 실제성과 구체성을 획득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남수와 닭」에서 “글이 순하고 이야기에 무리가 없고, 남수를 통하여 어린이 심리를 자연스럽게 묘사하는데 성공”⁹⁶⁾한 점을, 「키다리 풍선 장수 아저씨」에서 “문장은 좋다고 할 수 없으나, 우선 재미있다. 키다리 아저씨와 털보 아저씨의 수작은 웃음을 자아내고, 키다리 아저씨의 속사정은 눈물을 자아”⁹⁷⁾낸다는 점을 당선 이유로 들고 있는 데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의 심리를 자연스럽게 묘사했다는 것, 키다리 아저씨와 털보 아저씨라는 작중 인물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수가 선정한 작품들이 대개가 리얼리즘 계열이라는 것

94) 『경향신문』, 1966. 1. 4.

95) 『중앙일보』, 1966. 1. 6.

96) 『조선일보』, 1961. 1. 1.

97) 『조선일보』, 1965. 1. 5.

도 그가 실제성과 구체성을 심사 기준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다른 작가가 주제만을 심사 대상으로 삼는 반면 이원수는 문학적 요소 전체를 고려하는 듯하다. 「들국화」를 평가하면서 “줄거리를 끌고 나간 형식이라든지 작중인물들의 대화라든지 대체로 무리 없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죽은 언니 생각과 오빠의 병과 그러한 우울스런 환경에서 오빠의 건강에 마음 쓰는 소녀의 심정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어서 좋았다”⁹⁸⁾고 말하는 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작품의 줄거리, 작중인물의 대화, 심리 묘사, 주제 등 작품의 요소 전체를 심사 대상으로 삼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화」에 대한 “구성과 소재가 무난하고 허술한 데가 없고, 주인공 덕이의 심리묘사도 좋고 해결로 끌고 가는 솜씨도 좋다”⁹⁹⁾는 평가도 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원수도 실제성과 구체성을 고려한 심사평을 말하고 있다. 「당나귀」에 대해 “리얼한 현실묘사 휴머니티를 가졌을 뿐 아니라 어휘의 적절한 사용 무리 없는 교육성 등이 작품의 조화된 짜임새를 보여 주었”¹⁰⁰⁾다고 평가하는 데서 그것이 드러난다. 또한 이원수는 아동의 세계와 밀접한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한다. 「밭이 큰 아이」의 작가에게 “좀더 현대 우리 아동 세계의 절실한 문제를 다루었”으면 한다고 말하는 심사평이 그에 속하는데, 아동 세계에 대한 밀접한 접근이란 달리 표현해 아동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실제성과 구체성 획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핀 심사평과 공통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요섭은 작중 인물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을 중시하는 듯하다. 「털사쓰」에서 형상화된 주인공이 “가난이 때처럼 누추하게 뿔이 있지 않다”¹⁰¹⁾고 평한 것, 「골목 대장 혁이」의 “주인공의 페이스스가 무너지고 회화의 전개가 경쾌”¹⁰²⁾고 말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눈 오는 밤의 심부름」에 대해 “다른 작품에서는 찾

98) 『경향신문』, 1965. 1. 4.

99) 『중앙일보』, 1967. 1. 12.

100) 『한국일보』, 1965. 1. 14.

101) 『한국일보』, 1967. 1. 10.

102) 『경향신문』, 1968. 1. 4.

아볼 수 없는 섬세하고 날카로운 감각의 묘사력이 문장 속에서 반짝이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나진 어두운 국면을 소재로 다루었으나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자세로 이 작품을 이끌고 나간 작자의 침착성이 믿음직했다”¹⁰³⁾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김요섭도 틀에 박힌 주제나 인물보다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살핀 심사평들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한 마디로 새로움에 대한 강조이다. 종전의 작품들이 지녔던 틀을 벗어나는 것, 이를테면 어린이의 현실을 나타내고, 어린이의 심리를 파헤치고, 작중 인물들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식으로 새로운 아동문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아동문학계가 원하던 것이 이처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문학상이었기 때문인지, 실제 신춘문예 당선작들은 보다 밀접하게 어린이에게 접근하여 어린이의 일상을 실감나게 그려내는 작품들, 어린이의 어린이다운 심리를 파헤치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103) 『한국일보』, 1969. 1. 5.

표2. 1960년대 신춘문에 당선작 일람(동화부문)

연도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1960년		「낙엽과 바람」(당선, 조운), 「홍시를 지키는 아이」(가작, 신탄)	「돌이와 누나」(당선, 김용성)	신춘문에 공모 없음	「작은 씨앗의 꿈」(당선, 최숙경)	당선작 없음	
1961년		「남수와 닭」(당선, 오문조), 「새로운 깡깡이」(가작, 윤택기)	당선작 없음	당선작 없음	「인형이 가져온 편지」(당선, 이준연)	동화 공모 없음	
1962년		당선작 없음, 「강마을」(가작, 이재실)	당선작 없음, 「꽃공」(가작, 허나미), 「엄마 돈 누나 돈」(가작, 이희성)	「않는 양」(가작, 노경자)	「학처럼」(당선, 김영순), 「슬픈 메아리」(가작, 성기문)	찾지 못함	
1963년		당선작 없음	「먼 나라의 눈」(당선, 이희성), 「수현이와 옥진이」(가작)	동화, 동요 공모 없음	「철이와 호랑이」(당선, 최효섭), 「점 있는 아이」(가작)	동화, 동요 공모 없음	
1964년		「밤비」(당선, 이현주)	「아기송아지」(당선, 남미영)	「바람을 그리는 아이」(당선, 유여춘)	동화, 동요 공모 없음	「꽃씨」(당선, 김종한)	
1965년		「키다리 풍선 장수 아저씨」(당선, 유재용)	「비오는 날」(당선, 조현례)	「들국화」(당선, 권용철)	「당나귀」(당선, 이관)	「분이와 들국화」(당선, 김한주)	1965년 9월 22일 창간
1966년		「선생님을 찾아온 아이들」(당선, 손춘익)	「철이와 아버지」(당선, 오탁번)	「토끼」(당선, 이영호), 「엄마와 선생님」(가작, 김영자)	동화 공모 없음	「영이의 꿈」(당선, 조대현)	「화아랑, 서규랑, 왕코알아버지랑」(당선, 김민부)
1967년		「손전등」(당선, 유시도)	「발이 큰 아이」(당선, 이덕자)	동화, 동요 공모 없음	「털사쓰」(당선, 고계영)	「옹이와 염소」(당선, 강향림)	「운동화」(당선, 김일환), 「따뜻한 손」(가작, 이상금)
1968년		「성 너머 아이」(당선, 장승남)	「개구리」(당선, 유정옥)	「골목대장 혁이」(당선, 김석호)	「달마산의 아이들」(당선, 임신행)	「이른 봄에 온 매미」(당선, 권태문)	「아기중」(당선, 오세발), 「대장과 아이들」(가작, 한상연)
1969년		「기차」(당선, 임영금)	「네발달린 우산」(당선, 이효성)	희곡만 공모	「눈 오는 밤의 심부름」(당선, 김미영)	「도토리는 서서 잔다」(당선, 최영애)	「리베탈군의 감기」(당선, 장부일)

(1) 일상을 통한 세계 인식과 어린이의 세계

「낙엽과 바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에 대한 이야기로 장애를 가진 가족의 애환과 가족애를 나타내고 있다. 「돌이와 누나」는 가난한 남매의 애틋한 정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이며, 「비오는 날」은 키가 작은 언니와 언니보다 키가 큰 동생이 자매 간의 우애를 다지는 이야기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아이들의 일상을 다루면서도 가족애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작품들은 아이들의 일상 세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남수와 닭」은 어른의 세계와 아이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할머니 댁에서 얻어 온 남수의 닭을 아버지가 직장 상사의 아들에게 보약으로 줘버려 남수가 슬퍼하는 내용이다. 자신이 아끼는 것에 대한 집착과 애정, 즉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심리가 잘 드러나 있고, 남수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 어른들의 세계와 어린이들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엄마돈, 누나 돈」은 아이들의 돈에 대한 욕망을 다룬 것이다. 주인공이 처음으로 큰돈을 가지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사고 싶었던 것을 하는 어린이의 심리를 다룬 작품이다. 돈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이야기로 「영이의 꿈」을 들 수 있다. 엄마 돈을 몰래 꺼내 쓰던 영이가 꿈 속에서 빵집 할머니와 자신이 아끼는 물건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엄마에게 용서를 비는 내용이다. 이 작품 역시 돈을 쓰고 싶은 아이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가 골목대장을 하면서 씩씩하게 사는 모습을 그린 작품도 눈에 띈다. 「골목대장 혁이」는 어머니가 떡장사를 하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항상 골목대장을 하는 아이의 이야기로, 전쟁을 겪고 난 후, 일상에서 전쟁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15세 소년이 작가로 밝혀지면서 눈길을 끈다.

「달마산의 아이들」은 달마산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달마산을 마음 속에 두고 사는 어른의 이야기다. 달마산에서 즐겁게 놀던 아이들이 심심해서 산불놀이를 하

가 큰 불을 내고 학교로 도망을 가는데, 아이들을 찾으러 온 덕이 아버지가 동네 어른들도 어릴 때 산불을 내서 산에서 잤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작품 중간 중간에 노래를 삽입하고 산골에 사는 아이들의 놀이와 일상의 모습을 그리면서 재미와 생각거리를 동시에 담은 작품이다.

아동문학의 주제는 문학의 본질에 바탕을 두면서 어린이 정서와 지적 발달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포한다. 어린 이를 독자로 상정하기에 일반 문학처럼 인생의 추한 면까지 사실적으로 제시되는 문학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문학이 특수문학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삶의 의미와 가치관 형성을 위한 작품

「토끼」는 밤마다 토끼 꿈을 꾸다. 성아는 산에서 잡은 새끼 토끼를 집에 가지고 와서 산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잘 키워 보려고 한다. 하지만 새끼 토끼는 먹지도 잘 먹지 않고 산에서처럼 기운도 팔팔하지 않다. 보다 못한 성아가 다시 한 마리를 더 잡으러 갔다가 새끼 토끼를 보고 좋아하는 어마 토끼를 보면서 새끼 토끼를 놓아준다. 이 작품은 꿈→현실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작품 내에서 특별한 갈등이 없으나 소유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소유하는 것이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다.

「옹이와 염소」는 아무도 키울 사람이 없어서 옹이는 염소를 키워야 한다. 옹이는 못 생긴 염소가 귀찮고 싫다. 하지만 항상 염소를 데리고 다녀야 하는 옹이는 비가 많이 오자 밖에 매어 둔 염소가 생각나 염소를 찾으러 간다. 그러나 염소가 있어야 할 장소에 염소는 없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옹이는 집에서 염소를 보고 반가워한다. 아무도 자신과 친구해 주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염소와의 관계로 설정하여 거울 효과를 통해서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이다.

「화야랑, 서규랑, 왕코 할아버지」는 화야가 서규에게 판 구슬을 들고 서규를 찾아가지만, 이사 가고 없다. 동네에는 화야랑 같이 놀만한 아이가 없어 외로워하는데

서규의 엽서를 받고 서규와 있었던 일을 떠올린다. 떠난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친구와의 우정이야기다.

「들국화」에서 들국화는 메마른 황토흙인데다 다른 꽃들이 뺨뺨이 들어서는 곳에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 하지만 자신의 환경을 비판하는 망초와 달리 들국화는 가뭄을 이겨내고 멋지게 자라 양옥집의 부녀의 사랑을 받는다. 즉, 신세 한탄보다는 스스로 열심히 사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학처럼」은 비록 가난한 환경이지만 희망을 버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학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계몽의식을 담고 있다.

「운동화」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자는 교훈과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언젠가 자기에게도 그런 손해가 온다는 인과응보 정신을 담고 있다.

(3) 풍속을 소재로 다룬 작품

「키다리 풍선 장수 아저씨」는 실종된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아버지, 즉 부정(父情)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실종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1960년대 사회를 볼 수 있다.

「먼 나라의 눈」의 이희성은 「엄마 돈, 누나돈」으로 이미 전 해에 가작으로 입선하였던 이력을 가진 작가로, 같은 신문사에 재도전하여 당선한다. 남아선호 사상을 풍자하며 유머로 푼 이 작품은, 남자 아이를 원하는 사회의 노골적인 반영묘사로 외할머니의 비속어, 미경이 자매를 대하는 말투 등으로 당대의 남아선호 사상을 꼬집고 있다. 이러한 주제 반영에 당시 당선평은 “신춘문예는 좀 서투른 작품이라도 새로운 작품”이어야 한다는 신춘문예 취지에 부합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즉, 많은 작품들이 어린이들의 세계를 조망하는데 비해 이 작품은 남아선호 사상을 부르짖는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전통관과 그에 희생당하는 여자 아이의 심리 반영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작품이다.

「눈 오는 밤의 심부름」은 외제품을 사고파는 부정거래를 소재로 하여 당대 사회의 어두운 면을 거리의 화려한 모습과 대비하여 사회의 한 이면을 드러내고 있

다. 특히 외제품, 미군, 양공주 등을 묘사하고 있는 것도 이전의 신춘문예에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눈에 띄는 작품이다. 그리고 작품에서 아이들이 유혹당하는 극장, 문방구의 화려한 문구용품 등의 설정은 결국 어른들의 세계 유혹과 다르지 않다. 엄마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외제품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어른들이 자신의 아이는 물론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도 인상적이다. 결국 어른의 모습이 아이에게 투영되는 것이다.

「리베랄 군의 감기」는 사람과 똑같은 인조 인간 리베랄과 형제가 된 복돌이가 리베랄을 시기하여 벌어지는 내용이다. 형제 없는 아이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인조인간을 설정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주제별로 분류를 한 결과 1960년대 신춘문예 동화는 아이들의 일상을 소재로 하여 가족간의 관계와 아이들이 내재하고 있는 욕망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풍속적인 면 역시 주제로 하였으며, 어린이 독자를 염두에 두어서인지 삶의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주제가 다수를 이루었다. 특히 아이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일들로, 형제간의 갈등을 다룬 것은 당시 많은 부분이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보여준, 풍속적인 주제는 아이들 역시 사회의 일원이며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가두고 감추던 이전의 아동문학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의 인격형성을 위해서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려는 주제 역시 다른 어떤 것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1960년대 신춘문예 심사평과 당선작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앞서 살핀 것처럼, 신춘문예는 1960년대 아동문학계 내의 제도적 개혁인 동시에, 문학적 방향 지정이었다. 즉, 1960년대 아동문학의 새로움에 대한 요청을 제도적 측면에서 수용했으며, 그것을 반영한 작품을 산출한 것이 바로 신춘문예인 것이다.

Ⅲ. 1960년대 아동소설 연구

앞서 살핀 II장이 1960년대 아동문학의 형성 배경을 밝힌 것이었다면, 이번 장은 개별 작가들의 작품 분석을 통해 1960년대 아동문학의 본격 아동문학으로의 정립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고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1960년대까지 아동문학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개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종전의 아동문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선 밝혀야 그것과는 다른 1960년대 아동문학의 새로운 모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대비해 보는 일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아동문학의 태동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는 1920년대이다. 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아동 잡지가 다수 등장하는 등 아동문학이 사회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아동문학의 사회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설명¹⁰⁴⁾할 수 있는 까닭이다. 아동문학계가 『소년』과 『어린이』지의 발행인인 최남선과 방정환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가 신인 아동문학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인적 구성이 두터워진 것 역시 1920년대 중반이다. 이 시기를 동요 황금시대라 일컬을 만큼 윤석중, 이원수, 한정동, 최순애, 윤복진, 서덕출 등 다수의 동요 작가들이 아동문학계로 진출하였다. 동화의 경우에는 이미 활동 중이던 방정환과 마해송이 창작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당대의 요구 답론인 민족주의와 계몽주의 의식 파급에 기여 하는 등 1920년대 아동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아동문학은 다채로운 색깔을 지니게 된다. 방정환, 연성흠, 고한승, 이구조, 박영종, 김영일 등의 동심주의를 나타내는 작품, 마해송, 이원수, 노양근 등의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시대 비판과 저항 정신을 담아내는 작품, 송완순, 박아지 등의 계급주의적이면서 투쟁적인 이야기를 하는 작품 등 다양한 내용

104) 이상현, 앞의 책, 261쪽.

의 작품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카프가 문학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자 아동문학 역시 그 영향 아래 계급주의 문학운동으로 점차 변모하였고, 이에 따라 계급문학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당시 카프 작가들의 아동문학은 아동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삶을 억압하는 대상에 주력하였다. 예컨대, 이주홍은 「청어 뺨다귀」와 「잉어와 윤침지」에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통해 궁핍한 삶을 묘사하는 식으로 식민 치하 어린이들의 삶의 실상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 문단의 중심에서 있었던 프로 아동문학은 아동문학의 본질보다는 현실 비판이나 고발 자체에 머물면서 가난과 비극성 묘파, 계층 간의 투쟁과 갈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를 지닌다¹⁰⁵⁾는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어른의 세계와 아동의 세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세계에 어른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면모가 있다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아동의 세계에 밀착해서 그 특수한 면모를 그려내는 것이 일반 문학과는 다른 아동문학의 본질이라면, 이 시기 아동문학은 그 보다는 어른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명하는 데 더 치우쳐 있었던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가난과 비극, 계층 간의 투쟁과 갈등 등 어른 세계의 일을 아동이 겪어나가는 내용을 형상화함으로써 어른 세계의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을 식민 치하 현실을 이루는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했다는 점, 삶을 억압하는 대상에 천착함으로써 식민 치하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리얼리즘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이 시기 아동문학의 성과이다.

1930년대 중반부터 아동문학은 새로운 변모를 띤다. 이른바 경향주의 문학 사조가 퇴조하면서 아동문학 본질적 측면, 이를테면 아동 세계의 특수한 면모라 할 만한 동심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현덕의 경우가 그러한데, 유년기 아동의 실생활을 소재로 삼고 있는 「고무신」은 눈여겨 볼만한 작품이다. 당대 프로 아

105) 오길주, 「한국 동화 문학의 현실 인식 연구」, 카톨릭대학교 박사논문, 2004.

동문학의 일반적 특성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프로 아동문학에서 보기 힘든 일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프로 아동문학과의 공통점이라면, 아기와 어머니 사이의 깊은 신뢰감과 친연성, 전체적으로 밝고 건강한 분위기를 이끈 긍정의 세계 등¹⁰⁶⁾은 프로 아동문학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작품은 서민 아동이 놓인 현실을 정직하게 반영하되 독자인 아동의 특성에 유념해서 작품의 분위기를 이끌어 냈고 나아가 아동의 존재를 민족의 앞날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평가¹⁰⁷⁾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작품의 경향과 그에 대한 평가에 비추어 볼 때, 이 작품을 포함한 1930년대 후반 아동문학은 리얼리즘이 어른 세계의 현실 고발과 비판 자체에 머무르는 한계에서 벗어나 아동을 둘러싼 현실을 그 대상으로 삼게 되었고, 그 변모로 인해 실생활 속 아동의 심리나 동심에 대한 묘사가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등 아동 세계에 대한 탐구가 가능해지면서 아동문학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접근을 이루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를 읽어내는 리얼리즘을 유지하면서도 아동문학의 본질에 보다 근접하려는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과 이후 좌우익의 반목,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을 겪어나가면서 아동문학계는 1930년대 후반 보여주었던 양상과 같은 아동문학의 본질에의 접근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된다. 1950년대 아동문학은 오히려 향락 풍조에 빠진 대중과 영합하면서 순정소설, 명랑 소설, 모험 소설, 탐정 소설을 대거 양산하는 등 아동문학의 통속화와 대중화를 초래한다. 1950년대 아동문학이 안이한 히로이즘과 저속한 센터멘탈리즘의 세계에서 배회하고 있는 실정¹⁰⁸⁾이었다는 평가가 이를 입증한다.

1950년대 문학과 6·25 전쟁은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1950년대는 인위적인 재난인 전쟁의 시대인 동시에 전쟁 체험과 전후 분위기가 편재화된 수난의 시대였던 것이다. 문학이 그 시대의 갈등과 고뇌를 반영한다는 보편적인 현상을 굳이 감

106) 원종찬, 『한국 근대 문학의 재조명』, 소명출판, 2005, 151쪽.

107) 원종찬, 위의 책, 152쪽.

108) 이재철, 앞의 책, 36쪽.

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1950년대 문학의 제반 내용과 구조는 6·25의 체험과 영향을 배제하고서는 그 성격을 규명할 수 없을 만큼 전쟁의 자장 안에 위치하고 있다. 전쟁의 여파가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1950년대 문학은 그 체험과 영향에 매몰되어 절망과 허무의 늪에서 허우적댔다. 요컨대 어떤 요인이 삶의 비극을 초래했는지 성찰하지 못하고, 오로지 삶의 비극에 대해 허무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인 어조로 기록해나간 것이 1950년대 문학인 것이다. 아동문학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살핀 통속화와 대중화에 덧붙여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현실 인식, 서술기법이나 주제의 획일화 등이 당대 문학을 지배하게 된다.

1950년대 아동문학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타 작품들과는 차별화된 면모를 보이는 작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실을 풍자적인 기법으로 그린 마해송과 리얼리즘 기법으로 재현한 이원수, 아동문학을 교육성과 연결한 강소천, 현실과 환상의 조화를 시도한 김요섭 등이 그들이다. 이 기성 작가들과 함께 1950년대 후반 등장한 이영희, 윤사섭, 황영애 등의 신진 작가들도 당시 아동문학의 병폐와는 거리가 있는 작품들을 창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영희의 『책이 산으로 된 이야기』는 1950년대 후반 아동문학계에 새로운 충격을 던져 주었다. 종전의 줄거리 중심의 창작 기법을 거부하고 이국적인 분위기의 환상을 위주로 한 상징적인 기법으로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영희의 뒤를 이어 주목받는 여류 작가로 등장한 황영애는 순수, 사랑, 생명력을 주제로 어린이의 동심과 그 세계를 발랄하고 흥미 있게 그려냄으로써 통속물 시대로 지칭되던 1950년대를 마감해 낸¹⁰⁹⁾ 작가로 평가된다. 윤사섭은 동심천사주의를 바탕으로 어린이의 실생활에서의 심리를 잘 묘사해낸 작가이다. 요컨대 이들은 아동 세계에 밀착하여 아동의 현실과 심리를 그려내거나 새로운 창작 기법을 시도함으로써 당대 주류의 풍조에서 벗어나는 차이점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50년대 아동문학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 문학 작가들이 대거 아동소설 창작에

109) 선안나, 「황영애 동화 구조 분석」, 『논집』 2, 494~506쪽.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전영택, 김내성, 방기환, 조남사, 박경리, 정비석, 조흔파, 박계주, 최정희, 최인옥, 김말봉¹¹⁰⁾ 등이 그러한데, 이들의 참여가 전후의 경제적 궁핍에 따른 궁여지책의 일환이었으며, 때문에 그 창작에 아동문학의 특징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창작과 참여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소설가들이 아동 소설을 창작함으로써 당대 어린이의 현실이 많은 부분 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는 점은 그 의의로 손꼽을 수 있다. 동족상잔이라는 미증유의 참상을 겪은 시기에 어린이 삶의 직접적 형상화마저 없었다면 전후 한국 아동 소설사는 공백상태로 남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¹¹¹⁾ 그리고 이들의 사실주의가 1960년대 아동소설의 새로운 아동문학으로의 변모에 일정 기여를 했다는 점도 그 의의 중 하나라 말할 수 있다.

이처럼 1950년대 아동문학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현실 인식, 기법과 주제의 획일화 등 1950년대 문학의 특성을 공유하는 가운데 통속화와 대중화라는 폐단이 덧붙여지면서 암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지배적인 양상에서 벗어난 경향이 일부 기성 작가들과 50년대 중 후반에 등장한 신진 작가들 사이에서 명맥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 경향은 1960년대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아동문학을 정립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본격 아동문학 시기를 여는 밑거름이 된다. 1960년대 들어 이전 시대와 같은 여러 병폐를 안고 있는 아동문학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또한 1960년대는 부모들이 아동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교육열이 가중되고, 그것이 서양 명작물의 무분별한 번역 출간으로 이어지면서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고유성을 경시하고 서구 중심의 미적 기준과 가치관을 선호하는 현상을 초래하는 등 한국 아동문학의 기틀이 위협당하던 시기였다. 종전의 병폐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아동문학계 내의 자각에 서구 문학에게 자리를 내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겹쳐지면서 아동문학은 이전의 풍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아동문학의 길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보이게 된다. 그

110) 이상현, 앞의 책, 302쪽.

111) 선안나, 앞의 논문, 139쪽.

리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등단 관문 제도가 정비되는데, 그런 제도를 통해 등장한 신인들이 과거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아동문학으로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앞서 살핀 바이다.

이전 시기 문학과 결별하고 새로운 아동문학을 확립하기 위한 길은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과거 체험에 매몰되었던 현실 인식에서의 탈피를 기반으로 주제 의식을 강화하는 것, 기존의 평면적 산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창작 기법을 모색하는 것, 아동을 아동문학의 주체로 상정하여 아동 세계에 밀착하는 것이 바로 그 구체적 양상들이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문학으로서의 아동문학에 접근하여 아동문학의 본질적 측면을 탐색하는 것이 1960년대 아동문학이 정립하려 했던 새로운 아동문학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구체적 양상을 이원수, 김요섭, 이영호의 작품을 통해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들이 각각 식민지 시기, 해방기 그리고 1960년대를 대표하면서도 1960년대 새로운 아동문학의 태동을 이끈 작가들이라는 점도 밝혀둔다. 현실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주제 의식 강화 양상에서 이원수의 작품을 살피는 이유는 그가 현실에 대한 천착에 주력하는 리얼리즘 계열의 작가이고, 식민지 시대부터 활동을 해온 대표적인 기성 작가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전 시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행해진 현실 인식과 주제 의식의 변모 규명이 이 시기에 등단한 작가의 그것을 밝히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으리라 보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전 시기 전쟁 체험과 영향에 매몰된 경향과의 차이점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 전쟁을 다루고 있되 그 시각이 남다른 『메아리 소년』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앞서 연구사에서 살핀 바와 같이, 김요섭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대부분이 빠짐없이 거론하고 있는 환상성 이야말로 실험적인 창작 기법의 일환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창작 기법 모색 양상에서는 현실과 환상을 접목시켜 환상동화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1960년대 실험적인 작품으로 거론되곤 하는 김요섭의 『날아다니는 코끼리』를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른의 시선에서 어린이를 훈육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어린이의 시선에서 그들의 세계에 밀착한 양상에서는 이영호의 작품들을 살필 것이다. 여타 작가와 달리 이영호는 주변부 어린이들의 세계를 조망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일한 경향 내에서도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전쟁 상처의 극복과 평화로운 일상 - 이원수

50년대 문학의 6·25 인식은 개별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일방적인 수난사라는 범주로 수렴될 것이다. 6·25 전쟁의 독특한 성격과 경과가 그런 해석을 부추기기도 했겠지만, 전쟁의 현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직접 경험한 50년대 작가에게 전쟁에서 한 발 물러나 그것을 달리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지도 모른다. 피해자 입장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다음 세대의 몫이었다. 그런 점에서 4·19와 더불어 시작된 60년대의 문학은 의의를 획득한다. 6·25 전쟁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시간적 거리 확보는 1960년대¹¹²⁾부터였다. 그에 따라 작가들은 6·25 동란의 중심에서 조금 비껴나 그것을 다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관찰하고 인식할 수 있었다.¹¹³⁾ 전쟁으로부터 시간적 거리를 획득하자, 삶의 비극을 단순하게 기록하던 양상에서 벗어나 어떤 요인들이 삶의 비극을 초래했는가를 살펴보는 양상으로 나아감으로써 현실을 이루고 있는 제반 여건들에 대한 성찰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작품의 주제 의식도 변화를 겪었던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데올로기 문제이다. 1960년대 문학은 정치, 사회, 경제적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이러한 경향은 전후 문학의 이데올로기 접근

112) 김교봉, 「전후소설의 현대적 성격」, 『국어국문학연구』 25집, 국어국문학회, 1997, 527쪽.

113) 김병익,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9, 20쪽.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6·25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일방적인 수난이라 생각했으며, 정권들이 이런 생각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반공주의를 내세웠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전후 문학도 이에 침윤되어 반공주의 일색의 경향을 나타냈으며, 전쟁과 분단의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문제에는 무관심했다. 그러던 중 1960년대에 들어서 전쟁으로부터의 거리가 확보되고, 삶의 비극을 초래한 제반 여건들을 성찰하는 현실 인식이 가능해지자, 그 원인 중 하나인 이데올로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¹¹⁴⁾한 것이다.

전후 문학의 특성이라 할만한 것들, 이를테면 인간성 상실, 현실패배의식, 열등감, 허무, 염세주의, 도덕성의 타락 등은 아동문학에까지 스며들어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¹¹⁵⁾ 아동문학 작품들은 훈계와 교육 일변도의 경향을 유지하면서 동란의 비극적인 모습을 회의적으로 나타내고, 동란 이후 참담한 시대상을 안이한 현실도피적 측면에서 묘사하였으며, 반공이념에 경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원수는 여타 작가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6·25를 작품화하였다. 6·25 전쟁을 소재로 삼고 있으면서도 전쟁이 남긴 상흔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현실로부터 한 발 물러난 객관적 인식을 획득한 것이다. 그에 따라 전쟁과 그 이후의 삶이라는 현실을 이루는 제반 여건들에 대한 성찰이 가능해지면서, 이데올로기 문제라는 종전의 작품들과는 다른 새로운 주제 의식도 나타내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원수에게 6·25 전쟁이라든지 4·19 혁명에 대해서 사상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문학이라는 형식을 빌려 신랄한 비평을 가하는¹¹⁶⁾ 작가라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체험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였느냐는 오로지 작가 개인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개인적 체험을 형상화하는

114) 권오현, 「1960년대 소설의 현실변형 방법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논문, 1997, 53쪽.

115) 최용, 「분단시대의 아동문학」, 『아동문학평론』 44호, 아동문학평론사, 1987, 가을, 195쪽.

116) 이균상, 앞의 논문, 235쪽.

과정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느냐를 결정하는 것 역시 작가의 개인적 문제이다. 역사가 주어지는 순간, 그 체험을 형상화하기 위해 선택하고 배제하는 데는 어디까지나 작가의 주관적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뚜렷한 주관적 의식을 갖고 역사와 현실, 삶을 투시하여 그것을 작품에 나타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진다. 바꿔 말해, 작가의 역사와 현실, 삶에 대한 투시 방법, 즉 그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작품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원수의 『메아리 소년』에 나타나는 역사와 현실, 삶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 그에 따라 가능해진 이데올로기 문제라는 주제 의식을 살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1) 전쟁으로 인한 가정 해체

전쟁은 분열과 증오, 살육과 고통, 죽음과 굶주림을 야기했다. 덧붙여 가족과의 생이별, 고달픈 피난살이 등이 담겨 있었던 것이 바로 전쟁이다. 여기에 전쟁 이후 온갖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했다는 것, 비극을 초래한 책임을 누구에게 추궁할 수도 없다는 것, 그 참혹한 결과만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되어 전쟁의 상흔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전쟁의 상흔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갈아먹고 있다¹¹⁷⁾는 것을 이원수는 『메아리 소년』¹¹⁸⁾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쟁이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야기했는지를 쫓아 그 여파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 형상화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겪은 일방적인 수난을 기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작품이 형상화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겪는 인물들은 전쟁의 체험에 매몰되어 아군과 적군을 나누는 식으로 반공주의를 표방하던 전후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는 다르다. 이 작품에서는

117) 김영화, 『분단 상황과 문학』, 국학자료원, 1992, 72쪽.

118) 『메아리 소년』은 『카톨릭 소년』에 1964년 7월호부터 1965년 12월호까지 연재된 작품이다. 본고는 1968년 새벗 문고에서 발행한 단행본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이하 쪽수만을 명기하기로 한다. 띄어쓰기와 맞춤법은 원문 그대로 따른다.

전쟁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일 수 있는, 바꿔 말해 전쟁으로 인한 모든 희생양들을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다. 전쟁 이후 삶의 모습의 변화를 통해 전쟁이 어떤 여파를 미쳤는지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전쟁의 모든 희생양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전쟁에 대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본 현실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쟁 이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하여 전쟁이 미친 여파를 탐색하는 일이 가능해질 만큼, 일방적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모든 전쟁의 희생양을 대상으로 삼을 만큼 전쟁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 현실에 대한 성찰을 감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메아리 소년』은 새로운 시각의 현실 인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전쟁이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야기했는지, 즉 전쟁 이전과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 그 양상부터 살펴보자. 『메아리 소년』에서 이야기의 시작점은 가을이다. 온갖 곡식이 무르익은 풍요로운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은 전쟁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것, 그리고 전쟁의 폐허가 어느 정도 복구되어 풍성한 수확물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데, 주인공 민이의 가족이 전쟁 이전과 이후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틈만 있으면 꽃밭을 가꾸시며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시고…… 그런 어머니 품에서 자란 민이었다. 아버지가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그 동안의 고생과 병이 더해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그 후로 새어머니가 오시고, 그 후로부터 민이의 집안은 아주 달라졌다.(32쪽)

전쟁 이전 민이는 회사원 아버지, 꽃밭을 가꾸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어머니 아래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가 군대에 끌려갔으며, 어머니는 그 빈자리를 메우느라 고생을 하다가 결국 병을 얻게 된다. 전쟁 이후 군에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지만, 그 동안 집안을 건사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새어머니가 들어와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다. 또한 새어머니가 술집을 운영하게 되자 술에 취한 손님들이 일으키는 소동 때문에 집에서는 책을 펼칠 수조차 없게 된 민이는 집밖으로 떠돌게 된다. 집밖에서도 술집 아이라는 것으로 인해 놀림을 받는 등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된 민이는 결국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민이가 있는 건넌방에 손님이 들지 않아도 민이는 거기서 책을 펼칠 수는 없었다. 마루 건넌방에서 술 취한 손님들이 떠드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그보다 민이에게 가장 싫은 것은 상스러운 이야기와 주정으로 싸우는 소리였다. (...) 간혹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노는 손님도 있긴 했다. 그러나 대개가 싫은 소리, 싸움, 노래, 그런 소동을 하는 손님이었다. 그래 민이는 앉을 곳이 없고, 공부할 자리가 없었다. (...) 그래 생각해 낸 게 이 검정 바위에 와서 책을 읽거나 앉아서 별을 찍거나 하는 일이었다.(14~15쪽)

작가는 이처럼 전쟁 이후 확연히 달라진 민이네 가정의 외현과 민이의 일상생활을 통해 전쟁이 자아내는 비극을 묘사하고 있다. 전쟁은 평범하고 평온했던 가정의 외현을 일순간에 변모시켰을 뿐 아니라 민이의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지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민이네 가정을 더욱 뒤흔든다.

“나 줌! 나 줌 숨겨 주!” 하고 허겁지겁 달려든 사람은 아버지였다, 극심한 두려움에 떠는 듯한 소리로 어머니 곁으로 달려오는 아버지를 바라보자, 민이와 어머니는 자지러질 듯이 놀랐다.(24쪽)

어느 순간부터 달라진 아버지의 행동에 민이와 새어머니는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이 반복되자, 참지 못한 새어머니가 가출을 하게 된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은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새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림으로써 걸모습이나마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던 민이네 가정이 파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주인공 민이가 전쟁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이는 시간상 전쟁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어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인물이다. 이런 민이를 둘러싼 가족이 해체되고, 그의 일상 생활이 고립되어 가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전쟁의 폐해가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 뿐 아니라 이후의 세대에게도 되물림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상흔은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쟁의 상처는 보다 쉽게 극복될 수 있다. 전쟁이 남긴 후유증이 극복하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작용하는 데는 민이가 겪게 된 가족의 해체와 일상 생활의 변화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일 것이다. 이 작품은 전쟁과 무관한 어린 소년의 가족과 일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전쟁의 참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참혹성은 소년의 눈에 의해 증언된다. 문제적 현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소년이다. 요컨대, 어른의 시선으로 어른 세계의 일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시선으로 소년 세계의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수는 소년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현실 상황을 말하고 소년의 시각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비판받아야 할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을 권위적인 서술자의 목소리를 빌리지 않고, 소설 내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¹¹⁹⁾ 어린이의 세계에 밀착하여 어린이의 생활과 심리를 그려내려는 의도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다. 즉, 현실의 부정적 모습을 드러내되 그것이 어린이의 세계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춰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어린이의 세계를 어린이의 시선으로 그려 내려함으로써 아동문학의 본질에 보다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9) 김혜정, 「이원수 소년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08, 34쪽.

2) 전후 비극과 수난자들

전후 소설은 비인간적 재난에 직면하여 겪은 죽음과 상처, 가치의 붕괴, 지표와 방향 상실, 수난과 굶주림, 이데올로기의 힘 등 전사 체험과 전후 삶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화된 후유증의 환기라든가 기억에의 탐색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현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전쟁과 그 경험적 사건이 기억의 시공 내용으로 남아서, 현재 속에서 잠복하고 지속되는 상처의 근원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¹²⁰⁾ 이러한 정신적 외상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즉자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재된다는 측면에서 피폐해져 가는 삶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¹²¹⁾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민이 아버지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 역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것이다.

안방에서 타악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다. “왔냐? 그 애 왔구나.” (...) “날 죽여 다오. 내가 죽어야 해. 자, 쏘아라, 쏘아! 너만 억울하게 당해서 되나? 날 죽여, 어서어서!” (...) 좀 큰 소리가 났다. “죽여! 죽이라니까.” 그러나 아무 대꾸도 없었다. 아버지가 또 소리친다. “왜? 왜 그러고 있어? 응? 왜 그러고 있느냐 말야. 날 죽여 줘, 어서어서.”(37~38쪽.)

민이 아버지는 “동생을 죽인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방식으로 개를 죽이면서 자신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62쪽)하는, 즉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닌 인물이다. 여기서 민이네 가정이 서서히 파괴되는 상황에서 민이 아버지의 행동은 중요하다. 민이 아버지가 단지 가정을 파괴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으로 점차 인물이 변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주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민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메아리 소년』은 민이의 일상이 표면적인 주제라면 전쟁 당시 동

120) 송은미, 앞의 논문, 14쪽.

121) 안남일,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분단 콤플렉스의 고착 양상연구』,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2002, 187쪽.

생을 죽인 괴로움으로 고뇌하는 민이 아버지의 정신적 외상이 이면의 주제이다.

사실 역사적 비극은 한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생애를 통해 반복된다. 그리고 그 역사의 비극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는 데에서 생기는 억압의 심리는 결국 한 인간을 파괴한다. 혈육을 죽인 민이 아버지 역시 역사적 비극으로 인해 파멸하게 된다. 가령 민이 아버지가 부인이 집을 나간 것보다 동생을 죽인 자괴감을 표출하는 데서 알 수 있다.

난 여편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냐. 난 죄인이야. 죄인이라서 괴롭지 여편네가 가서 괴로운 게 아니란 말야. (...) 죄인은 무어 말라 죽은 죄인야? (...) 어쩌서 죄인이 아닌가. 난 나를 죽였어, 나를! 아니다, 더 귀한 걸 죽였어. 내 동생. 그녀석이 얼마나 나를 따랐더랬는데? 어릴 땐 늘 내가 업어 주었지. 그 녀석이 커서 장가를 들려고 할 때,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서 결혼도 못하고 병정이 됐지. 그런 걸 내가 손으로 쏘아 죽였단 말야. (...) 차라리 내 가슴에다 총을 슬 걸 그놈에게다 대고 총을 쏘았어. 내가 못난 놈이지. 그러니까 늘 그놈이 내 곁에 와서 울고불고하지 않겠나.(98~99쪽)

이렇듯 전쟁은 기존의 모든 가치와 질서, 제도가 지닌 모순과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찬 인간세계의 내막을 알아차렸을 때, 각 개인은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때 개인의 실존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요소들로 가득한 현실 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 방법으로, 죽음이 선택되기도 한다.¹²²⁾ 이 작품에서 민이 아버지는 결국 동생을 죽인 정신적 충격으로 죽게 된다. 이는 다른 누구보다도 형을 따르던 동생을 죽인 죄책감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의 죽음은 또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민이 아버지가 동생을 죽이고 받은 정신적 충격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또다른 측면에서 작가 의식을 고민하게 된다. 즉 정신적 외상을 갖고 있던 아버지의 죽음은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민이가 홀로 남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며 악순환의 반복이기 때

122) 구수경, 「1950년대 전후소설의 서사기법 연구」, 『국어국문학』 136호, 국어국문학회, 2004, 368쪽.

문이다. 가족은 최초의 사회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과거처럼 모든 사회화의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에게 가족은 여전히 제일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다. 가족은 밀접하고 강렬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집착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본적 관계일 뿐 아니라 어린이가 합당한 사회화와 정서발달을 하기 위해서도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차적 집단¹²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죽고 새어머니도 없는 민이의 삶은 또 다른 고난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작가의 의식을 생각해 보게 된다.

6·25 전쟁과 전후 사회는 분단으로 인해 서로 대립 충돌하면서 모순으로 가득 찬 시기였다. 이 시기는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주류 계층에 의하여 그들의 권력과 이해관계가 생산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상대를 끊임없이 타자화 하고 주변화 시키면서 지배층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은 개인을 타자화, 전체화, 획일화한다. 개인의 삶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경험의 결, 즉 개성, 정서, 자유, 양심, 자아와 같은 인간적인 독자성은 무시되고 연대성과 사회적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과 통합을 강요한다.¹²⁴⁾ 결국 이러한 특정 이데올로기가 그 사회를 어떻게 의미화하고 그 의미화 형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메아리 소년』의 또 다른 주제이기도 하다. 전후로부터 시간적 거리를 확보한 『메아리 소년』은 시대가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사람들을 관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정님의 외삼촌 설정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정님의 외삼촌은 1·4 후퇴 때 고향 함흥에서 대한민국으로 온 인물이다.

① 몰아치는 찬바람과 전화 속에서 가족과도 뿔뿔이 헤어져 배에 오른 후로 그는 이 날짜까지 아내와 자식을 생각해야 했고, 또 먹고 살기 위해 부산에서 지계를 지고 푼돈을 버는 일까지 했다. 유엔 군의 지휘에 따라 버젓이 왔건마는 부산서의 삼사 년 동안 정씨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많았다. 일자리를 찾기도 고생을 했고,

123) 프레드릭 엘킨, 『아동과 사회』, 삼일당, 1980, 59쪽.

124) 권국명, 「문학과 이데올로기」, 『동서문학』, 동서문학사, 1988, 83쪽.

또 한편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 하여 감시도 많이 받았던 것이다. (...) 그런데 그가 술을 마시면 전에 쓰던 말이 곧잘 자기도 모르게 튀어 나오곤 했던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공산당이라고 하며 꺼린다.(195~198쪽)

② 아내나 자식들이 북한에 남아있을까? 같이 오지 못했으니 남아 있겠지. 그렇다면 아버지가 남한에 갔다고, 구박을 받을 것도 뻔한 일이다. 어떤 고생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 온 나를..... 동무란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따돌린단 말인가?(199~200쪽)

위 인용문은 전후 당시 월남한 사람들이 겪은 비애를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작가가 월남한 정님의 외삼촌이 겪은 고초 서술은 『메아리 소년』은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이전의 작가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던 것으로, 자유를 표방한다는 남한 사람들 또한 신랄히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조가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갈등이 대립되고 있는 데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남북 분단의 풀기 어려운 매듭이 있다고 하겠다.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그 후손들이 선조가 남긴 유산들을 짊어지고 풀어가야 하는 것이 남북 분단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분단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¹²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작가는 정님의 외삼촌의 고뇌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또한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다. 한국전쟁은 그것이 동족상잔이었다는 점에서 상처의 진폭은 더 크다 할 것이다. 그러기에 한민족의 생존권 자체의 문제로 6·25 전쟁이 제기될 때에는 깊은 죄의식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모두 희생양이 될 수 있다.¹²⁶⁾ 『메아리 소년』은 전쟁은 모두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곧 시집 갈 나이의 처녀도 말 할 수 없는 욕을 당”(110쪽)한 미친 여자를 설정하고 있다.

125) 조구호, 「분단의 갈등과 화해의 논리」, 『한국언어문학』, 한국어문학회, 2007, 353쪽.

126) 박신현, 「한국전후소설의 속죄의식 연구」, 『어문학』 64집, 한국어문학회, 1998, 269쪽.

여자가 참 창피하게 벌거벗는 건 뭐야. (...) 저것도 그놈의 전쟁 때문이란
다. (...) 전쟁 때문이에요? 전쟁 때문에 왜 벌거벗어요? 소영이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물었다. 민이 어머니는 띄엄띄엄 말했다. 저 여자 남편이 죽을 때
발가벗겨 놓고 총을 쏘아 죽였대. 저 여자도 벗겨 놓고 총을 쏘았는데 쓰러
졌다가 나중에 살아난 모양이지?(175~176쪽)

여기서 미친 여자 설정은 전쟁에 의한 희생자로 전쟁이 주는 여성적인 피해를 대
리하는 것이다. 전쟁의 희생 양상이 반드시 남녀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서로 다르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인명이 살상된다는 점에서 있어서 남녀의 경우가 별다를 수
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의 본질인 전투에서 대량적인 살상을 겪게 되는 것
은 남성의 몫인 반면 살아있는 자로서 전쟁의 고통을 철저히 경험하고 황막한 삶에
당면하는 것은 여성의 몫인 것이다.¹²⁷⁾ 때문에 이 작품은 전쟁 중에 여성이 겪은
극단적인 방식을 그리기 위해 비정상적인 인물인 미친 여성을 설정하고 있다.

어느 시대에나 문학은 독자들에게 인간 유형의 의미 있는 초상화를 그려 보여준
다.¹²⁸⁾ 『메아리 소년』에서 민이 아버지, 정님의 외삼촌, 미친 여성은 주요한 인물
이다. 이들은 주인공 민이를 비롯해 평범한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전쟁이란 사태를
가장 구체적이고 즉물적으로 겪은 사람들이며 그래서 그들을 통해 묘사되는 6·25는
관념적이거나 가치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 받고 불구가 되며 남편과 혈육
을 잃은 현실적 삶의 수난자들이다. 여기서 이들을 역사적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
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받은 피해가 현대 한민족사의 비극적인 궤적과 함께 하고 있
으며 그 비극의 실제적 현물¹²⁹⁾이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은 전쟁의 원인이나 전후 현실의 재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구의
상황과는 차별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념적 냉전에 의한 강대국의 대리전의 성격으
로 발발한 전쟁은 불모의 현실을 남겨둔 채 잠정적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¹³⁰⁾ 하

127)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113쪽.

128) 리오 로웬달, 『문학과 인간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12쪽.

129) 김병익, 앞의 책, 20쪽.

130) 신종곤, 「1950년대 전후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굴절 양상」, 『현대소설연구』 16호, 한국현대소설학
회, 2002, 330쪽.

지만 한국전쟁의 의미는 전쟁 자체를 통해 제기되는 보편적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식 문제와 한국 특수한 상황으로서의 전후 재편성 문제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후 민이와 민이 담임이 애국자와 비애국자에 대해 나누는 대사는 중요하다.

“선생님, 저의 아버지는 애국자였죠?” (...) “그렇다 나라를 위해 동생까지도 죽이게 된 것만 해도 애국자지! 하지만 민이 아버지는 슬픈 애국자였어! 아버지가 자식을 쏘고, 형이 동생을 쏘고, 한겨레끼리 이런 싸움을 해서 애국을 한들 그게 떳떳한 애국자가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편히 산다고 행복하다고 하겠느냐? 우리는 남의 나라들 때문에 갈라져서, 남의 힘 때문에 동포끼리 싸워야 했다. 그러면서도 대포를 쏘며 온 괴뢰군 뒤에 보이지 않는 적을 쏘지 못하고 내 겨레를 싸야 했다. 슬픈 전쟁이고 슬픈 애국 용사들이었지…… 하지만 이 답에 너희들이 자라서는 그런 불행이 없어야 할 텐데…… 우선 내 형제, 내 겨레를 사랑하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260쪽)

1960년의 4·19 혁명의 전후는 역사적, 사회적 의미가 새로운 시대의 개막으로 이해될 만큼 중요한 시기이다. 1960년대 전후 문학은 전쟁의 후유증이 기존의 사회틀을 바꾸고 다양한 양상으로 탐색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혹은 작가 의식에 의해 재현된 『메아리 소년』은 단순히 적을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대결 심리를 조장하던 이전의 작품과 달리 전쟁의 원인과 고통을 성찰하는 방향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과 아동문학은 이데올로기의 압력이나 정치적 전략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약한 존재란 점에서 한층 사려 깊은 교육적 논의가 필요¹³¹⁾ 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메아리 소년』은 아동을 독자로 한 이데올로기 접근 방식에서 눈여겨 볼 작품이다.

131) 이주형, 『한국아동청소년문학 연구』, 한국문화사, 2009, 162쪽.

3) 가치중립과 이데올로기 극복

『메아리 소년』은 소년을 목격자로 설정하여 전후 세계를 밀착하고 있다. 민이라는 소년의 시선으로 천진한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극명하게 대비하고 나아가서 모순으로 가득 찬 세계가 가져다주는 충격을 환기시키는 작품이다. 물론 어린 소년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후 세계의 이면을 깊이 있게 천착하고 상황의 의미를 건져 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소년의 시선과 설정은, 편견과 사시(斜視)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동시에 6·25의 한 단면을 거짓 없이 떠낼 수 있다. 이는 6·25 문학의 양식화 방법이 새로운 시각의 요청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¹³²⁾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린 소년은 전쟁에 대해 어떤 규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소년이 보는 전쟁은 일면적으로는 어른의 경우보다 파편화, 단순화되어 나타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를 배제한 채 바라보기 때문에 중립적인 면모로 나타날 수 있다.¹³³⁾ 이 작품에서 민이가 도입부에서 편향적이었던 시각이 차츰 중립적인 면모를 띠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작품 초반에서 민이를 괴롭힌 것은 또래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고민으로 협소한 세계이다. 민이의 고민은 술집을 하는 자신의 환경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에서 시작한다. “집에 들어가도 보기 싫은 걸 보아야 하”(12쪽)고, “집에는 술 취한 손님이 떠든 소리, 노래 부른 소리, 그보다 민이에게 가장 싫은 것은 상스러운 이야기와 주정으로 싸우는 소리였다.”(15쪽) 때문에 민이는 술장사를 하는 집이 싫고 그런 자신에게 술집 아이라고 놀리는 아이들과 관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고립된 세계를 산다. 새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친하게 지내던 소영이가 이사를 가고, 아버지가 이룸모를 병을 앓는 것이 괴롭다. “어머니와 누이동생과 그리고 아버지도 다 잃은 것 같”(102쪽)은 심경으로 산다. 이렇듯 민이는 친어머니도 아니고, 친누이 동생도 아

132) 조남현, 앞의 책, 37쪽.

133) 전홍남, 「분단소설에 나타난 아버지찾기 모티프와 그 문학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42집, 한국언어문학회, 1999, 522~523쪽.

닌 이들을 유난히 그리워하고 상심해 한다. 여기서 민이의 고민은 또래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이다. 민이를 비롯한 소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 이념,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외로움이다. 하지만 이런 민이가 협소한 세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나타내면서부터이다.

민이는 아버지가 도깨비에 홀려서 다치고 난 후, 아버지를 대신하여 도깨비를 잡으려고 한다. 민이는 처음 아버지가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왔을 때, 누군가와 싸웠을 것이라는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이후 아버지가 계속 헛소리를 하자 민이는 도깨비의 실체를 생각하게 된다.

그 도깨비가 정말 아버지의 정신을 뺏아 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실신한 사람처럼 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도깨비란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 도깨비란 것이 없다고 생각해 온 민이도 이제는 그 도깨비를 잡아 없애 버려야 아버지가 그런 두려운 데서 구함을 받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도깨비를 잡아 없애면 아버지가 그런 불행 속에서 구함을 받게 될 게 아닌가. 도깨비란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비만 만일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잡아서 그 정체를 밝혀 놓는 것이 좋을 거야. (...) 도깨비가 정말 있다고 하는 생각은 과학 공부와는 단 세상의 일 같다. 그러면서도 세상에는 과학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지 누가 아니(43~56쪽)

이렇듯 민이가 자신의 주변 환경을 고민하던, 즉 협소한 세계에 머물던 것이 아버지의 이상 증세를 보면서 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간다.

작품 초반에서 민이는 세상에는 과학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통해 도깨비의 실체를 찾으려고 한다. 여기서 도깨비의 실체는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즉, 이데올로기이다. 민이 아버지가 동생을 죽인 동족간의 살육을 상기한다면, 6·25의 동족상잔 비극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도깨비이면서 과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아이러니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민이는 아버지를 위해 도깨비의 실체를 찾고 싶지만, 쉽지 않다. 때문에 작

품 초반에서 민이의 신념 역시 흔들린다. 먼저, 민이는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동생을 죽이고도 애국이 다 뭐냐고 호통을 하는 것을 떠올린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이 나라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공민 선생과 애국, 비애국에 대해 토론을 하다가 북괴군이 아버지라면 쓰지 않겠다는 말을 해서 아이들로부터 “간첩이니 빨갱이니 하는 소리”(130)를 듣고 속상해 하는 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의 놀림으로 아버지를 위해 도깨비를 잡겠다는 신념은 사라지고 오히려 혈육을 죽인 아버지를 애국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친구들이 놀리는 것이 괴로워, 자신도 아버지 못지않은 애국심을 갖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한테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당찬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민이는 산에서 수상한 사람을 만나고 신고하는 것으로 애국심을 증명한다. 자신의 사상을 의심하는 공민선생과 아이들을 생각해서 단지 그 사람의 옷차림이 말투가 수상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하지만 산에서 본 사람을 간첩으로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나오다가, 정작 자신이 그리워하던 새어머니를 길에서 보고도 놓치고 만다. 여기서 간첩과 어머니의 대비되는 구도는 진정 애국과 비애국이 무엇이냐의 물음이기도 하다. 자아가 성립되지 못한 민이는 간첩을 잡고 애국자가 되지만, 여전히 외롭고 괴롭다. 정작 민이가 괴로운 것은 간첩을 잡아서 공민 선생에 의해 애국반공소년이라고 명명될 때이다. “교단에 올라선 민이는 죄짓고 꾸중 듣는 아이처럼 부끄러운 표정”(156쪽)이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애국반공소년이라 부르지만, 오히려 그 말을 창피해 하고 아이들과 싸움을 벌인다. 또한 그 싸움에서 한 아이가 “애국자 땀에 사람 다치겠”(156쪽)다는 말은 전후가 남긴 씨앗이 사회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국을 강요하는 사상이 개개인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불신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공민 선생을 들 수 있다. 공민 시간에 공민 선생과 아이들의 대사이다.

공민 선생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반공 사상에까지 이야기를 마쳤다. 공산주의를 쳐부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은 한 사람도 마음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만약에라도 북한 공산당을 비호하거나 동정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큰일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북괴군이 일가친척이라면 어떻게 하냐는 민이의 물음에도 스스로 없이 답한다. (...) 애국심은 일가라 해서 버릴 수 없는 것이야. 나 자신까지라도 희생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친척이라 해서 적을 끌어들이거나 동정하거나 해서 되겠니? (...) 입으로만 애국이니 반공이니 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누구나 행동으로써 애국도 반공도 해야 하는 거야. (126~155쪽)

이렇듯 이 시대의 애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을 요구한다. 공민 선생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애국을 부르짖은 것이라면 박선생과 춘천택의 남편이 나누는 대사는 전후가 남긴 상처와 혼란을 여실히 드러낸다.

우리 사람 내쫓을 의논하지 않았어. 우린 갈 데도 없단 말이야. 전투에서 죽지 않고 살아왔다고 팔시냐 죽었으면 좋았겠나. 이 가슴패기를 봐 빗발 같은 적에 맞고도 적군과 싸운 용사다. 쫓아낼테면 해 봐라. 아니 여보 용사가 아니랬소 내가 뭐랬소 6·25의 상처를 당신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오. 이 집 어른도 상처에 탈이 나서 죽은 거요. (275쪽)

이렇게 둘의 싸움은 단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후의 풍경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전쟁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민이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사상을 통해 협소한 세계를 벗어난다. 동생을 죽이 아버지의 행동은 이해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또한 전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난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운명이 눈앞에 닥쳐 온 것이었다. 죽음의 자리

가 바로 여기냐, 아니면 백 미터 앞이냐 하는 것만이 모르는 일이지 죽는다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살길이 있다는 생각은 있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다. 적군을 죽이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였다.(112쪽)

전쟁이란 아군만의 희생이 아니라, 적군 또한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선우휘는 한국 작가에게 중요한 것으로 6·25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문제를 들었다. 이는 전쟁문학에 대한 작가들의 관점이나 의식에 대한 우려로 “작가들이 국군의 죽음보다 인민군의 죽음에 깊은 의미를 형상화하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곤란하”고, “6·25를 통해 우리가 왜 사람을 죽였고, 또 죽이지 않을 수 없었던가의 그 역사적 고뇌의 의미 규명”¹³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국 한국전쟁을 소재로 하는 전후문학은 또 다른 시선에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25 전쟁은 그 시대를 살았던 아동들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잊을 수 없는 기막힌 고통 그 자체였다. 그렇지만 이원수는 아동들이 어떻게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지에 관심을 가졌고, 이 과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고자 한다.¹³⁵⁾ 6·25 전쟁은 이원수 소년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데, 작가는 6·25 전쟁 자체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않고 6·25 전쟁의 후유증으로 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소설은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서 아동 사회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아동의 바른 성장을 돕는 배려 아래 씌어져야¹³⁶⁾한다. 사실 분단 문제는 그 원인이나 과정은 도외시되고 그것이 남긴 상처만을 강조해서는 분단의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다.¹³⁷⁾

여기서 진정한 한국 전쟁 문학이 쓰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그 전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정신적 자유로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는 직 간접적으로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134) 『조선일보』, 1984. 6. 23.

135) 오판진, 앞의 논문, 305쪽.

136) 김혜정, 앞의 논문, 13쪽.

137) 조구호, 앞의 논문, 361쪽.

못하고 있기에 그 시대 역사적인 상황은 나의 상황으로만 좁혀 논의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분단 상황을 증립적으로 인식할 때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6·25 문학이라는 것이 계속 씌어져 나가야 된다면, 객관적 사실에서 어떤 주체적인 동기를 찾아내가지고 거기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계기를 발견해야 된다.¹³⁸⁾ 여기서 전후를 보다 객관적으로 그린 『메아리 소년』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메아리 소년』은 주인공과 부주인공 사이에 대립 관계에 놓인 데 대한 원인 설정이 명쾌하지 못한 점과 사건 전개에서 일관성의 결여로 스토리 자체가 매끄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결말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작품과 결말을 맺지 않은 작품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러한 현실의 원인 제공자인 어른들에 대하여 작품을 통해서나마 질타하면서 어린이들을 바른 길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부정적인 판단이 현실을 수용하는 자세가 방관자로 끝나지 않고 밝은 미래로 향하는 길을 제시한 면이 그의 작품에서 돋¹³⁹⁾보인다. 또한 『메아리 소년』은 전후 삶의 실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편향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은 6·25가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적 거리를 두고 전후에 남겨진 상흔을 소재로 하여 비극적인 역사의 희생자들의 아픔을 들여다보면서 이데올로기 문제를 짚는다. 이러한 점은 이후 전후와 분단을 소재로 하는 작품의 근간이 될 것이다.

문학과 사회는 긴밀한 유추 관계를 맺고 있다. 문학작품에 나타난 현실은 허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현실과 동일시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실제 현실은 그것을 그대로 문학 작품화 할 수 없다. 곧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실제 현실을 가공하여야만 비로소 문학작품이 되는 것이다. 위대한 작가는 그 사회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간취하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허구적 문학작품을 통하여 현실에서 전달할 수 없는 사실까지 독자들에게 알리는 사람이다.¹⁴⁰⁾ 어린이는 사회를

138) 김윤식, 성민엽, 「6·25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동아』, 1986, 6월호, 625쪽.

139) 이균상, 앞의 논문, 244~245쪽.

140) 문학과사회연구회 엮음, 『현대사회와 문학적 상상력』, 거름, 1997, 18쪽.

구성하는 일원이지만, 사회적으로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적 상태가 성인에 비할 때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 문학에서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 또는 주제로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도 작가가 한국전쟁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폭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어린이의 환상성이나 심미성을 고려하여 전쟁에 대한 묘사와 의미 설정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¹⁴¹⁾ 전쟁의 물리적 피해보다도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6·25가 야기한 문제점들이다. 때문에 6·25를 소재로 한다고 해서 6·25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6·25가 야기한 피해들을 예리한 촉수로 포착하는 것이 6·25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2. 유토피아와 평등 사회 구현 - 김요섭

문학은 사회의 반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문학 작품은 진공에 밀폐된 한 개인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 작가의 기능적 운곽인 언어 표현, 경험, 인생의 제반 요소들은 모두 사회와 많은 함수 관계를 갖고 있다. 가령 한 작가가 한 인물을 그리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인물은 벌써 그가 살고 있는 사회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갖는 상황에 주어져 있는 것이다. 때문에 소설에 제시된 인간상들은 대개가 사회 및 정치적 경제적 변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개인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기 마련이다.¹⁴²⁾ 이렇듯 문학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문학 작품의 실험적 시도 또한 사회와 함수 관계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식민치하와 해방, 6·25 전쟁 등을 겪으면서 상상이나 환상 세계를 꿈꾸는 것은 허무맹랑하거나 사치로 여겼다. 때문에 우리나라 아동문학은 대개가 생활

141) 정대련, 「아동문학에 나타난 한국 전쟁」, 『어린이문학교육연구』 4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03, 48쪽.

142) 권유, 「이범선 소설에 나타난 분단의식」, 『한민족문화연구』 6집, 한민족문화학회, 2000, 170쪽.

을 소재로 한 생활동화와 의인동화가 주를 이루었다. 해방 이후 대개의 아동문학가들 역시 판타지는 시대의 비판정신을 외면하고 관념을 담아내는 정도로만 간주하여 생활동화를 쓰는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김요섭은 1960년대 들어 어린이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려고 한다. 식민치하, 해방의 혼란, 6·25 전쟁 등 지난한 현실에서 오는 절망과 허무감을 환상의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한 것이다. 『날아다니는 코끼리』에서 현실과 환상 세계를 구축하려고 한 것이 그러한 시도이다. 『날아다니는 코끼리』는 현실과 환상 세계라는 공간을 통해 물질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어른들의 세계를 풍자, 억압된 어린이의 내적 욕망을 탐색한다. 즉 바람직한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환상이라는 장치로 시대와 세계를 풍자한 작품이다.

아동문학에서 환상은 삶과 사회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환상, 동경 등 낭만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숨겨진 세계를 소망하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발견하는 것이다. 환상은 실제 현실과는 다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또 다른 리얼리티’를 찾는다. 환상은 바로 그 ‘또 다른 리얼리티’를 전달하고 제공해 주는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¹⁴³⁾ 아동문학에서 환상의 장치는 현실을 보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어 세계를 직시하거나, 잊고 있거나 잃고 있는 삶의 본질을 보게 한다. 그러므로 환상은 현실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환상 세계는 유토피아일 수도 있고, 소망의 세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동문학의 발전은 ‘대상’으로서의 아동이 ‘주체’로서 인식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였으며, 근대화가 가져온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아동을 위한 이야기가 문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역사적 단계를 풀어나가는 접근 코드로 환상의 역할은 의미가 매우 크다.¹⁴⁴⁾ 따라서 『날아다니는 코끼리』는 환상 세계가 창조해 낸 낯선 공간과 인물, 신비로운 세계의 장치로 당대의 현실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반영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작품이다.

143) 김성곤, 『퓨전시대의 새로운 문화 읽기』, 문학사상사, 2003, 166쪽.

144) 차은정, 『판타지 아동문학과 사회』, 생각의 나무, 2009, 10쪽.

1) 현실 초극과 미래지향의 환상

김요섭의 작품 세계는 크게 해방 이후, 6·25 전쟁, 1960년대 이후로 구분¹⁴⁵⁾할 수 있으며, 문학적 특징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초기 작품부터 여러 차례 변모하지만, 김요섭이 끝까지 고수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강한 주제 의식이다. 물론 현실을 반영한 주제 의식이 문학 세계 전체에서 일관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요섭의 대개의 작품에서 현실 반영의 강한 주제 의식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김요섭에게서 보다 주목하는 것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아동문학의 지향성이다. 여타 작가의 문학관과는 또 달리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문학이라는 것이다. 가령 초기 작품인 「연」 이후 판타지 시도는 한국 아동문학의 다양한 실험문학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심점 역할을 한다. 특히 장편동화 『날아다니는 코끼리』¹⁴⁶⁾는 현실과 환상을 접목시켜 환상동화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면서 1960년대 아동문학은 물론 작가 개인에게도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작품 역시 어린이가 주체인 어린이 공화국을 세우는 등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날아다니는 코끼리』는 수영, 상범, 난희 세 어린이가 애드벌룬을 타고 신비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동화이다. 여름방학이 되어도 별다른 계획이 없는 세 어린이는 수영이 할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의 선전용 코끼리 애드벌룬을 내리려다가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하늘로 올라가 여행을 하게 된다. 정글 속에서 맞게 된 죽음, 해적선의 납치, 사막에서 서커스단에 팔리는 몸이 되어 동양의 가짜 왕자와 공주가 되는 모험

145) 김요섭의 작품세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우울한 현실을 배경으로 민족적 성향을 띠는 해방 이후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해방을 맞았지만 혼란하고 슬픈 현실을 사실적으로 작품화한 「연」과 「늙은 나무의 노래」를 들 수 있다. 둘째, 6·25 전쟁 이후로, 전쟁과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과 허무주의가 투영된 시기이다. 6·25 전쟁으로 인해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는 「잔디밭에 그린 지도」, 클라리넷에서 나오는 군가 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이야기 「은하수」를 들 수 있다. 셋째, 1960년대 이후로, 판타지와 신비한 세계의 추구, 그리고 문명비판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시기이다. 애드벌룬을 타고 세 어린이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신비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과 화산을 그린 『날아다니는 코끼리』를 들 수 있다.

146) 본 장에서 다룬 『날아다니는 코끼리』는 1968년 발행한 현암사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 쪽수만을 명기할 것이다. 띄어쓰기와 맞춤법은 원문 그대로 따른다.

을 비롯해 어린이 공화국 등 장소를 옮겨가면서 펼쳐지는 환상 속 모험 이야기다. 즉 아프리카 → 해적선장 → 사막 → 서어커스단 → 어린이 공화국 → 얼음나라 → 어린이 공화국 등 자유롭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모험동화이면서 환상 세계라는 장치를 통해 벌어진다는 점에서 환상동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세 어린이가 위험과 난관에 부딪치고 그것을 해결하고 성장한다는 점에서 성장소설이라 할 수 있다.

『날아다니는 코끼리』는 “웅대한 스케일과 수법상에 있어 서구동화에 접근하여 우리 동화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몸부림”¹⁴⁷⁾과 “장대한 규모로 그려낸 발랄한 상상력은 한국 환상동화에 굵은 획을 그은 것”¹⁴⁸⁾으로 평가 받는다. 해방 이후 대개의 아동문학가들이 생활동화에 주력할 때, 김요섭의 환상 동화는 한국 동화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랄한 상상력으로 한국 동화의 방향을 제시한 『날아다니는 코끼리』는 리얼리티에 기반하여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으며 환상과 리얼리티의 조화를 통해 현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의인화된 비유나 상징으로 환상 기법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재미를 장치하여 즐거움을 준다. 가령 세 어린이는 사막에서 별 점을 친다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부른 노래가 그러하다.

어이들손길 어이들손길/ 오시가 고쉬 숨한/ 이별 한상이 는나 는나/ 다니
 입인여 는있 고키지/ 든거하상이 이꿈 밤젯어/ 오시보가 고치 을점/ 어이들
 손길 어이들손길/ 오시가 고보쳐 번 한 점 내/ 길 한힘 은막사/ 오시가 고
 보쳐 번 한 점 별 내//^(81쪽)¹⁴⁹⁾

세 어린이는 별 점 치는 여자가 부르는 노래를 처음에는 알 수 없어 의아해하지

147) 이재철, 앞의 글.

148) 김현숙, 앞의 글.

149) 이 노래 내용을 바르게 옮기면 다음과 같다. 길손들이여 길손들이여/ 한숨 쉬고 가시오/ 나는 나는 이상한 별이/ 지키고 있는 여인입니다/ 어젯밤 꿈이 이상하거든/ 점을 치고 가보시오/ 길손들이여 길손들이여/ 내 점 한 번 쳐보고 가시오/ 사막은 험한 길/ 내 별 점 한 번 쳐보고 가시오//

만, 여인이 노래를 거꾸로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재미있어 한다. 하지만 이 노래는 단지 재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할 세상을 말한다. 어른이 중심이고 주체인 세상에서 어린이는 단지 존재 아닌 존재에서 어린이 또한 세상의 중심이고 주체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막에서 만난 키 작은 대상이 세 어린이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달가락거리는 소리”(91쪽)와 키다리 대상이 물을 마시기 위해 빈 컵을 들이키는 장면도 재미를 준다. 어린이보다 성숙할 것으로 생각되는 어른들의 우스꽝스런 행동묘사는 재미를 주는 동시에 어른들에 대한 기존 이미지 전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날아다니는 코끼리』는 재미를 장치하여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려 한다. 확산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환상동화로 김요섭은 물론 당대에 새로운 시도였던 것이다. 이때 환상 세계는 현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불합리한 상황과 연계되는 세계이며 현실에 존재하는 세계다. 리얼리티에 기반하여 현실의 문제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날아다니는 코끼리』의 환상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지적 유희와 자유를 보여 주는 환상이다. 어떤 방향을 취하는 것이건 간에 문학과 사회에 관한 일체의 논의는 그것이 문학을 사회와 연결시켜 보고자 하는 입장인 만큼, 문학의 탈사회화란 신화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에 선다고 할 수 있다. 문학사회학의 일차적인 공적은 문학이 근본적이며 본질적으로 사회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분명한 논리로 해명해 준 데 있을 것이다. 환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도 불가피하게 사회성을 갖는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형편이다.¹⁵⁰⁾ 해방 이후 대개의 아동문학가들이 생활동화에 주력할 때, 김요섭은 새로운 방식, 즉 환상을 장치하여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려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지난한 우리 역사의 절망과 허무를 환상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약자인 어린이 그들의 세계를 만들어 주기

150) 이동렬, 『문학과 사회 묘사』, 민음사, 1988, 224~225쪽.

위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요섭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문학에 고심한다. 아동문학의 주체가 누구이며,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재미의 필요성을 생각한다. 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는 동일하지 않다. 사회의 상층에 위치한 특권층은 그 사회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자기들의 특권을 보증해 주는 현존 사회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보수적 편향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사회의 하층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자신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그 사회 질서란 파괴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¹⁵¹⁾ 여기서 사회의 하층이란 다양한 층위가 있지만, 어른 중심인 이 세계에서 어린이는 사회의 약자이다. 세계와 사회의 약자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한 것이 김요섭의 아동문학 세계관으로 보인다.

이렇듯 김요섭의 환상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환상이다. 그 현실은 고립된 현실이 아니라 상상으로 이어지는 당위적 현실이다. 즉, 있어야 하는 현실은 가변적인 있는 현실을 초극하여 미래지향성에 의해 완성하려는 그날의 현실이다. 그것은 있는 현실의 해부와 고발이며 초극에 의해 이루어지고 역사의식에 의해 구성되고 정립되어지는 당위의 현실이요, 총체적 현실이다. 있어야 하는 현실은 인간의 영원히 추구해 가는 유토피아이면서도, 당대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이루려는 그날에 이르는 도정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현실이다.¹⁵²⁾ 따라서 『날아다니는 코끼리』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의 통로를 통해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유토피아 세계이면서 진실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상을 장치한 것이다.

2) 물질만능주의와 위악한 세계 풍자

1960년대 산업화는 경제 개발이라는 표면의 성장과 달리 물질만능주의라는 부정

151) 이동렬, 위의 책, 224~225쪽.

152) 구인환, 앞의 책, 41~49쪽.

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앞서게 되고 이로 인해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삶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만능주의는 결국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물론 갖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김요섭은 이런 부조리하고 무질서한 세계를 『날아다니는 코끼리』에서 고발한다. 그 세계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의 술과 요리를 먹으러 다니는 정치가가 있는 판”(58쪽)이며, 어린이를 어른들 마음대로 “팔고 사고”(97쪽), 평범한 어린이들을 “궁성을 탈출해 나온 장난꾸러기 왕자와 공주”(98쪽)라고 위장해 몸값을 높이려고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곳이다. 또한 어른들의 위악함을 숨기려고 “서어커스 구경을 공짜로 할 수 있는 표”(105쪽)를 주는 등 뇌물이 성행하는 세계이다. 이렇듯 『날아다니는 코끼리』는 부조리함이 만연한 세계인데, 이는 단지 환상 세계라는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 사는 세상의 한 단면이면서 현실을 풍자하는 것이다. 이런 부조리한 세계를 구성하는 인물 역시 보이는 것을 중시 여기는 위악함으로 형상화된다.

① 해적 선장은 얼른 금테를 두른 모자를 쓰고 가에 종이로 만든 혼장을 단 다음, 망원경을 목에 걸고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갑판으로 뛰쳐나왔습니다. (63쪽)

② 가족으로 지은 모자를 꼭 눌러 쓰고, 왼쪽 윗 포켓에는 빨간 손수건을 접어서 넣은 것이 반쯤 보입니다. 그러나, 땀을 닦을 때마다 그 빨간 손수건으로 닦지 않고, 아래 포켓에서 때가 묻은 검으스레한 손수건으로 꺼내 닦았습니다. (92쪽)

①은 세 어린이가 만난 해적 선장의 모습이다. 금테를 두르고 모자를 쓴 모습과 가슴에 단 종이 혼장은 권위를 내세우려는 해적 선장의 허위의식 조롱이다. ②는 세 어린이를 서커스단에 팔려는 사막의 대상의 행동이다. 사막의 대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인물로, 상대에게 보여야 하는 경우는 깨끗한 빨간 손수건으로 대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때 묻은 손수건으로 대신한다.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비로 대상의 허영적인 모습을 비판한다. 작품에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작가의 태도에서, 작가는 여러 가지의 톤을 나타낼 수도 있다. 작가는 주인공을 그럴 때 존경할 만한 사람이거나 싫은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나 고상한 사람으로, 비참한 사람이나 비극적인 사람으로 그릴 수 있으며, 이런 작가의 태도는 직접적 설명이거나 극적 표현 혹은 역설적인 언어로서 나타낼 수 있다. 톤은 또한 가치평가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작가 태도의 반영을 통해서 가치평가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주제를 발견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¹⁵³⁾ 따라서 가슴에 종이 혼장을 단 해적 선장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위악적인 사막의 대상 설정은 세계를 풍자 비판하는 것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작가는 부정적인 인물의 행동을 통해 시대의 문제점을 생각하게 한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눈빛도 다르고 얼굴빛도 다른데, 서어커스단에 팔아먹기에 꼭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코끼리까지 덤으로 주겠다고 하면 틀림없이 서어커스단에서는 사 줄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84쪽)

위 인용문은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사막의 대상이 어린이를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비싼 값에 팔아넘기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한 세 어린이들에게 “왕자와 공주라고 말”(107쪽)이라고 시키면서 신비와 꿈의 “동양의 궁성에서 날아온 왕자와 공주이야기로 위장하여 동화보다 더 아기자기 한 얘기”(107쪽)로 만들어 어린이들의 돈을 갈취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어린이보다 돈을 목적으로 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서어커스단”(124쪽)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말이다.

이렇듯 세 어린이가 만나는 어른들은 힘으로 어린이들을 제압하려 하고 어른들의 세계에 가두려고 한다.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는 세계에서 피해를 보는 이들은 힘없

153) 구인환, 앞의 책, 152쪽.

고 약한 어린이들이다. 김요섭은 힘의 지배, 권력 앞에서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게 환상 공간을 만들어 새 세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상 공간을 장치하여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환상을 강조하면서 작가의 가치관과 주제의식을 녹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이상 세계를 구현하는데 흰 코끼리는 주요한 인물이다. 세 어린이를 모험의 세계로 데리고 가는 인물인 동시에 어린이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면하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토인들은 함정만 파놓는 것이 아니다. 빠지기만 하면 못 벗어나게 그물을 쳐놓고 있다, 그물 위에는 아무도 함정인 줄 모르게 나무 잎사귀를 덮어 놓고는 누구든지 빠지면 나중에 그 난꽃의 다발을 묶어 놓은 바아를 잡아 당기기만 하면 함정에 빠진 사람이나 짐승을 잡아당길 수가 있다.(53쪽)

난희가 함정에 빠졌을 때 흰 코끼리의 힘으로 함정을 빠져나오는 장면이다. 이 작품에서 흰 코끼리는 세 어린이에게 지혜와 용기를 가르쳐 주면서 어린이들이 변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한다. 협소한 세계에 살아서 자신들이 사는 나라 외에는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다른 나라를 보여 주고 모험을 하도록 한다. 세 어린이는 점차 흰 코끼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배우면서 변하는데, 수동적이던 어린이들이 흰 코끼리가 유럽의 아름다운 나라로 가자고 할 때 “씩씩한 용기와 새 경험을 얻어 가지고 돌아가고 싶”(58쪽)다고 하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작품의 도입부에서 세 어린이가 모험을 떠나게 된 것도 흰 코끼리에 의해서이며, 작품 전체에서 세 어린이를 모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도 흰 코끼리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에서 흰 코끼리는 작가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흰 코끼리는 어린이들에게 조력자 역할을 하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정치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놓지 않는다. 이처럼 『날아다니는 코끼리』는 어른들의 위악한 모습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을 선명히 보여주면서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김요섭은 『날아다니는 코끼리』에서 물질만능과 배금주의 사상에 젖은 어른들의

모습을 풍자 대상으로 삼는다. 풍자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이 형상화 과정 속에 나타나며,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관에 의해 현실 상황이나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선명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실 상황과 부정적인 인물의 형상은 그것과 대조되는 진정성의 가치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세계상 창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김요섭은 『날아다니는 코끼리』에서 어른들의 위악한 묘사와 세계에 대한 풍자로 또 다른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환상 문학은 환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다. 즉 환상을 통해 결국은 현실로 귀의하는 것이다. 환상은 우리의 인식 지평을 현저하게 넓혀주고 지적인 자유와 유희를 허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실에 대한 또 다른 시각과 현세에 대한 다각도의 점검을 가능케 한다. 환상세계 속에서도 마주치는 문제는 현실 속에서도 부딪히고 경험하는 문제들이다. 리얼리즘 문학에서 형상화된 현실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닌 구성된 현실임을 인식해 볼 때 리얼리즘 문학 속 세계가 현실법칙대로 움직이는 구성된 현실인 것에 반해 환상 문학은 단지 새로운 법칙으로 보이는 현실의 모습일 뿐인 것이다.¹⁵⁴⁾

문학에서 환상은 세계를 보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현실의 모순을 들추어 은폐되어 있던 진실을 직면하고 삶의 본질을 복원시킨다. 때문에 환상은 현실과 괴리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현실의 거울이자 대안의 공간으로 기능하는데, 그 환상의 세계는 현실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소망의 세계이면서 유토피아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김요섭은 『날아다니는 코끼리』에서 각박한 현실의 어린이들에게 환상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정신 세계를 성숙시켜 어린이들의 내적 성장을 돕고 있다.

3) 어린이 중심의 어린이 공화국 건설

김요섭이 아동문학의 문학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장한 것은 아동문학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다. 그동안 이어져 내려온 아동문학관은 어린이와는 분리되어 있

154) 차은정, 앞의 책, 145쪽.

는 즉, 어른의 시선과 중심으로 창작된 것이기에 아동문학 소재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폐단을 김요섭은 과감히 깨뜨리면서 어린이와 어른을 분리하여 어린이 중심으로 생각한다. 물론 어린이 역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관념적인 세계관과 이전의 아동문학관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현실의 어린이를 창조하고자 하는데, 『날아다니는 코끼리』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어린이 공화국 건설이 이를 뒷받침한다. 어린이 공화국에서 어린이는 모든 것의 중심이며 주체가 된다.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며, 어린이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세계인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어린이 공화국은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127쪽)이며,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129쪽)로, “어린이는 누구든지 무료 입장”(129쪽)할 수 있는 환상적인 곳이다. 하지만 어린이 공화국은 어린이에게 낭만적인 것과 달리 어른들에게는 반성의 공간이다. 작가는 그동안 어른 중심으로 살아온 현실 세계의 어른들에게 반성을 하게 한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를 함부로 구박하는 일이 없습니까?
1. 어린이한테 과자와 과일을 많이 사줍니까?
1. 어린이한테 동화를 비롯한 좋은 책을 많이 사줍니까?
1. 어린이가 친구들과 구슬치기 할 시간도 없이 공부만 하라고 공갈 위협 내지는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까?
1. 천재 어린이를 만들기 위해서 피아노 같은 것을 어린이한테 중노동식으로 연습시킨 사실은 없습니까?(130쪽)

어린이 공화국은 소방수가 불이 난 집에서 어린이와 어린이의 책가방, 책상을 건져 내지만, 어린이가 제일 사랑하던 인형을 구하지 못해 소방수가 청소부로 전락하는 곳이다. “어린이들이 총소리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고 절대 반대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134쪽) 곳이다. 아름다운 분수가 있고 공원의 철문에서도 피아노 소리 같은 맑은 음악 소리가 나는 어린이 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평화롭게 꿈을 꾸며 살 수 있다. 이렇듯 어린이 공화국은 환상의 공간으로 어린이들이 소망하는 공간이자 이상 세계이다. 작가는 앞으로 펼쳐질 세계에 대해 미리 예견하는 즉, “21세기는 어린이의 세기”(117쪽)라는 데서 알 수 있다.

얼음과자의 나라는 궁전을 비롯해 모두 얼음으로 되어있으며, 사계절 겨울이지만 척박한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곳이다. 세계 “모든 어린이에게 좀더 많은 과자를 먹이기 위한 헌법을 만들”(171쪽)어, 우유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어린이에게 과자를 많이 먹으라고 외치는 곳이다.

이렇듯 세 어린이는 흰 코끼리에 의해 아프리카, 사막, 해적선, 어린이 공화국, 얼음과자의 나라를 여행한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공화국, 얼음과자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곳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다. 특히 어린이 공화국과 얼음과자의 나라 두 나라의 공통점은 어린이가 어른보다 우선시 된다는 점이다. 어린이 공화국에서 어린이는 모든 것의 중심이며 주체가 된다.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가 아끼는 인형을 살리지 못했다고 벌을 받는 소방수가 있고, 금붕어를 잃은 어린이 때문에 교통이 통제가 된다. 어린이들은 낚시를 하는 아버지들 때문에 데모를 한다. 또한 수영, 상범, 난희 세 어린이는 비록 어리지만 어린이 공화국에서 교장 선생님이 되어 그곳 아이들을 가르친다. 얼음과자의 나라도 어린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펼쳐지며, 어린이를 위해 법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어린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 자신들이 세계를 만들고자 한다. 어린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상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것이며 이러한 세계를 김요섭은 환상을 장치하여 만든 것이다. 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유사하지만, 그 세계에서만 통하는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신비하고 환상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환상적인 공간, 즉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은 결국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이다. 또한 인간 본질의 회복에 대한 갈구이다. 때문에 세 어린이들의 여행은 현실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기도 하다. 환상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은유이다. 그러므로 환상 동화의 초점은 모험, 초자연적 현상, 환상성, 그 자체에 있다 기보다는 그것이 우리 내면과 현실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손에 있다.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주인공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가 중요¹⁵⁵⁾하다. 따라서 세 어린이가 모험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주목하게 된다.

처음 세 어린이는 모험을 떠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어린이에 지나지 않았다. 코끼리에 의해 움직이고 생각하는 수동적인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작품 전체에서 이 어린이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단지 어린이 공화국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 되어 일주일 동안 일한 것을 제외한다면 정작 세 어린이가 주체가 된 것은 많지 않다. 오히려 세 어린이로 인해 주변 인물들의 변화가 생긴다.

애드벌룬 날려 보내 직장에서 자리를 잃게 된 수영이 할아버지는 세 어린이의 용기 덕분에 과자회사를 홍보하였다고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고 신분이 변한다. 그리고 세 어린이 덕분에 많은 어린이들이 캐러멜 선물을 받고 기뻐한다.

헬리콥터가 아침부터 서울의 하늘을 빙빙 돌았다. 시장은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렸다. 헬리콥터에서 캐러멜을 어린이들을 위하여 내려뜨리라는 명령이었다. 다시 두 대의 헬리콥터는 캐러멜을 가득 싣고 하늘을 내리기 시작했다. 어린이 공원, 한강 백사장, 만화가게가 있는 골목을 헬리콥터는 찾아다니면서 캐러멜을 떨어뜨렸다, 어린이들은 영문으로 모르고 캐러멜을 줍기에 바빴읍니다.(204쪽)

김요섭이 동화를 선택한 것은 상상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동화 속에서 추구한 자유로운 상상은 현실을 더욱 뚜렷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자유 추구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체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팬타지 부분에 속하는 책이 문학 속에서 영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상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몇 가지의 요건이 있다. 가령 작

155) 차은정, 앞의 책, 143쪽.

자의 인생 경험이든가 표현력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작자가 팬터지를 쓰려고 뜻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독창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관심사가 된다. 독창적인 상상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일이든지 고안해 내는 재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추상의 세계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¹⁵⁶⁾ 이런 점에서 비록 세 어린이가 능동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었지만, 평범한 세 어린이가 용기를 갖고 모험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의 역동적인 공간 창출은 생명을 창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세 어린이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뜻하지 않은 캐러멜선물을 받은 것은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있던 어린이들에게 신선함을 주는 것이다. 어떤 상상력도 현실적인 것을 매개로 하지 않는 한,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모종의 상관성을 갖지 않는 한 상상력 본연의 목적인 자유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는 없었다.¹⁵⁷⁾ 때문에 작가는 어둠 속 현실의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주어 자유를 누리고 현실을 극복하기를 기원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어린이들에게 생명력을 심어주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날아다니는 코끼리』는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허구성과 치밀하지 못한 구성 등이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가령 어린이 공화국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이상적인 공간이지만, 그곳의 폐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대 난국에 처한 어린이 공화국은 “부정부패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179쪽)으며,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어린이들의 권리가 너무 커지자 이 권리가 그만 폭력으로 변”(179쪽)한다. 이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이상적인 공간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상세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에게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세상의 논리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다. 어린이를 주체로 하는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작가가 처음부터 세운 어린이 공화국은 결국 현실의 또 다른 희망의 공간이 아니라 피상적인 공간으로 치부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고 주체로 상정한다면 어린이 공화국이 피상적인 공간이

156) 릴리언 스미스, 『아동문학론』, 교학연구사, 1966, 204~205쪽.

157) 권오룡 외, 『문학·현실·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85, 321쪽.

아니라, 희망의 공간, 소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날아다니는 코끼리』는 치밀하지 못한 구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생활동화에 주력 하던 당시를 생각한다면 어린이들에게 재미를 주고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게 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의 아동문학이 진정한 어린이의 실체를 탐구하지 않고, 관념적인 아동관 또는 중심을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것을 상기한다면, 김요섭이 이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시대적 문제를 다루고, 인간의 공통적 내면을 담아내는 즉, 보다 독립적인 가치로 새로움을 확보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렇듯 『날아다니는 코끼리』는 선악 대결구도가 아닌, 어은 대 어린이 대결구도이다. 사막의 대상, 해적 선장, 서커스 단장, 과자회사 선전과장 같은 어른들은 어린이를 인격체가 아닌 물질적인 요소로 보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어른들을 비롯해 현실의 어른들에게 반성하게 하고, 각박한 현실 세계를 벗어나 환상의 공간에서 희망을 보여주고 삶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 『날아다니는 코끼리』의 주제다. 즉 어른과 어린이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라는 것을 말이다. 로크는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백지 같은 존재로 이후 후천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때문에 김요섭의 『날아다니는 코끼리』는 환상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간접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현실의 핍진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 주려고 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문학에 있어서 구성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이는 사회가 다르고 작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요섭은 시대가 변하고 있고 변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날아다니는 코끼리』에서 구현하였다.

3. 일상의 발견과 어린이 세계 탐색- 이영호

아동문학의 교육적 가치는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스스로 깨닫

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동문학의 중심 연구에는 언제나 교육적 가치를 수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를 미성숙한 존재, 즉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어른들이 만든 체제의 규율에 복종하도록 훈육하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이다.¹⁵⁸⁾ 이는 어린이의 고유한 본질을 억압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한다는 점에서 범죄다.¹⁵⁹⁾ 즉, 어린이를 훈육의 대상이 아닌 세계 속의 구성체 일원으로 간주하고 세계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작가는 자기 시대가 다른 시대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렇게 파악된 당대의 모습을 사회의 조건에 맞게 작품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1960년대는 부모들이 아동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교육열이 가중되고, 서양 명작물의 무분별한 번역 출간으로 이어지면서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한국 아동문학의 기틀이 위협 당하던 시기였다. 종전의 병폐는 물론 당대의 병폐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서 이영호는 새로운 아동문학에 고심한다. 이전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현실 인식, 기법과 주제의 획일성 등을 벗어나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아동문학을 정립하려 한다. 이영호는 이전 시기 문학과 결별하고 새로운 아동문학을 확립하기 위해 어린이를 아동문학의 주체로 상정하여 어린이의 세계에 밀착한다. 즉, 문학으로서의 아동문학에 접근하여 아동문학의 본질적 측면을 탐색하면서 1960년대 아동소설의 성과를 거둔 작가라 할 수 있다.

1) 주변부에서 중심부로의 전이

이영호는 196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면서 문단활동을 한다. 당선작인 「토끼」는 다른 작품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들의 심리를 외면한 것과 달리, 아동 심리를 반영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아동문학은 아이들의 생활을 돌아보지 않고 개념이나 사고만으로 작품이 될 수는 없다. 좋은 작품이라면 얼마

158) 송은미, 앞의 논문, 2쪽.

159) 엘렌 케이, 『어린이의 세계』,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26쪽.

만치 아동 생활을 잘 그리며, 얼마만큼 옳은 것을 찾아내어 쓰는가에서 그 작품이 지닌 미의 가치¹⁶⁰⁾가 지워진다. 결국 관념적이거나 어린이의 생활을 외면한 작품은 좋은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토끼」는 주인공 소년이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 이룬 성취감과 책임감, 어미 토끼와 새끼 토끼의 관계를 통해 모성애 등을 깨닫는 과정에서 어린이 심리가 잘 담겨 있는 작품이다. 농촌 아이들의 생활을 묘사하고 아이들이 가져야 할 이상을 찾아내, 이를 작품화한 것이 인상적이다. 이영호는 「토끼」 이후에도 아동의 직접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아동심리를 반영하는 작품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그의 등단 초기 작품은 대개가 투철한 작가 정신과 탄탄한 구조, 강한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 당선과 동시에 펴낸 『배넛소 누렁이』는 첫 창작집이지만 작품 수준이 고른 편이어서 좋은 반응을 얻는다. 작품집의 대부분이 농촌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농촌 어린이의 삶을 조명한 것은 그동안 소외된 어린이에 관심을 가졌다는 데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원수가 쓴 『배넛소 누렁이』 발문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요즈음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작품을 쓰는 분들 가운데서 진실된 생각과 태도로 동화를 쓰며, 특히 농촌 어린이들의 생활을 그리는 일이 많아진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 더구나 도시 어린이들만 상대하여 쓴 동화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농촌에서 자라는 어린 동무들을 상대로 글을 쓴다는 것은 여간 대견한 일이 아닙니다.¹⁶¹⁾

이원수의 글을 보면, 당시 대개의 작품들이 농촌 어린이의 생활보다 도시 어린이의 생활을 소재로 하였다. 그러나 이영호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작가로 본다. 당시 아동문학계 실정은 아동의 실생활과 담을 쌓은 아동문학, 절대 다수 서민층 아동의 고생스런 생활이나

160)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웅진출판, 1984, 165쪽.

161) 이원수, 『배넛소 누렁이』, 발문, 태화출판사, 1966. 본 장에서 다룬 『배넛소 누렁이』는 1966년 발행한 태화출판사 단행본을 중심으로 한다. 이하 쪽수만을 명기하기로 한다. 띄어쓰기와 맞춤법은 원문 그대로 따른다.

농촌 아동의 심정을 그리는 것을 불온하고 비교육적인 문학이라고 모함하려 들면서, 안락한 환경의 아동 생활만이 아동문학의 옳은 소재라고 생각¹⁶²⁾하였다. 이런 연유에서 이원수는 아동의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과 애정으로 아동 세계를 그려야 한다고 하였다. 부유한 가정의 아동보다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서민층, 농촌 아동들의 생활을 그리고 그들의 심정을 그리는 것을 무슨 불온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소수 부유한 아동보다 절대 다수의 농촌과 서민층의 아동의 삶을 많이 그려서 보다 많은 아이들의 삶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영호가 농촌 어린이들의 생활을 주 배경으로 하는 것은 다양한 아이들의 다양한 세계를 제시한 것, 즉 소재의 범위 확장과 어린이 세계 조명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이영호가 이전의 아동소설이 아동의 세계를 외면하고 상업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관념적인 소재에서 변모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과 분리된 삶을 그리는 동화와 달리 현실과 대립하고 갈등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아동소설을 통해 그들의 직접적인 세계를 보여주려는 것이 이영호의 작가관이다. 여기서 첫 창작집의 표제작 「배넛소 누렁이」는 농촌 아이들의 삶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최지훈도 「배넛소 누렁이」는 공모의 당선작인 「토끼」와 「돌팔매」보다 손색이 없으며 오히려 탁월하다고 한다.

「배넛소 누렁이」는 아랫마을 삼영이네 누렁이와 윗마을 덕수네 검둥이의 소싸움 이야기다. 당시 볼거리와 놀거리가 드문 농촌 아이들이 소를 가지고 싸움 시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농촌 아이들의 일상을 담은 것이다. 가난하여 잘 못 먹이는 삼영이네 누렁이가 정미소를 하는 덕수네 소를 이기자 덕수네는 덩치가 더 큰 소를 산다. 삼영이는 덩치 큰 소와 다시 싸워야 하는 누렁이가 불쌍하지만, 싸움은 불가피하다. 다시 붙은 싸움에서도 삼영이네 소가 이긴다. 삼영이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준 누렁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자신의 소로 알고 있었던 누렁이는 배넛소였고

162) 이원수, 앞의 책, 173쪽.

주인이 와서 데리고 가는 것이 중심서사이며, 삼영이의 자존심을 세워 준 누렁이가 원래 주인을 찾아가면서 끝을 맺는다. 우리 사는 세상이 이상이 아닌, 현실인 것처럼 이 작품의 결말은 행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행복한 결말은 아동문학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서 가장 주요한 기준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선입견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행복한 결말에 대한 생각은 문화적, 역사적 상황¹⁶³⁾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이영호는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다 주목하는 이유는, 표면과 달리 이면에 함축하고 있는 세계 양상 때문이다. 표면의 소 싸움이 결국 가난한 집 아이와 부유한 집 아이의 대리 싸움으로 아이들 세계도 어른 세계처럼 경제 논리가 좌우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이영호는 농촌 아이들의 세계를 그리면서 그들의 세계 역시 어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영호는 『배넛소 누렁이』를 비롯해, 초기 작품에서는 농촌 아이들의 삶을 소재로 하여 그들의 일상을 그린다. 『배넛소 누렁이』 이후 물질문명과 전쟁 비판 등을 그리면서 아이들의 삶을 조명한다. 물론 이후 도시 아이들의 삶으로 넘어오지만, 1960년대 등단 초창기 이영호는 농촌 아이들의 삶 조명으로 아동소설의 소재 범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후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사실 이영호는 소설적 문체, 폭넓은 소재, 작가 의식이 투철한 작가의식과 주제 등으로 아동 소설을 문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2) 내면 발견과 일상적 주체

어린이들은 공허한 관념에는 흥미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에 구애받는 어른들을 반성하게 만든다. 사실을 추상화하는 일이 어른들에게는 대단한 놀이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아동문학 작가들은 사물 그 자체에 흥미를 갖

163) 마리아 니콜라예바, 앞의 책, 138쪽.

고,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¹⁶⁴⁾는 즉, 어린이들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영호를 언급할 수 있다. 이영호는 어린이 그들만이 갖고 있는 심리와 세계를 세밀히 들여다보는 작가라 할 수 있다.

「꽃다발」은 전근 가는 선생님을 위해 꽃다발을 만들지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전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아이의 심리 묘사를 눈여겨 볼 수 있다. 길만이는 새로 전근 온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자신의 담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

지난 해 삼월, 김 선생님은 길만이네 학교로 왔습니다. 첫 눈에도, 매양 대하는 길만이네 학교 선생님과과는 뭔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후리후리한 키에 차림도 자못 깔끔해서 사진에서나 가끔 본 그런 멋진 신사처럼 생각되었습니다. (...) 김 선생님은 정말 인사 말까지 여태 들어 본 다른 선생님의 인사말과는 사뭇 다르게 들렸습니다, 조용한 목소리, 정확한 표준말..... 길만이는 대번에 김 선생님이 좋아졌습니다. 길만이는 김 선생님을 담임으로 모실 수 있었으면 하고 은근히 바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뜻밖에도 길만이의 생각대로 김 선생님은 길만이네 담임이 되셨습니다. 길만이는 펴 듯이 기뻐합니다.(9~10쪽)

길만이는 새로 온 선생님이 담임이 되어 기뻐한다. 담임이 된 선생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더욱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운동화를 잃어버린 길만이에게 선생님이 운동화를 사 주기 때문이다. 길만이는 자신의 가난한 형편을 알고 운동화를 사 주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몸이 아파 학교를 그만둔다는 소식에 꽃을 꺾어다 꽃다발을 만든다. 선생님이 떠나는 아침에 늦잠을 자서 꽃다발을 전해 주지 못해 선생님이 타고 떠나는 버스를 보고 울음을 터뜨린다는 내용이다. 산골을 배경으로 하여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는 선생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순박한 어린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순박한 어린이의 모습과 함께 자신보다는 타인을 더 의식하는 주인공의 인물 설정은 어른의 사고에

164) 폴 아자르, 『책 · 어린이 · 어른』, 시공주니어, 1999, 216쪽.

포획시키려는 어른 작가의 시선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날 아침 길만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까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제 들로 산으로 쏘다니느라 고단했던 모양입니다. 잠을 깬 길만이는 부랴 부랴 선생님의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쓴 긴 종이를 화환에 붙여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다던 첫 버스보다 먼저 학교의 앞 정류장에 닿으려면 바쁠 것 같아 안달이 났습니다. 운동화를 졸라매고 혈떡혈떡 달려갑니다. 오늘 아침에사 말고 늦잠을 잔 자신이 마구 꼬집고 싶도록 미워집니다.(17쪽)

선생님께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몸을 추스르지도 않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달려가는 어린이의 모습은 어른이 만든 어린이상일 것이다. 선물이란 반드시 전하지 않아도 그 노력으로도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런데 선물을 전하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운동화 끈을 졸라매고 뛰어 가는 어린 아이의 모습은 어른들이 원하는 어린이상 다름 아니다.

어린이의 욕망을 다룬 작품으로 「연」을 들 수 있다. 진이는 형의 연이 갖고 싶은데, 형은 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연을 주지 않는다. 진이는 그런 형이 미워서, 형이 연 싸움을 할 때 졌으면 한다.

연줄이 풀리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무섭게 뒤엎혔습니다. 진이는 주먹을 꼬옥 쥐었습니다. “형 게 나가버려라. 형이 저러” 진이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진이의 가슴 속은 까달 모르게 두근거렸습니다. (...) "와아- 나갔다 야야아!" 갑자기 아이들의 고함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터져 올랐습니다. 정말 팽팽하게 실렸던 두 연 중의 하나가 바람에 불려서 팔랑거리며 날아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폐 연이 나갔다!" 아이들의 고함 소리에 진이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쓸었습니다. 형이 저 버렸음 하던 좀 전의 자신을 까마득히 잊고 진이는 병글거리며 세차게 손뼉을 쳤습니다.(27~28쪽)

하지만 진이는 형이 연 싸움을 하기 전과 달리 형이 연 싸움에서 이기자 이전의 생각은 잊고 기뻐한다. 이런 모습은 어린이만이 가질 수 있는 심리이다. 순간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아이의 심리를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연을 갖고 싶은 아이의 마음을 잘 드러내면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무작정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한 다음에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숙아와 에루와 선생님과」는 어린이가 동물을 아끼고 사랑(①)하는, 즉 인간과 동물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반면, 어른들은 동물을 몸 보신용으로 보는 것(②)으로 어린이와 어른의 세계관 대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먼저 인용문을 보자.

① 시방 숙아는 에루를 팔겠다고한 엄마가 한 없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 “에루야, 가지마! 가면 죽어! 에-루 가지마!” 숙아는 황급히 소리쳐 에루를 불렀습니다. 에루는 킁킁 거리며 되돌아왔습니다. 숙아는 에루를 꼭 껴안았습니다. 에루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바고 다시 울음을 깨물기 시작했습니다.(43쪽)

② 넌 개란 건 말야, 길러 보면 물론 사랑스럽지, 하지만 그놈은 그렇게 살다 이렇게 죽으란 팔자를 타고 난 동물이야. 돼지, 닭, 염소, 토끼…… 다 그렇잖니?(46쪽)

숙아네는 돈이 없어서 기르던 개를 몸이 안 좋은 선생님께 판다. 팔려가는 개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숙아(①)와 달리 동물의 타고난 팔자는(②)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라는 선생님의 대사에서 어린이와 어른의 세계가 다른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어른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한 에루가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는 “개한 마리를 푹푹히 죽이지 못하고 속을 썩인다고 개를 잡고 속을 썩”(47쪽)인다고 한다. 하지만 숙아는 도망간 에루를 걱정하고 다음날 집 앞에 와서 죽은 에루를 가엾게 여긴다.

에루야, 날 용서해. 어쩔 수 없었어. 넌 착했으니까 천당엘 갔을 테지, 에루야 잘 가 응! 숙아는 가슴에 손을 모으며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숙아의 눈엔 금시 눈물이 맺혀 떨어졌습니다.(50쪽)

숙아를 비롯해 어린이들은 본능적으로 생명이 마음이 끌린다. 그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키워가려 한다. 어린이들은 생명이 마음이 끌렸을 때와 똑같은 충동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의 도덕적 가치나 수백 년에 걸친 경험을 통하여 생명의 최고 보호자임을 입증한 사회적 가치에 이끌려 간다.¹⁶⁵⁾ 힘 없는 동물을 인간과 동일한 생명체를 가진 존재로 여기며 어린이들의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소재로 하여 어린이 심리를 세밀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는 이영호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문학의 본질에 보다 더 근접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문공부 주최 '신인예술상'에 뽑힌 「돌팔매」는 뒷동산에서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던 민구가 상두꾼 소리를 듣고 꽃상여로 향한다. 민구는 꽃상여 앞에 상주(喪酒)인 용제를 보고, 용제 할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현재→과거→현재로 돌아오는 구조다. 민구는 나무지계를 하러 갔다가 용제 할아버지한테 걸려 혼이 나자 용제네 눈에 돌팔매질을 한다. 돌팔매질을 한 그날 밤, 용제는 무서운 꿈을 꾸고 용서를 구하러 가지만 용제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기회를 놓치고 혼자 반성한다는 내용이다. 돌팔매는 발생한 사건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스스로 반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개가 뛰어난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인 「돌팔매」는 제목 그 이상의 기능을 한다는 데서 그러하다. 즉, 자신을 혼낸 상대의 눈에 돌팔매질을 해서 눈을 망치는 것으로서의 돌팔매로 문제를 야기하는 기능과 용서를 해 줄 사람이 죽어 용서를 받을 수 없어서 결국 자신에게 돌팔매질을 하여 스스로를 반성한다는 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영호는 한 작품 내에서 소재와 주제, 제목의 응집으로 문학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짜 고무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외짜 고무신」은 옛이 먹고 싶은 아이가

165) 폴 아자르, 앞의 책, 217쪽.

집에 있는 외짝 고무신을 들고 나가 엿을 사 먹는 이야기이다.

“민원아, 나 좀 줘!” 아이들은 다투어 손을 내밉니다. 민원은 껍 돌아서며 세차게 도래지를 합니다, 손톱 길이 만큼의 엿을 베어 먹고 빈터 한 쪽으로 내뺍니다. 춘포도 일원을 내고 엿을 샀습니다. 옥자도 일원을 내밀었습니다. (...) 쌍수는 혈레벌떡 사립문을 뛰어들며 엄마를 부릅니다. 그러나 집 안에선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엄마-!” 쌍구도 뛰어오며 뺨 고향을 지릅니다.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이웃집으로 나들이 가신 모양입니다. 쌍수는 냇다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 갑니다. 껌껌한 마루 밑 구석에서 할머니의 현 고무신을 찾아 쥐고 기어 나옵니다. “히야-! 있다, 신난다!” 쌍수는 옆이 터진 고무신을 치켜들고 고향을 지르며 후닥닥 사립문 밖으로 달려 나갑니다.(160쪽)

쌍둥이 형제인 쌍수와 쌍구는 아이들이 엿을 사 먹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 고무신을 찾아서 엿을 사 먹는다. 그런데 그 외짝 고무신은 아버지가 만수네 집에서 놀다가 고무신 한 짝을 바꿔 신고 와서 다시 바꾸려고 둔 것이다. 고무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어머니는 쌍수와 쌍구에게 엿 값을 주고 다시 고무신을 찾아오게 한다. 절제가 어려운 어린이들의 먹고 싶은 욕망을 다룬 것으로 어린이의 심리 묘사가 뛰어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외짝 고무신’ 제목은 사건을 만드는 요소이면서 쌍둥이 형제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고무신도 외짝이 아니라 두 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신발인 것처럼, 쌍수, 쌍구 형제도 서로 같이 있어야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들은 먼저, 극히 초보적인 감정이 찾아온다. 함께 있고 싶다는 바람,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배려, 동정, 상냥함, 친근함을 담은 신뢰감, 이들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에 싸여 일찍부터 길러지는 감정¹⁶⁶⁾이다. 이처럼 어린이들은 명

166) 세드에 의하면,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은 이상적인 인문이나, 안전, 행복에 관심을 갖는다. 남들에게 관대하게 해 주기를 바리지만 사실 관대함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들은 용기나 명예심도 갖고 있다. 이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공포나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온 감정들이다. 또 어린이들은 남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므로 성실

쾌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 그들에게는 어두운 쾌락도 타락도 없다. 어린이들은 슬픔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 일부러 고통스러워하며 이를 천천히 즐기는 즐거움 따위는 알지 못한다. 또 묘하게 거드름을 피우며 영혼의 불안을 자랑스럽게 내보이거나 각자의 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해 가는지 가만히 엿보거나 여러 갈래로 뻗은 생활 감정을 선악의 문제 이상으로 성가시게 캐고 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¹⁶⁷⁾ 이 영호는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욕망, 즉 사랑받고 싶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절제가 불가능한 물질적 욕망 등을 포착하여 그들의 세계를 묘사하면서 중층적 주제 의식을 내재하고 있다.

3) 주제의 중층성과 미학 탐색

다음에서 살필 작품들은 표면적인 주제와 이면의 주제를 중층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재구와 방학책」이다. 이 작품은 개학날 학교에 가야 하는 재구가 방학책이 없어서 속상해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시, 아버지는 무식쟁이. 시, 방학책도 모르고, 선생님한테 뭐라쿠노, 선생님한테 매 대기 맞을 끼다, 시.” 재구는 고개를 푹숙이고 느릿느릿 걸음을 떼어 놓으면서 연방 중얼거립니다. 생각할수록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집니다.(19쪽)

재구는 아버지가 방학책을 방바닥에 발랐기 때문에 책을 가져가지 못해서 선생님께 혼날 것을 예상하고 학교에 간다. 하지만 재구의 생각과 달리 선생님은 재구의 사연을 듣고 혼내지 않는다. 방학책을 못 가져 온 것은 전적으로 재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작가가 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친구 사이에 있을 법한 질투를 중심으로 한 인물간의 갈등이다.

함이나 희생정신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가족에 대한 감정은 그들의 이기심과 부모를 공경하는 감정을 지닌다. 그밖에 자유에 대한 사랑을 품게 도니다. 이런 감정들은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이 강하게 느끼는 것들이다. 셰드, 「어린이의 문학적 감각의 발달」, 『책·어린이·어른』에서 재인용, 217쪽.
167) 폴 아자르, 위의 책, 216쪽.

① 재구야 같이 안 갈래! 그래도 발끝만 보고 건습니다. 인수 녀석은 딱 싫습니다. 아버지가 반장이라고 뽐내는 것도 싫고, 형이 사왔다는 공을 가지고 괜히 으스대는 것도 싫습니다. 하지만 제일 미운 때는 공을 튀긴다고 책보를 맡길 때입니다. 힘이 좀 세다고 제 멋대로 겁니다.(20쪽)

② “니, 방학책이 없어서 우짤기고? 잉” “선생님한테 세기 맞을끼다이.” 인수는 또 그 소릴 꺼냈습니다. 별일이다 했더니 책보를 들리는 것보다 그렇게 놀리는 것이 더 신나서 그랬는가 봅니다. 목구멍에서 뭐가 치밀어 오릅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다뭍니다. “방학책은 방바닥에 붙어 있심더 글개라.” 인수는 계속 야발댁니다. 재구는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합니다.(20~21쪽)

재구는 아버지, 형, 자신의 ①힘을 과시하는 인수가 싫다. 자신보다 여러가지로 유리한 환경에 있는 인수와 친할 수 없고, 자신을 얹잡아 보는 태도②를 용납할 수 없다. 인수보다 힘이 약한 재구는 인수의 행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인수의 행동은 선생님이 방학책을 검사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왜 안 가져 왔어?” (...) “재구 저거 아버지가 방학책으로 방을 안 발랐습니꺼.” 인수 목소리가 뒤에서 크게 울려왔습니다. “흐흫 으앙앙.....” 기어 이 재구는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선생님은 눈을 휘둥굴 뜨셨습니다. (...) “울지 말고 말을 해야 알지. 왜 방학책으로 방을 바르셨니 응?” (...) “재구 아버지는 글을 모릅니더. 그래서 고마 모르고 못 쓰는 책인 줄 알고 그랬다 쿵디더.” 역시 인수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높아졌습니다. 재구의 울음 소리는 반 동무의 웃음소리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 “왜 진작 말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음 할 수 없잖니?” (...) “들어가서 앉아요. 괜찮아.” 재구는 다른 애들처럼 선생님의 알밤을 먹지 않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잘못해서 실컷 얻어맞았을 때보다 더 서럽고 분해서 오래오래 훌쩍거리야 했습니다.(23~24쪽)

선생님이 재구에게 방학책에 대해 물을 때도 인수가 대답한다. 인수의 대답으로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고 재구는 결국 선생님께 맞지 않았는데도 울음을 터뜨린다. 여기서 재구의 울음은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다. 글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자신의 아버지를 놀리는 아이들의 웃음에 대한 분노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약하다고 놀리는 인수의 행동을 선생님이 이해하고 자신을 혼내지 않은 선생님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인수의 행동은 글을 모르는 재구 아버지를 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많은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재구를 배려하는 선생님 덕분에 재구는 서러움을 눈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이영호의 사상을 엿 볼 수 있다. 아동 문학에서 깊이는 사상의 형상화이다. 이때 사상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방식의 문제이며, 이것이 얼마나 세밀하게 형상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작가가 아무리 정열적으로 말하더라도 그것이 인간과 깊이 관련된 문제로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 또는 개인의 내적 갈등을 통해 그려지지 않는다면 작가 한 사람의 정의감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 버린다.¹⁶⁸⁾ 이런 점에서 이영호는 한 작품에서 중층적인 주제를 담으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개인의 내적 갈등을 내포하면서 작가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재구와 방학책」 처럼 재구와 아버지의 갈등, 재구와 인수의 갈등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주제 의식을 담고 있지만, 그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보다 중점을 둔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방식에 염두를 두면서 작품을 극대화하고 있다.

문학 작품이 우리 사는 인생의 이야기이듯, 이영호는 짧은 단편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토끼 당번 날」은 기쁨→ 슬픔→ 애로→ 기쁨이라는 구도로 희로

168) 우에노 료, 『현대 어린이 문학』, 사계절, 2003, 198쪽. 저자는 어린이 문학의 넓이와 깊이에 대해서 말한다. 넓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 문학을 만들어 내는 신비한 세계, 이상한 세계를 판타지, 어린이의 일상 세계를 묘사하고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과 있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현실 세계, 일상적 세계를 뒤집어 이상한 세계를 만들어 내고 인간이나 세계가 이상해 질 수 있다는 형태로 인간 속에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을 난센스로 보았다. 그리고 깊이는 사상의 형상화라고 하며, 이는 작가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방식의 문제로 보고 아무리 자유로운 어린이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생동감 있는 형태를 갖지 못한다면 관념의 전달이나 포교로 끝나 버리는 것이므로, 어린이가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세계를 그려야 하며 인간과 깊이 관련된 문제를 그려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애락을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의 전개 양상을 서사 연쇄로 드러내면 다음과 같다.

- S1 용구와 민수는 학교에서 토끼 당번을 한다.
- S2 토끼들이 풀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 S3 더 많은 토끼풀을 뜯으러 비봉산에 간다.
- S4 토끼 먹이를 구하고 민수는 일선에 있는 형을 생각한다.
- S5 민수가 일선에 있는 형에게 가 보고 싶다고 하자, 용구는 시무룩해진다.
- S6 민수는 용구의 형이 월남에 가서 죽은 것을 떠올리고 용구를 위로한다.
- S7 민수는 용구의 아픔을 떨쳐 버리게 하려고 돌팔매 놀이를 하자고 한다.
- S8 아래로 던진 돌에 사람이 맞아 소리를 지른다.
- S9 돌에 맞은 사람의 아들이 와서 돌을 혼낸다.
- S10 돌에 맞은 사람이 와서 용서 해준다.
- S11 두 사람은 위기를 모면하고 학교로 돌아온다.

민수와 용구 두 인물이 학교를 벗어나 세계를 경험으로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설정으로 성장 소설의 구도를 띠고 있다. 토끼에게 먹이를 주면서 행복해 하는 것이 기쁨이라면, 친구 형의 죽음을 같이 슬퍼하는 것이 슬픔, 돌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맞혀 위기에 처한 것이 애로, 위기를 모면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기쁨의 구도를 갖고 있다. 친구간의 우정을 그리는 것이면서 아동들이 직접 부딪치고 있는 사회 현실이나 혹은 상상력에 의해 그들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고¹⁶⁹⁾ 있다.

「점박이와 참외 서리」는 6·25 전쟁이 지난 후, 전쟁 당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는 작품이다. 용아 아버지는 점박이가 일을 잘 한다고 좋아한다. 하지만 용아는 다른 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돌아다니는 점박이가 싫다. 그런 점박이를 소먹이 하러 갔다가 없어서 밤나뭇골에 들어간다. 용아는 밤나뭇골에서 6·25 전쟁 당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 널브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점박이를 찾아 데리고 나온다. 이 작품은 소먹이를 하는 아이와 잃어버린 소를 찾는 에피소드

169) 이상현, 앞의 책, 85쪽.

로 보인다. 그러나 점박이를 통해 잊고 있던 6·25전쟁의 참혹함을 떠올리는 계기가 된다.

용아네가 소를 먹고 있는 밤나뭇골은 모태산 줄기에 있다. 모태산은 6·25때 괴뢰군 고지였다. 마주 앉아 있는 삼봉산은 미군이 진을 치고 있던 고지다. 삼봉산을 빼앗기면 마산까지 위태로운 판국이라 국군과 미군은 끝까지 삼봉산을 지켜내노라 어찌나 치열하게 싸웠던지 용아네가 피란에서 돌아와 보니 잿더미가 된 산 아랫마을까지 시체가 널려 있었다. 모태산은 온통 시체가 깔려 있고, 몇 천 개나 되는 지뢰가 묻혀 있는 삼봉산은 반이나 썩은 시체가 수없이 덩굴어져 있는 건 죄 괴뢰군의 시체였다. 밤나뭇골은 유독 더했다. 시체가 차곡차곡 쌓이듯 했다. (...) 아이들 몇과 같이 시체를 묻으러 나온 어른들을 따라 멧모르고 놀러왔던 용아는 그 많은 시체를 보고 어찌나 질겁했는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앓는 소리했다. 시체가 묻힌 자리엔 몇 해가 지난 지금도 시꺼먼 잡초가 무성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밤나뭇골이라 마을 아이들은 아무도 그 쪽으로 소 먹이러 가지 않았다.(76 쪽)

6·25 전쟁 당시 참혹함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6·25를 잊고 사는 당대인들에게 참혹함을 상기하면서 전쟁의 비극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수 없이 덩굴어져 있는 괴뢰군의 시체이다. 전쟁은 쌍방간의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다. 즉 국군과 미군의 시체는 없고 괴뢰군의 시체만 널브러졌다는 묘사는 작가의 인간애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60년대 중반에 발표된 것인데, 전쟁과 어느 정도 시간적 거리를 두면서 6·25에 대해 좀더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6·25를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가령 용아가 점박이를 찾아서 나오는 길에 돌맹이에 채여 쓰러지고 덩굴 가시에 긁히는 등 갖은 고통을 겪는 것 역시 6·25를 잊고 사는 인물들에 대한 채찍인 것이다. 이전 시대의 참혹함을 잊고 외면하고 사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6·25의 폐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용아가 6·25

의 참혹함을 눈으로 보고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것에 고마움을 표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점박이야, 아깐 잘못했어. 너 아니었음 오늘 나도 재네들 하고 싸여서 큰일을 저질렀을 지도 몰라. 그런 걸 모르고 난 너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80쪽)

점박이를 찾으러 갔던 용아는 다른 아이들이 참외 서리를 하다가 걸려 혼이 나는 것을 보고 점박이를 미워했던 것을 뉘우친다. 하지만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점박이와 참외 서리에 얽힌 에피소드와 달리 그 이면에는 6·25를 좀더 객관적으로 생각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듯 이영호는 한 작품에서 표면의 가벼운 주제와 그 이면에 무게감 있는 주제를 녹이는 전략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주제는 작품 속에 내재한 작가의 정신이며 혼이다. 작품의 중심 사상이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아동소설은 동화의 독자와 달리 보다 높은 연령을 상정한다. 아동소설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교육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밝고 건강한 정신과 삶의 슬기를 상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¹⁷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점박이와 참외 서리」는 6·25라는 무거운 주제를 어린이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재미를 장치하면서 교육적으로 접근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영호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다룬다. 농촌 어린이들의 생활을 주 배경으로 소외된 아이들의 다양한 세계와 삶을 제시하는 등 소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전의 아동문학은 어린이의 실생활과 거리를 둔 소재로 안락한 환경의 어린이를 그리거나 그들의 세계를 외면하고 상업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관념적인 소재에 주력하였다. 이는 어린이를 세계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미숙한 존재로 인식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아동

170) 이상현, 위의 책, 89쪽.

소설은 동화와는 달리 현실의 직접적인 문제, 가령 인간의 문제, 사회의 문제 등을 탐구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현실과 대립하고 갈등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그들의 직접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동소설이며 여기에 이영호를 거론하게 된다.

물론 「꽃다발」의 주인공처럼 자신보다 타인을 더 배려하는 즉, 선생님께 선물을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추스르지도 않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어린이를 어른의 사고에 포획하려는 작가의 시선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숙아와 에루와 선생님과」처럼 힘없는 동물을 인간과 동일한 생명체를 가진 존재로 여기며 어린이들의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소재로 하여 어린이의 심리를 세밀하게 포착하는 것이 이영호의 특징이다. 이는 이영호가 어린이를 주 독자로 하는 아동문학의 본질에 보다 더 근접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욕망, 즉 사랑받고 싶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물질적인 욕망 등 어린이들의 심리를 예리하게 간파하여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세계 혹은 필요한 세계를 구현하는 작가이다.

여기서 이영호의 사상을 엿 볼 수 있다. 아동 문학에서 깊이는 사상의 형상화이다. 이때 사상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방식의 문제이며, 이것이 얼마나 세밀하게 형상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작가가 아무리 정열적으로 말하더라도 그것이 인간과 깊이 관련된 문제로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 또는 개인의 내적 갈등을 통해 그려지지 않는다면 작가 한 사람의 정의감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 버린다.¹⁷¹⁾ 이런 점에서 이영호는 한 작품에서 중층적인 주제를 담

171) 우에노 료, 앞의 책, 198쪽. 저자는 어린이 문학의 넓이와 깊이에 대해서 말한다. 넓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 문학을 만들어 내는 신비한 세계, 이상한 세계를 판타지, 어린이의 일상 세계를 묘사하고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과 있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현실 세계, 일상적 세계를 뒤집어 이상한 세계를 만들어 내고 인간이나 세계가 이상해 질 수 있다는 형태로 인간 속에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을 난센스로 보았다. 그리고 깊이는 사상의 형상화라고 하며, 이는 작가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방식의 문제로 보고 아무리 자유로운 어린이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생동감 있는 형태를 갖지 못한다면 관념의 전달이나 포교로 끝나 버리는 것이므로, 어린이가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세계를 그려야 하며 인간과 깊이 관련된 문제를 그려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으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개인의 내적 갈등을 내포하면서 작가의 사상을 드러내 아동들이 직접 부딪치고 있는 사회 현실이나 혹은 상상력에 의해 그들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고¹⁷²⁾있다.

아동소설은 동화의 독자와 달리 보다 높은 연령을 상정하지만, 어린이 독자라는 점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설정과 그에 따른 묘사가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묘사력에 의해 좌우되는데, 묘사력은 어린이의 심리, 생활 등 어린이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고 예리한 관찰에 의해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의 심리와 세계를 예리하게 포착하여 다양하게 구현한 이영호의 아동소설은 당대는 물론 이후 1970년대 아동소설이 변모하는 데 일정정도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172) 이상현, 앞의 책, 85쪽.

IV. 1960년대 아동문학의 문학사적 의미

1960년대 아동문학은 이전 시기의 문학과 결별하면서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다 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1950년대 아동문학은 6.25 전쟁의 체험으로부터 자유롭 지 못하여, 참담하고 우울한 현실에 대한 기록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 이었다. 그래서 작품에서는 무엇보다 전쟁을 통해 형성된 피해 의식과 참상이 주로 그려졌고, 한편으로는 전쟁의 비극을 치유하고자 하는 휴머니즘이 중요한 주제로 제 시되었다. 말하자면, 인간의 살육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역으로 어린이의 고유성에 대하여 살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주제와 내용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 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야 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인간애를 베풀 어야 한다는 것은, 그 주제의 진실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추상적인 연민과 동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막연한 동정과 연민, 온정의 시선은 고통의 원인에 대한 천착을 전제하지 않으면 추상적 담론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1960년대 아동문학은 이런 추상성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4·19와 더불어 자유당 독 재가 붕괴되고, 5·16으로 인한 군사 정부의 출현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었 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상대적인 안정과 여유가 생기면서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 로 바라보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게다가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작가들을 배출하는 신춘문예 등의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1960년대에는 많 은 작가들이 출현해서 왕성하게 작품을 발표한다.

1960년대 아동문학의 문학사적 의미는 이들 작가들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1960년대에 활동한 작가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등단 시기를 기준 으로, 해방 이전부터 활동을 하던 이른바 구(舊)세대, 해방 후에 등장한 세대, 그리 고 1960년대에 등단한 세대로 나누어진다. 구세대는 일제강점기를 몸소 겪었고 또 해방과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작품 활동을 해온 세대이다. 이들은 해방과 함께 남

과 북이 나누어지고, 일부 좌익 계열의 작가들이 월북하는 과정을 몸소 겪으면서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기존의 문학적 특성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변화된 현실에 적극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원수는 그런 구세대를 대표하는 작가이다. 그는 식민지 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과 전후의 현실을 소화하면서 사실주의적인 창작방법으로 아동 현실을 문제 삼았다. 이원수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세대가 1960년대 들어 어떠한 문제의식과 방법으로 작품 활동을 했는가를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요섭은 해방 후에 등장한 세대를 대표한다. 김요섭은 전쟁과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참상을 몸소 체험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기에, 아동문학에서는 그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자 하였다. 장차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로서 아동은 순수한 꿈과 희망 속에서 성장해야지 성인들의 추악한 갈등과 싸움 속에서 성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갖는 꿈과 환상을 주된 소재로 활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김요섭은 해방기에 등단한 작가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며, 1960년대 아동문단의 독특한 경향의 하나를 대표하게 된다.

이영호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에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전쟁이라든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그는 아동들의 실제 생활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갖는 기쁨과 슬픔, 고통과 갈등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일상 현실에서 부딪히는 섬세한 심리적 갈등과 내면의 흐름 등이 그가 주목한 아동의 주요한 현실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원수나 김요섭과 구별되는 1960년대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작가의 한 사람이다.

1960년대 아동문학은 이들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 그 의미가 만들어진다.

첫째로 아동문학은 어린이와 관련된 문학이라는 사실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아동문학의 관련 양상은 어린이에 의한 문학, 어린이에 대한 문학, 그리고 어린

이를 위한 문학으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문학으로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의 결과물이다. 1960년대 아동문학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기울인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문학의 독자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어린이의 세계를 들춰내고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동문학의 본질을 적실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자가 누구인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아동문학의 주체인 ‘어린이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어린이나 아동기를 생각하면서 독자를 규정짓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대신 문학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때문에 아동문학은 ‘어린이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가’를 문제 삼아야 한다.¹⁷³⁾ 따라서 1960년대 아동문학은 어린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아동문학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원수는 어린이를 세계의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세계를 대면하게 하였으며, 김요섭은 어린이공화국이라는 유토피아 공간으로 어린이 중심 세상을, 이영호는 어린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욕망을 탐색하였다.

둘째로는 아동 현실의 수용과 형상화를 들 수 있다. 이원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대 아동 작가들은 추상과 보편적 휴머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과 삶을 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수용하였다. 전쟁은 분열과 증오, 살육과 고통, 죽음과 굶주림, 덧붙여 가족과의 생이별, 고달픈 피난살이 등 구체적 일상이 이원수 작품에 나타난다. 전쟁으로부터 거리감을 갖고 이제 그 현실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메아리 소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 이후 온갖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했다는 것, 비극을 초래한 책임을 누구에게 추궁할 수도 없다는 것, 그 참혹한 결과만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 등은 이전 시기의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1960년대의 구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은 또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아동문학적 수용을 통해서 한층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문학이 이데올로기를 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흔히 문학과 정치와의 관

173) 페리 노들먼,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1, 시공주니어, 2002, 53쪽.

계로 확대됨으로 해서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쉽게 외면되거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야기한 슬한 논쟁이 문학을 둘러싼 다른 사안들과는 달리 가장 첨예한 대립 양상을 드러낸 것에서 보듯,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제는 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즉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는 문학 형상화의 좋고 나쁨 그리고 새로운 문체와 기법의 성공 여부 등의 여러 사소한 문제들을 아우르는 큰 문제로서 결국 문학의 본질과 효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이원수의 『메아리 소년』은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관계에서 문학의 본질과 효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전의 전쟁 혹은 전후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전쟁 상황에서 사상적 무기로서 아동소설을 창작하였던 만큼 어린이의 개별성이나 아동문학의 고유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며, 북한과 남한을 선과 악으로 규정하는 양가치적 사고를 바탕으로 북한군을 타도의 대상으로만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원수는 전쟁의 참상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나 인간 생명의 소중함과 대립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실의 수용은 궁극적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과 비판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현실을 고발하는 비판적 지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일상생활의 바탕에 놓여 있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과 비판을 적극적으로 감행한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4·19로 초래된 당대적 변화가 작용한다. 1960년대 초반 이원수와 윤석중은 아동문학의 경시와 부진에 대한 문제를 반성하며 아동문학관의 올바른 정립과 문단의 재정비, 평론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아동문단 정비를 통해서 작가들은 이제 이전과는 달리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형상화하는 등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셋째로는 순수 동심과 예술적 기교의 추구를 들 수 있다. 아동문학은 단순한 계몽과 지식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문학의 한 갈래라는 점, 따라서 문학성과 예술성을 본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자각이 1960년대 아동문학에서 본격화된다. 이원수의 리얼리즘적 추구하고 성취, 김요섭의 환상과 동심의 추구, 이영호의 심리주의와 의식

의 천착 등은 그런 기교적 다원화와 성숙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여기서 김요섭은 『날아다니는 코끼리』를 통해서 아동문학에서 어린이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어린이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보여주었다. 스케일이 큰 환상동화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면서 아동문학의 지형을 넓히고 판타지 세계의 기초를 다져놓은 것이다. 하지만 장편 판타지 세계인 ‘어린이 공화국’과 ‘얼음과자의 나라’는 완벽하지 않고 미숙한 부분이 적지 않다. 작품상에서 완벽한 다른 세계를 구축하지는 못하고,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한 허구의 비논리와 황당하고 치밀하지 못한 구성은 취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환상적 창작 기법의 도입은 이후 아동문학의 분화와 질적인 성숙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영호는 아동소설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깊이 고심하였다. 아동문학은 어른이 쓰고 어린이가 독자라는 점에서 어른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린이상을 반영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아동문학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이전의 아동문학 작품은 어린이의 세계와는 괴리가 심했다. 하지만 이영호는 아동문학의 주체를 어린이에 두고 그들의 세계와 보다 밀착된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런 사실을 전제로 이영호는 아동의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하는 한층 성숙한 기법을 보여주었다.

1960년대 아동문학에서 보이는 이러한 성취는 언급한 대로 1962년에 창간된 『아동문학』지의 역할과, 신춘문예 제도의 활성화에 힘입은 바 크다. 『아동문학』지는 최초의 아동문학 이론 연구지라는 점에서 당대 아동문학 평론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본격적인 아동문학의 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당대의 안이한 창작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전기를 제공해 주었다. 아동문학은 단순한 계몽의 도구가 아니라 본격문학이라는 자각을 심어준 것은 이 잡지의 중요한 공적이다. 또한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신춘문예는,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부활되어 1960년대 들어서 많은 수의 신인들을 등단시켰다. 1960년대 아동문단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작가 군단의 상당수는 신춘문예 출신들로 이들은 다양한 실험의식과 주제 의식, 기법 창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새로운 기법과 정신을 바탕으로 이들은 1960년대 아동문학을 풍성하게 했고, 또 질적으로 한 단계 성숙시켰다.

마지막으로, 아동문학에 대한 일반 문학과 동일한 차원의 인식과 수용을 들 수 있다. 사실 아동문학은 성인 문학과 많은 형상들을 공유한다. 현실 세계 반영, 이데올로기적 가치 전달, 정신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아동문학은 어린이의 성장 시기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인 문학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문학을 일반 문학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는 교육 담론의 일환으로 탄생한 아동문학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어린이에게 교육시켜야 할 사회적 가치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아동문학은 문학성보다는 교훈이나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린이 만들기와 가치관 주입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와서 아동문학을 문학적 차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리얼리즘의 측면에서 아동소설을 창작한 이원수와 환상의 기법을 도입해서 창작 방법을 심화시킨 김요섭, 섬세한 심리를 포착해서 작품의 미학을 성숙시킨 이영호 등은 모두 그런 의식을 갖고 작품을 창작하였다. 여기다가 신춘문예나 잡지를 통해서 등단한 신인들은 아동문학은 본격 문학으로 자각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아동문학 창작의 시대를 열어 놓는다. 1960년대는 아동문학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아동문학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한층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여준 시기이다. 아동문화 운동이 아닌 문학으로서의 접근을 통해 다양한 실험적 시도와 주제 의식 형상화 등으로 아동문학의 본질을 인식하는 계기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아동문학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아동문학사의 측면에서 볼 때, 1960년대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기울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아동문학의 독자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어린이의 세계를 들춰내고 조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동문학의 독자는 어린이라는 점 등에 대한 자각을 보인 것은 그런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1960년대 아동문학은 어린이의 생활과 심리, 꿈과 환상을 형상화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과 다름없는 본격적인 아동문학의 시대를 연 것이다.

V. 결 론

이 논문은 1960년대 아동문학의 분화 양상과 위상을 연구하였다. 1960년대 발표된 아동소설을 중심으로 작가 의식과 상상력이 작품에 투영된 점을 고찰하여, 1960년대 아동문학의 분화와 위상을 정립하였다. 1960년대 아동문학계는 4·19와 5·16의 변혁이 수용되면서 자학과 반성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당시의 사회 문화 및 구조가 전후의 혼란과 결별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의 모순이 점차 심화되고 변모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전 시대 문학과는 다른 변별성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I장에서는 1960년대 사회와 아동문단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1절에서는 문학과 사회의 상호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1960년대 사회와 아동문단의 동향을 살폈다. 1960년대 아동문단 역시 4·19와 5·16의 영향으로 새로움을 갈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60년대 초반 이원수는 아동문학이 성인문학에 비해 부진하고 경시되어 온 원인을 아동문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아동문학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릇된 정의와 판단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아동문학관의 올바른 정립과 아동문학가의 정화 모색하였다. 윤석중 역시 이전 작가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작품 활동한 것을 반성하며 문단의 재정비와 작가의 역량 평가를 위해 평론가의 필요성을 들었다. 이렇듯 1960년대 아동문단은 이전과 달리 아동문학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절에서는 출판 매체의 존재 방식이 고립된 산업이 아니라 사회구성체의 여러 구조와 역동적으로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1960년대 사회변화와 출판시장을 결부시켜 살폈다. 이러한 전제는 1960년대 전집/선집 붐이 성행한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출판도 하나의 문화 사업이기에 사회적 환경과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지만

어린이들이 교육 받는 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도서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집/선집 도서의 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1960년대 전집 붐은 사회적 요구를 기반으로 출판되었기에 상업적인 요소를 안고 있지만 한국아동문학전집(선집)의 출판 등을 하여 한국아동문학사를 정리한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1960년대 출판문화는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동시에 내재한 사회문화현상으로 보인다.

3절에서는 최초의 아동문학 비평 전문지인 『아동문학』 지의 창간 배경과 특성, 의의를 살폈다. 1962년 창간된 『아동문학』 지는 아동문학을 문학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비정기적으로 간행된 『아동문학』 지는 아동문학의 위상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후반에 종간되었다. 하지만 최초의 아동문학 이론 연구를 중심으로 한 『아동문학』 지는 평론문학을 형성하면서 본격문학을 실현시킨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으며, 작가의 자세의 안이한 문단 풍토를 개선시켰다는 점 등을 의의로 내세울 수 있다. 이후 아동문학 비평의 가능성으로 어느 정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4절에서는 1960년대 발행된 중앙지의 신춘문예를 살폈다.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신춘문예는, 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부활되어 60년대에는 등단 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 아동문단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작가 군단 역시 신춘문예 출신들로 이들은 다양한 실험의식과 주제 의식, 아동 세계 확대 등 기성 작가와는 다른 점을 모색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Ⅲ장은 이 논문의 중심 텍스트 분석으로 1960년대 작가의 작품을 살폈다. 특히 1960년대 작가는 다양한 창작 방식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시기로 기성 작가인 이원수와 김요섭, 신인 작가인 이영호의 작품을 함께 살폈다. 그 결과 1960년대 동화·아동소설은 비문학적 저속성을 탈피하려는 의식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사회와 어린이, 어린이와 사회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었다. 이원수의 경우는 1950년대 쓰인 여타의 전후소설과는 달리 6·25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두면서 객관적인 시선을 확보하였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대상을 바

라보는 시선의 문제를 객관화 시켜 볼 수 있는 문제로 연결지을 수 있다. 그리고 김요섭은 아동문학에 있어서 어린이가 중심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어린이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로 이동한다. 환상적 창작 기법은 작품의 질을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다양한 시험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들 수 있다. 신춘문에 출신인 이영호는 기성 작가들과 달리 아동소설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작품의 소재 대개가 어린이들의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것을 취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는 기성 작가들이 아동소설을 쓰면서 어른의 시선과 관점으로 어린이를 훈육시키려는 것과 달리 이영호는 어린이 그들의 세계를 밀착하여 그들의 심리를 세밀히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IV장은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토대로 1960년대 아동문학의 문학사적 의미를 정리하였다. 1960년대 아동문학은 격동과 혼란으로 서막을 열지만 아동문단의 각성과 변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들 수 있다. 이전의 아동문학이 문화운동 차원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면 1960년대 아동문학은 문학이라는 점에서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여건과 맞물려 아동문단이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이원수, 김요섭, 이영호 등의 작가는 전통적인 기법과 실험 의식,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1960년대 아동문학을 형성한다. 이들의 다양한 모색은 이후 아동문학의 연속과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은 시대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화의 한 형태이다. 그 시대와 사회 현상을 본질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문화 매체이기에, 문학에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당대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아동소설은 사회와 어린이, 어린이와 사회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시대를 읽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1960년대 아동문학 조명은 당대의 특징과 문단사적 의의를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지금껏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1960년대 아동문학의 의미를 보다 본격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이후 한국 아동문학사의 연속성까지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 김요섭, 『날아다니는 코끼리』, 현암사, 1968.
이영호, 『배냇소 누렁이』, 태화출판사, 1966.
이원수, 『메아리 소년』, 새벗문고, 1968.
이원수, 『메아리 소년』, 창비, 2002.
『아동문학』 지, 배영사, 1집~12집.

2. 평문 및 논문

- 강진호,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2년 11월호.
구인환, 「작가정신과 현실」, 『관악어문연구』, 1978.
구수경, 「1950년대 전후소설의 서사기법 연구」, 『국어국문학』, 2004.
권국명, 「문학과 이데올로기」, 『동서문학』, 1988.
권오현, 「1960년대 소설의 현실변형 방법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1997.
권용철, 「김요섭 동화론」, 『아동문학평론』 1982, 여름.
김광수, 「한국 전쟁소설 주인공의 특성과 그 구조적 특성」, 『한국문학연구』 5집
동국대한국연구소, 1982.
김교봉, 「전후소설의 현대적 성격」, 『국어국문학연구』 25집, 국어국문학회,
1997.

- 김명인, 「이원수의 해방기 동시에 관하여」, 『한국학연구』 1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 김명희, 「한국동화의 환상성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논문, 2000.
- 김상욱, 「소박한 그러나 소중한-이원수의 아동문학론」, 『어린이문학』 30호, 한국어린이문학협회, 1999.
- 김상욱, 「정치적 상상력과 예술적 상상력-이원수의 숲속나라연구」, 『청람어문학』 28호, 청람어문학회, 2004.
- 김용희, 「한국창작동화 형성 과정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08.
- 김윤식, 성민엽, 『신동아』 1986. 6월.
- 김영일, 「이원수 동시의 발화 구조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1994.
- 김영희, 「한국창작동화의 팬터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77.
- 김원석, 「한국 창작동화에서의 현실과 환상의 변용연구」, 수원대학교 석사논문, 1996.
- 김은숙, 「창작동화에 있어서 환상의 미적기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4.
- 김종현, 「해방기 이원수 동시 연구」, 『우리말글』 25집, 우리말글 학회, 2002.
- 김태현,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연금포럼』 2010 봄.
- 김현숙, 「환상 문학 일 세대의 환상 탐구 여정과 그 의미」, 『아동문학평론』 1997, 겨울.
- 김현숙, 「현대 아동문학의 팬터지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0.
- 박미경, 「사회변화가 한국 출판현상에 미친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7.
- 박상재, 「한국창작동화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1997.
- 박신현, 「한국전후소설의 속죄의식 연구」, 『어문학』 64집, 한국어문학회, 1998.
- 박은정, 「김요섭 동화의 환상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6.

- 박종순, 「이원수 문학의 리얼리즘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논문, 2009.
- 박태일, 「이원수 부왜문학 연구」, 『배달말』 32호, 배달말글학회, 2003.
- 박태일, 「나라없는 시기 후기 이원수의 아동문학」, 『어문논총』 47호, 한국문학
어문학회, 2007.
- 선안나, 「1950년대 동화 아동소설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6.
- 성현주, 「한국현대 동화의 나르시즘 양상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논문, 2007.
- 손향숙, 「영국 아동문학과 어린이 개념의 구성」,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4.
- 신종곤, 「1950년대 전후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굴절 양상」, 『현대소설연
구』 16호, 2002.
- 안남일,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문단 콤플렉스의 고착 양상연구」, 『우리어문
연구』, 우리언문학회, 2002.
- 오경호, 「한국아동전집출판의 통시적 연구」, 『92 출판학 연구』, 범우사, 1992.
- 오길주, 「한국 동화 문학의 현실 인식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2004.
- 오판진, 「이원수의 메아리 소년에 나타난 통일지향성」, 『문학교육학』 10호, 역
락, 2002.
- 윤석중, 「兒童文學의 止揚性」, 『동아일보』, 1960. 8. 18.
- 이균상, 「이원수 소년소설의 현실 수용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 석사
논문, 1997.
- 이오덕, 「동요를 살리는 길」, 『어린이문학』 30호, 한국어린이문학협회, 1999.
- 이원수, 「1960年度 兒童文學 自由民主的인 文學에의 努力」, 『경향신문』, 60.
12. 22.
- 이원수, 「兒童文學의 當面課題」, 『경향신문』, 1961. 1. 30.
- 이재철, 「이원수의 문학세계」, 『아동문학평론』 18호, 아동문학평론사, 1981.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 연구사 시론-석 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
학논집』 17집, 2000.

- 이재철, 「빛과 환상의 시인, 동화작가를 보내며」, 『아동문학평론』, 아동문학평론사, 1997, 겨울.
- 이재철, 「이원수 선생의 일제 말기 문단활동」, 『아동문학평론』, 아동문학평론사, 2003.
- 이혜수 「김요섭 동화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7.
- 임영봉, 「1960년대 한국문학비평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9.
- 임정순, 「김요섭 동화의 세계 인식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5.
- 정진희, 「이원수 소년소설 잔디 숲 속의 이쁜이 연구」, 『한국언어문화』 23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 전지선, 「김요섭 동화론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전홍남, 「분단소설에 나타난 아버지찾기 모티프와 그 문학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42집, 1999.
- 조구호, 「분단의 갈등과 화해의 논리」, 『한국언어문학』, 한국어문학회, 2007.
- 조남현, 「한국문학에 나타난 4·19혁명」, 『한국논단』 4월호, 1998.
- 조은숙, 「한국아동문학의 형성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5.
- 중춘수, 「이원수 동화·소녀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1993.
- 한상수, 「김요섭 동화론고」, 『한국아동문학 작가 작품론』, 집문당, 1991.
- 한영옥, 「김요섭 시의 상상력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6집, 한국문예비평학회, 2008.
- 한정호, 「광복기 경남 부산지역 아동문학연구-남대우, 이원수, 김원룡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론집』 40집, 한국문학회, 2005.
- 홍정선, 「4·19와 한국 문학의 방향」, 『해방 50년과 현대문학의 전개』, 1995.
- 황경아 「한국창작동화에 나타난 환상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2.
- 황정현, 「4·19 체험과 현실 비판 정신의 계승」, 『한국논단』 4월호, 1998.
- 홍송식, 「1960년대 한국문학 논쟁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논문, 2000.

3. 단행본

- 금성출판 30년사 편찬위원회 편, 『금성출판사 30년사』, 금성출판사, 1995.
- 권오룡 외, 『문학·현실·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85.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02.
- 김대환 외, 『한국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열음사, 1987.
- 김보영,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역사비평사, 2001.
- 김병익,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9.
- 김상옥, 『어린이문학의 재발견』, 창비, 2006.
- 김성곤, 『퓨전시대의 새로운 문화 읽기』, 문학사상사, 2003.
- 김윤식, 『운명과 형식』, 솔, 1998.
-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 김영민, 『한국현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2000.
- 김영화, 『분단 상황과 문학』, 국학자료원, 1992.
- 문학사와비평연구회,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 문학과사회연구회 엮음, 『현대 사회와 문학적 상상력』, 거름, 1997.
- 민족문학사연구소편,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 문교부, 『문교 40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 박상재, 『한국동화문학의 탐색과 조명』, 집문당, 2002.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2001.
- 이동순, 『한국인의 세대별 문학의식』, 집문당, 2001.
- 이동렬, 『문학과 사회 묘사』, 민음사, 1988.
- 이상현, 『아동문학강의』, 일지사, 1987.
-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웅진출판, 1984.
-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집문당, 1988.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88.
- 이주형, 『한국아동청소년문학 연구』, 한국문화사, 2009.
-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0.
-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 박영신, 『역사와 사회변동』, 한국사회학연구소, 1987.
- 박태순 외,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 백로라, 『1960년대 희곡과 이데올로기』, 연극과 인간, 2004.
- 차은정, 『판타지 아동문학과 사회』, 생각의 나무, 2009.
-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1980.
- 최유찬, 『문학과 사회』, 실천문학, 1994.
- 하정일,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 3, 풀빛, 199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백산서당, 1999.
- 한길문학 편집위원회 편, 『한국근현대문학연구입문』, 한길사, 1990.
- 上野瞭, 햇살과 나무꾼 옮김, 『현대 어린이 문학』, 사계절, 2003.
- Ellen K. S. Key, 정혜영 옮김, 『어린이의 세기』,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 Frederick Elkin, 이동원 옮김, 『아동과 사회』, 삼일당, 1980.
- Jack Zipes, 김정아 옮김, 『동화의 정체』, 문학동네, 2008.
- Leo Lowenthal, 유종호 옮김, 『문학과 인간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 Maria Nikolajeva, 김서정 옮김, 용의 아이들, 문학과지성사, 1998.
- Maria Nikolajeva, 조희숙 외 옮김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교문사, 2009.
- Paul Hazard, 햇살과 나무꾼 옮김, 『책 · 어린이 · 어른』, 시공주니어, 1999.
- Perry Nodelman, 김서정 옮김,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1권, 시공주니어, 2002.
- Rillian H. Smith, 김요섭 옮김, 『아동문학론』, 교학연구사, 1966.

ABSTRACT

A Study on specialization and positi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the 1960s.

- Focused on children's Novels -

Jang, Young Mi
Dept. of Korean & Literatur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what studied the specialization and positi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1960s. As for 1960s, Korean Civil War, 4.19 revolution and 5.16 coup d'ete etc. may be counted as period feature. These 3 kinds of subjects show nature of differentiation from prior literature, continuity with post literature or contemporaneity as critical mind which ruled over the literature in 1960s. That is, literature in 1960s may be referred to as literature of the period to start earnest research for the new possibility of Korean literature, standing by the will of separation from prior period literature. We get to pay attention to the point that it has distinctive nature to be different from prior period literature, showing the aspect that it parted with postwar chaos by then society, culture and structure and also form of modern age is deepened and transfigured gradually.

Juvenile literary circles in 1960s thirsted for newness by social influence also. In

the early stage of 1960s, Lee, Won Soo groped for the right establishment of view of juvenile literature and the purification of juvenile literary man, by regarding the cause that juvenile literature was dull and it had been despised in comparison with adult literature as what comes from understanding lack of writer for juvenile literature and wrong justice and judgement which is not in juvenile literature itself. Yoon, Suk Joong enumerated the necessity of critic for the reorganization of literary circles and the evaluation of ability of writer, reflecting that prior writers did work activity without definite standard. We can see that trial to try to grope for the change of juvenile literature was formed unlike former times in juvenile literary circles in 1960s. We can think about the interrelation between literature and society realistically.

Existence method of publication media is not isolate industry, but it has relation with various structures of society body dynamically. This means that we can discover that the prevalence of boom of complete collection in 1960s has not nothing to do with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ultural phenomenon. However, as publication is one cultural business, it cannot help changing in accordance with social environment and given condition, but the quality of books of complete collection takes charge of very important role in that books are occupying the important part of environment that children receive education. As for the boom of complete collection in 1960s, they were published on the basis of social request. So, it is holding commercial element. But, we can give meaning to a certain degree, in that the publication of complete collection of Korean juvenile literature/selection arranged Korean juvenile literature history. Thus, publication culture in 1960s seems to be socio-cultural phenomenon that negative element and affirmative element were immanent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in 1960s, [juvenile literature] magazine which is the first special magazine of criticism of juvenile literature approached juvenile literature in the dimension of literature. [Juvenile literature] magazine which was published irregularly failed to continue long, in spite of efforts to try to emboss the position of juvenile literature. However, first [juvenile literature] magazine centering around the theory study of juvenile literature became direct motive which realized full-scale literature, forming criticism literature, and it improved the easygoing climate of literary circles of attitude of writer.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it expanded to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of juvenile literature after this to a certain degree. Literary contest in spring which was discontinued due to war revived with the middle of 1950s as the starting point, and it played the central role of the system to take the platform in 1960s. Writer group who aroused new wind in juvenile literary circles in 1960s were writers from literary contest in spring. Then, groped for what are different from established writer such as reinforcement of subject consciousness, diverse experiment consciousness and extension of juvenile world etc.

As for writers who groped for these diverse creation methods, Lee, Won Soo and Kim, Yo Seob who are established writers and Lee, Young Ho who is new writer may not be omitted. These writers illuminated society and children and children and society, breaking from illiterate vulgarity.

In case of Lee, Won Soo, he secured objective gaze, at the time distance to a certain degree in looking at Korean Civil War unlike other postwar novels which were written in 1950s. This may be linked to issue to objectify the issue of gaze that children look at subject. And, Kim, Yo Seob moved to utopia that children dream, keeping that children are center in juvenile literature in mind. Fantastic

creation technique caused the result to degrade the quality of work, but it groped for diverse tests. It is deemed that Lee, Young Ho who was from literary contest in spring took pains as to who were the masters of juvenile novel unlike established writers. We can see this from the fact that he took the most subject matters of work from what may arise in the world of children. This is because Lee, Young Ho is describing children's psychology by sticking to their world, unlike the fact that established writers tried to train children with the gaze and viewpoint of adult while writing juvenile novel. Writers from literary circles including Lee, Young Ho had influence on juvenile literature after this, while they tried new literature, keeping their distance with established writers.

Like this, juvenile literature in 1960s opened beginning with upheaval and confusion, but it is discriminated from former literature while it groped for awakening and change of juvenile literary circles. If former juvenile literature had more influence in the dimension of culture campaign, juvenile literature in 1960s showed efforts to draw near from the viewpoint that it is literature. This means that juvenile literary circles groped for change in gear with all the given condition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etc. and diverse gropings was linked to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juvenile literature after this.

Literature is one form of culture to happen in period and society. As it is culture medium to express the period and social phenomenon essentially most, study on literature enables whole recognition for the society of those days. Especially, juvenile novel to show actuality realistically will be useful data to read period in that it realizes society and children & children and society. Thus, illumination of juvenile literature in 1960s in this thesis gets to lay meaning in that it finds the feature of those days and the meaning of literary circles. This study

pulled up the meaning of history of juvenile literary circles in 1960s which has stopped at the level of criticism up to now to more full-scale dimension, and it will be able to be linked to the continuity of history of Korean juvenile literary circles after this.

* 부록

1. 1960년대 아동문학/인 관련 신문 기사 및 단평

- 「새벗의 새 주간」 (『동아일보』, 1960. 1. 10.)
- 「模型버리라 童話 童詩」 (『동아일보』, 1960. 1. 24.)
- 「現實的躊躇와 勇斷性 文壇淨化에의 一案」 (『경향신문』, 1960. 5. 13.)
- 「兒童文學의 止揚性」 (『동아일보』, 1960. 8. 18.)
- 「새나라와 어린이 『데모』」 (『동아일보』, 1960. 9. 21.)
- 「兒童文學硏究會 20日 創立總會開催」 (『경향신문』, 1960. 11. 21.)
- 「60年の 文化界 整理 出版界」 (『경향신문』, 1960. 12. 17.)
- 「1960年度 兒童文學 自由民主的인 文學에의 努力」 (『동아일보』, 1960. 2. 22.)
- 「동요를 뽑고 나서」 (『경향신문』, 1961. 1. 8.)
- 「兒童文學硏究會 29日 定期 月例會」 (『경향신문』, 1961. 1. 28.)
- 「韓國兒童 文學會서 오늘 合同 出版紀念」 (『경향신문』, 1961. 1. 28.)
- 「兒童文學의 當面課題」 (『경향신문』, 1961. 1. 30.)
- 「兒童文學과 現實參與 꽃동산에서 노는 天使를 유혹말라 (上)」 (『경향신문』, 1961. 2. 6.)
- 「兒童文學과 現實參與 꽃동산에서 노는 天使를 유혹말라 (下)」 (『경향신문』, 1961. 2. 7.)
- 「曹有路 氏의 글을 보고 낡은 兒童觀과 現實」 (『경향신문』, 1961. 2. 10.)
- 「『데모』와 兒童文學 <上>」 (『경향신문』, 1961. 2. 14.)
- 「『데모』와 兒童文學 <中>」 (『경향신문』, 1961. 2. 15.)
- 「『데모』와 兒童文學 <下>」 (『경향신문』, 1961. 2. 16.)

「兒童文學과 大衆性」 (『동아일보』, 1961. 3. 4.)

「어린이 작품 모집」 (『경향신문』, 1961. 4. 2.)

「어린이와 「兒童詩」 教育」 (『동아일보』, 1961. 5. 10.)

「어린이와 「兒童詩」 教育」 (『동아일보』, 1961. 5. 11.)

「兒童文學 集大成 乙酉·民衆서 刊行」 (『동아일보』, 1961. 9. 3.)

「어린이民謠33篇 『새싹회』 서 完成」 (『동아일보』, 1961. 9. 29.)

「兒童文庫의 決定版!」 (『동아일보』, 1961. 10. 3.)

「兒童에까지黨性學習强要」 (『경향신문』, 1961. 10. 19.)

「兒童文研 月例會」 (『경향신문』, 1961. 12. 14.)

「兒童文學月例會」 (『동아일보』, 1961. 12. 15.)

「童話全集刊行계획」 (『동아일보』, 1961. 12. 20.)

「동화 새롭지 않은 주제」 (『경향신문』, 1962. 1. 1.)

「동요 새로운 착상」 (『경향신문』, 1962. 1. 1.)

「1962年 文化界 展望 出版」 (『경향신문』, 1962. 1. 11.)

「새해에는 이런 일을. 재미있고 유익한 동화를 많이 쓰겠다」 (『조선일보』, 1962, 1. 13.)

「동시 노래는 즐겁다」 (『경향신문』, 1962. 3. 10.)

「아름다운 작품은 아름다운 생활로」 (『경향신문』, 1962. 4. 14.)

「해괴·영망인 어린이 「그림책」 바로잡는 길은 없나」 (『경향신문』, 1962. 4. 23.)

「봄 이룬 個人展集과 兒童文學. 최근의 출판 경향」 (『조선일보』, 1962. 4. 24.)

「어른부터 『거짓』 버리자」 (『동아일보』, 1962. 5. 5.)

「시들어가는 童心」 (『경향신문』, 1962. 7. 29.)

「優良兒童圖書 選定에 權威가져야」 (『동아일보』, 1962. 9. 15.)

「優良兒童圖書의 選定」 (『동아일보』, 1962. 10. 30.)

「優良兒童 圖書 34種 選定발표」 (『경향신문』, 1962. 11. 23.)

「62年の白書 兒童文學」(『동아일보』, 1962. 12. 17.)

「동요와 동시는 어떻게 다른가」(『경향신문』, 1963. 1. 25.)

「文協아동文學分科」(『경향신문』, 1963. 2. 27.)

「동화·동시작가들 동인회 「꽃밭」 조직」(『조선일보』, 1963. 8. 7.)

「뉴·칠드런文學會 同人誌도낸다고」(『경향신문』, 1963. 7. 22.)

「데뷰 完 兒童文學」(『경향신문』, 1963. 12. 2.)

「一線教師가 많아 흐뭇(童詩)」(『경향신문』, 1964. 1. 1.)

「童話 처음 써본 설빔기쁨」(『동아일보』, 1964. 1. 6.)

「童謠 童話 營養失調…끈기 잃어 틀에만 박힌 『固定物』」(『동아일보』, 1964. 1. 6.)

「어린이작품 모집 『아동문학』 지 주최」(『동아일보』, 1964. 1. 11.)

「兒童文學合評會」(『경향신문』, 1964. 2. 29.)

「兒童文學作品集 내기로」(『경향신문』, 1964. 3. 14.)

「두번째 『고마우신선생님』 =아동문학가마해송씨로정해」(『동아일보』, 1964. 4. 25.)

「어린이잡지 「새소년」 새로 나와」(『경향신문』, 1964. 4. 25.)

「兒童文學合評會 64年の童詩批評」(『경향신문』, 1964. 5. 5.)

「新春文藝入選作 單行本으로 發刊」(『동아일보』, 1964. 6. 6.)

「新春文藝當選作家 兒童文學作品 出刊」(『경향신문』, 1964. 6. 22.)

「글짓기와 동화잔치 아동문학가 김신철씨」(『동아일보』, 1964. 9. 12.)

「어린이 잡지 유익타」(『경향신문』, 1964. 10. 3.)

「新春文藝兒童文學 當選作品集을 出刊」(『경향신문』, 1964. 10. 8.)

「신춘문예당선 동화동요모아 책 「종이배」 나왔다」(『경향신문』, 1964. 11. 28.)

「『소년동아』 서 어린이 작품 모집」(『동아일보』, 1964. 12. 5.)

「新春兒童文學 同人會創立總會」(『동아일보』, 1965. 2. 20.)

「김요섭 선생님께서 결정」(『경향신문』, 1965. 5. 1.)

「金耀燮씨 決定 小泉兒童文學賞」(『동아일보』, 1965. 5. 1.)

- 「1회 小泉文學賞 金耀燮씨가 받아」 (『경향신문』, 1965. 5. 5.)
- 「울고 있는 어린이 憲章 教育者와 아동문학가들은 이렇게 본다」 (『경향신문』, 1965. 5. 5.)
- 「童心이 시드는惡德의密林 不良漫畫의 汜濫」 (『동아일보』, 1965. 8. 7.)
- 「『小泉兒童文學賞』 朴洪根씨決定」 (『동아일보』, 1966. 4. 21.)
- 「제2회 소천아동문학상 朴洪根씨 결정」 (『조선일보』, 1966. 4. 21.)
- 「朴洪根씨로 決定」 (『경향신문』, 1966. 4. 23.)
- 「"兒童 정서를 침해」 (『경향신문』, 1966. 6. 25.)
- 「좋은 어린이책 選定」 (『동아일보』, 1966. 7. 23.)
- 「여수의 「시작」 「아기섬」 동인회」 (『중앙일보』, 1966. 8. 16.)
- 「故 馬海松 = 인간과 문학 = 멋과 調刺의 붓끝, 동심에 바친 평생」 (『조선일보』, 1966. 11. 8.)
- 「海松童話賞 제정」 (『동아일보』, 1966. 11. 10.)
- 「크게 늘어난 兒童책 學習參考 圖書 줄고」 (『경향신문』, 1966. 12. 5.)
- 「제1회 海松 童話賞」 (『경향신문』, 1967. 1. 6.)
- 「어린이와 함께 새 노래를 「다 함께 노래 부르기 운동」 펴기로. 아동문학가 尹石重씨」 (『조선일보』, 1967. 2. 16. 조간)
- 「『고마우신 선생님』 에 李興烈씨 뽑혀」 (『동아일보』, 1967. 4. 15.)
- 「최계락씨 결정|소천 아동 문학상」 (『중앙일보』, 1967. 4. 29.)
- 「쉬운 「동심의 세계」」 (『중앙일보』, 1967. 5. 4.)
- 「小泉兒童文學賞 崔啓洛씨뽑혀」 (『동아일보』, 1967. 5. 5.)
- 「"참되고 씩씩하게" 「街頭직업少年 信條」 채택 宣誓」 (『경향신문』, 1967. 9. 14.)
- 「世界文化의 集成篇 어린이의 世界文學」 (『동아일보』, 1967. 9. 28.)
- 「"童心에 살자"」 (『경향신문』, 1967. 9. 29.)
- 「子女理解하는 모든 동화책」 (『경향신문』, 1967. 9. 30.)

- 「『새싹문학』 創刊 새싹회 二十 周」 (『동아일보』 , 1968. 1. 9.)
- 「小泉아동문학상 申智植씨 뽑혀」 (『조선일보』 , 1968. 4. 30.)
- 「메마른 童心에 티없는 꿈을…」 (『동아일보』 , 1968. 5. 4.)
- 「兒童文學賞 全集 譯刊」 (『동아일보』 , 1968. 7. 25.)
- 「"兒童의 精神啟發을 위해"」 (『동아일보』 , 1968. 9. 3.)
- 「높아진 어린이 책에의 관심」 (『경향신문』 , 1968. 9. 18.)
- 「세종아동문학상 이종기씨에」 (『조선일보』 , 1968. 10. 3.)
- 「서독 동화-시집에 尹石重씨 작품실려」 (『조선일보』 , 1969. 2. 25.)
- 「崔孝燮씨에 小泉文學賞」 (『동아일보』 , 1969. 4. 17.)
- 「제2회 「해송상」 새싹회, 동화모집」 (『중앙일보』 , 1969. 6. 7.)
- 「『달 征服』 맞아…달 書籍 봄」 (『동아일보』 , 1969. 7. 19.)
- 「兒童圖書 늘어」 (『동아일보』 , 1969. 8. 14.)
- 「兒童文學의 一生」 (『동아일보』 , 1969. 12. 18.)

2. 1960년대 신춘문에 심사위원 및 당선작 일람

1) 1960년대 신춘문에 심사위원 일람(동화/동요·동시부문)

신문 연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1960년	동화, 동요 : 윤석중	동화, 동시 : 마해송	신춘문에 공모 없음	동화 : 이원수 동요 : 강소천	동화 : 이원수 동요 : 윤석중	
1961년	동화, 동요 : 윤석중	동화, 동요 : 마해송	동화 : 마해송 동요 : 윤석중	동화 : 강소천 동시 : 마해송	동화 공모 없음 동요 : 전영택, 강소천	
1962년	동화, 동요 : 윤석중	심사 위원 찾지 못함	동화 : 마해송 동요 : 윤석중	동화 : 이원수 동시 : 마해송	찾지 못함	
1963년	동화, 동요 : 윤석중	동화 : 마해송 동요 : 강소천	동화, 동요 공모 없음	동화 : 김영일 동시 : 마해송	동화, 동요 공모 없음	
1964년	동화, 동요 : 윤석중	동화 : 이원수 동요 : 마해송	동화 : 마해송 동시 : 박목월, 조지훈	동화, 동요 공모 없음	동화 : 마해송	
1965년	동화 : 마해송, 윤석중	동화 : 이원수 동요 : 마해송	동화 : 마해송	동화 : 마해송, 이원수	동화 : 마해송	1965년 9월 22일 창간
1966년	동화 : 마해송, 윤석중	동화 : 이원수 동시 : 마해송	동화 : 마해송	동요·동시 : 박목월 (동화 공모 없음)	동화 : 마해송, 이원수	동화 : 마해송 동요 : 이원수
1967년	동화 : 윤석중	동화 : 이원수 동시 : 윤석중	동화, 동요 공모 없음	동화 : 최정희, 김요섭	동화 : 어효선	동화 : 이원수 동요 : 김요섭
1968년	동화 : 윤석중	동화 : 이원수 동시 : 윤석중	동화 : 박홍근, 김요섭	동화 : 최정희, 김요섭	동화 : 어효선, 황영애	동화 : 장수철 동시 : 박홍근
1969년	동화 : 윤석중	동화 : 이원수 동요 : 윤석중	희곡만 공모	동화 : 김요섭, 이원수	심사 위원 찾지 못함	동화 : 장수철 동시 : 김요섭

* 심사위원 명단은 연장자가 심사총평을 썼으므로 동화, 동요·동시 부문 모두 수록함.

2) 1960년대 신춘문에 당선작 일람(동화부문)

연도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1960년		「낙엽과 바람」(당선, 조운), 「홍시를 치키는 아이」(가작, 신탄)	「돌이와 누나」(당선, 김용성)	신춘문에 공모 없음	「작은 씨앗의 꿈」(당선, 최숙경)	당선작 없음	
1961년		「남수와 달」(당선, 오문조), 「새로운 깡깡이」(가작, 윤택기)	당선작 없음	당선작 없음	「인형이 가져온 현지」(당선, 이준연)	동화 공모 없음	
1962년		당선작 없음, 「강마울」(가작, 이재실)	당선작 없음, 「꽃 공녀」(가작, 허나미), 「엄마 돈 누나」(가작, 이희성)	「않는 양」(가작, 노경자)	「학처럼」(당선, 김영순), 「슬픈 메아리」(가작, 성기문)	찾지 못함	
1963년		당선작 없음	「먼 나라의 눈」(당선, 이희성), 「수현이와 옥진이」(가작)	동화, 동요 공모 없음	「철이와 호랑이」(당선, 최효섭), 「침이 있는 아이」(가작)	동화, 동요 공모 없음	
1964년		「밤비」(당선, 이현주)	「아기송아지」(당선, 남미영)	「바람을 그리는 아이」(당선, 유여춘)	동화, 동요 공모 없음	「꽃씨」(당선, 김종한)	
1965년		「키다리 풍선 장수 아저씨」(당선, 유재용)	「비오는 날」(당선, 조현래)	「들국화」(당선, 권용철)	「당나귀」(당선, 이관)	「분이와 들국화」(당선, 김한주)	1965년 9월 22일 창간
1966년		「선생님을 찾아온 아이들」(당선, 손춘익)	「철이와 아버지」(당선, 오탁번)	「토끼」(당선, 이영호), 「엄마와 선생님」(가작, 김영자)	동화 공모 없음	「영이의 꿈」(당선, 조대현)	「화야랑, 서구랑, 왕코알아버지랑」(당선, 김민부)
1967년		「손전등」(당선, 유시도)	「발이 큰 아이」(당선, 이덕자)	동화, 동요 공모 없음	「털 사쓰」(당선, 고계영)	「웅이와 염소」(당선, 강향림)	「운동화」(당선, 김일환), 「피땀한 손」(가작, 이상금)
1968년		「성 너머 아이」(당선, 장승남)	「개구리」(당선, 유정옥)	「골목대장 헝이」(당선, 김석호)	「달마산의 아이들」(당선, 임신행)	「이른 봄에 온 매미」(당선, 권태문)	「아기중」(당선, 오세발), 「대창과 아이들」(가작, 한상연)
1969년		「기차」(당선, 임영금)	「네발달린 우산」(당선, 이효성)	희곡만 공모	「눈 오는 밤의 심부름」(당선, 김미영)	「도토리」(당선, 최영애)	「리베랄군의 감기」(당선, 장부일)